

An analysis on the reasons of population
movement by age in Goyang City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유 분석을 중심으로

석 호 원
김 소 담

An analysis on the reasons of population movement by age in Goyang City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유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소담(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1년 10월 31일

저자 석호원, 김소담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24-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이론적 검토	9
제1절 인구변동 요인	11
제2절 연령과 인구이동	15
제3장 분석모형의 설정	19
제1절 모형의 개요	21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23
제4장 고양시 연령별 인구이동 요인 분석	27
제1절 고양시 인구이동 현황	29
제2절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49
제5장 시사점	93
참고문헌	99
부록	101
Abstract	141

표 목차

[표 3-1] 전입신고서 서식(조사표)	25
[표 3-2] 변수의 설명	26
[표 4-1] 고양시 이동자수별 전입사례	29
[표 4-2] 고양시 구별 전입사례와 전입인구	30
[표 4-3] 고양시 연도별 구별 전입사례와 전입인구	31
[표 4-4] 고양시 연령별 전입 현황(세대주 이동)	32
[표 4-5]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세대주 이동)	33
[표 4-6] 고양시 연령별 전입 현황	34
[표 4-7]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	35
[표 4-8] 고양시 성별 전입 현황	36
[표 4-9] 고양시 연도별 성별 전입 현황	37
[표 4-10] 배우자, 자녀, 부모 전입 현황	37
[표 4-11] 전입 가족 구성별 빈도	38
[표 4-12] 고양시 이동자수별 전출사례	39
[표 4-13] 고양시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수	40
[표 4-14] 고양시 연도별 구별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41
[표 4-15] 고양시 연령별 전출 현황(세대주 이동)	42
[표 4-16]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세대주 이동)	43
[표 4-17] 고양시 연령별 전출 현황	44
[표 4-18]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	45
[표 4-19] 고양시 성별 전출 현황	46
[표 4-20] 고양시 연도별 성별 전출 현황	47
[표 4-21] 배우자, 자녀, 부모 전출 현황	47
[표 4-22] 전출 가족 구성별 빈도	48

[표 4-23]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49
[표 4-24] 고양시 전입사유	50
[표 4-25] 고양시 구별 전입사유	51
[표 4-26] 덕양구 연도별 전입사유	52
[표 4-27] 일산동구 연도별 전입사유	53
[표 4-28] 일산서구 연도별 전입사유	54
[표 4-29] 고양시 전입사례의 주요 전출지(상위 20개)	56
[표 4-30] 연령별 전입사유(전체)	57
[표 4-31] 연령별 전입사유(세대주)	58
[표 4-32] 연령별 전입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	59
[표 4-33] 고양시 성별 전입사유	70
[표 4-34] 자녀가 있는 경우 전입사유	71
[표 4-35] 부모가 있는 경우 전입사유	71
[표 4-36] 고양시 전출사유	72
[표 4-37] 고양시 구별 전출사유	73
[표 4-38] 덕양구 연도별 전출사유	74
[표 4-39] 일산동구 연도별 전출사유	75
[표 4-40] 일산서구 연도별 전출사유	76
[표 4-41] 고양시 전출사례의 주요 전입지(상위 20개)	78
[표 4-42] 연령별 전출사유(전체)	79
[표 4-43] 연령별 전출사유(세대주)	80
[표 4-44] 연령별 전출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	81
[표 4-45] 고양시 성별 전출사유	91
[표 4-46] 자녀가 있는 경우 전출사유	92
[표 4-47] 부모가 있는 경우 전출사유	92

그림 목차

[그림 2-1] 라이프사이클 가설	16
[그림 3-1] 전입신고서 양식	24
[그림 4-1] 10대 미만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1
[그림 4-2] 1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2
[그림 4-3] 2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3
[그림 4-4] 3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4
[그림 4-5] 4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5
[그림 4-6] 5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6
[그림 4-7] 6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7
[그림 4-8] 7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8
[그림 4-9] 80대 이상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9
[그림 4-10] 10대 미만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2
[그림 4-11] 1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3
[그림 4-12] 2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4
[그림 4-13] 3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5
[그림 4-14] 4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6
[그림 4-15] 5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7
[그림 4-16] 6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8
[그림 4-17] 7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9
[그림 4-18] 80대 이상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90

요 약

2021년 현재 한국의 지역별 인구구조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별 인구구조 불평등은 사회적 인구변화인 인구이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구조 불균등의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구이동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이동의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특히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이와 연관된 개인적 선호는 잠재적 이동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별 이동요인 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자료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항목의 국내이동 통계 전수자료를 활용하였으며 770만 건의 이동 사례 중 고양시 사례를 추출하고 전출지를 추적하여 연령에 따른 전입 및 전출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입사유와 관련하여 20대 미만의 학령인구에서는 교육과 가족요인이 그리고 20대에서는 직업 및 가족요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0대는 직업, 가족, 주택요인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의 경우 주택과 직업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50대의 경우 주택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직업요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주택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주거환경 요인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출사유의 경우 10대 미만은 가족과 교육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과 주택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요인에 이어 가족 및 주택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직업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대에서는 주택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이상 연령으로 갈수록 직업요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6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과 직업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역시 주택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족요인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례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각 연령별 전입 및 전출의 주요인들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대 미만에서는 가족과 교육요인이 중요하며 20대 이상 50대 미만에서는 직업과 가족 주택요인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특히 주거환경요인이 완만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유의 우선순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대 전입사례에서는 가족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출사례에서는 교육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20대 전입자는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이 유사한 비중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출사례에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명확한 분기점을 보이며 직업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연령별 주된 이동 사유인 직업, 가족, 주택요인의 변화추세의 시계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 요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족요인과 직업요인 그리고 주거환경 요인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요인은 역 유(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주요 이동 사유는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전입과 전출사유의 변화추세는 유사성을 보이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양시의 연령별 정책 수요 파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요인과 직업요인 그리고 주거환경 요인 등은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전출사유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관련 정책 계획 수립 시 동 요인의 변화 경향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로 처음 1.0 이하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기준 0.84로 OECD 평균 1.61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0.9% 수준에서 2020년 16.4% 수준으로 5%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기준 29위 수준으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출생률과 높은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성장잠재력 저하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출생률과 고령화 속도 등 자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여의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인구의 유입과 유출(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감은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격차의 심화는 단순히 지역 인구 수 편차 심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지역의 성장 동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격차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무엇보다 인구이동이 초래하는 지역의 쇠퇴는 다시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하는 특징이 있어 지역에 따라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 역시 이러한 지역별 불균등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문제를 넘어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위기 지역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요인 이외에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인 사회적 인구변화(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기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이에 관한 대응전략 모색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소멸과 관련된 지역의

불균등한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대소득, 취업기회 등의 경제적 요인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육, 문화, 주택, 여가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 인구구조의 불균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동 요인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인구이동에 의한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등은 이동 인구의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젊은 연령층의 대도시 지역으로의 유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대도시 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의 소도시들은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높은 고령화로 인해 도시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석호원·김소담, 2020). 즉 이동하는 개인이 처한 경제·사회적 특징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동 유인과 이동지역 역시 연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인구이동의 매우 중요한 설명 변수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령별 이동 이유는 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은 2020년 기준 1933조 1524억 수준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외연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족 관련 가치관과 삶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으며 연령구별¹⁾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 인구의 이동 이유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등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구이동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연령에 따라 인구이동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인구이동 연구의

¹⁾ 연령구별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경우, 인구이동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동 원인을 파악하는 통계적 추정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인구이동과 지역 특성 간 인과(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의 경우 분석단위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 인구이동 요인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동하는 주체의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 요인의 영향력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구이동은 이동자가 속해있는 삶의 주기(life cycle)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같은 요인이라도 연령 등에 따라 이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세대(世代)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 방법 역시 이동자 개인의 직접 자료가 아닌 연령별 인구이동 총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거나 이동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동요인과 이동 결과 간 관계의 직접성이 낮은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데이터 분석의 방대함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령별 이동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한 시계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현재 인구 108만의 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고양시를 대상으로 전입 및 전출인구의 전입 및 전출사유분석을 통해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며 특히 연령별로 이동 사유가 어떠한 양상으로 분포하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서 2019년의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연령별 인구이동 양상과 이동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실증 분석하여 연령별 인구의 이동요인과 그 변화에 관한 이론적 관계 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이 고양시 연령별 인구의 유입을 추동하고,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고양시 인구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의 유입과 유출 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임과 동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대상으로, 유입 및 유출 인구의 연령별 이동요인과 시간에 따른 동요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단순한 인구이동 총계 자료가 아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항목의 국내이동 통계의 전입사유가 적시된 자치단체 전입인구 전수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동 사유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현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고양시 전입자 자료는 고양시에 전입한 세대주가 직접 작성하는 전입신고서 전수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전출자료는 고양시에서 전출한 인구가 최종적으로 전입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전입 시 작성한 전입신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역추적하여 산출된 것이다. 10년간 고양시 분석대상 전입 및 전출사례는 약 107만 건으로 이동자는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전입신고를 활용한 연령별 이동 사유 분석은 그 자료가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특히 전출사유인 경우 고양시에서 전출한 인구가 전국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를 추적하고 각 전출한 지역에서 기재한 전입사유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러나 통계적 추정이 아닌 연령별 인구의 전입 및 전출사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직접적 인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일반화의 한계는 존재하나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먼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령별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 고양시의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대상으로 고양시 연령별 인구의 전입과 전출사유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

로 연령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분석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고양시 전입 및 전출사례 현황과 이동요인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구변동 요인

제2절 연령과 인구이동

제절 인구변동 요인

2020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 0.8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의 정체와 함께 주요 인구구성 역시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기한 인구구조 변화는 모든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나 지역 단위 인구의 불균등한 변화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의 양극화와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역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인구변화는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되먹임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지역의 인구변화는 도시환경 변화를 통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순환적 성격을 지닌다. Elis(2008)에 의하면 지역의 경기쇠퇴, 교육 서비스 저하 등 생활환경 악화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부정적 악순환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립, 2018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인구의 변동은 지역의 발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성쇠 양상은 다시 인구변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축소(쇠퇴)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의 축소(쇠퇴)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구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축소도시는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서 인구감소, 경제침체, 고용감소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 또는, 인구밀도가 높았던 도시 내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구조적 위기를 유발하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도시라 할 수 있다(Martinez-Fernandez et al., 2012; Pallagst, 2008).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쇠퇴는 일반적으로 도시 전체 또는 도시 일부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기반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도시쇠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제시되고 있다(김광중, 2010; 구형수 외, 2016). 구형수 외(201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여건변화, 저출산·고령화, 교외화 현상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인구감소, 부동산 방치 등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소

영 외(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쇠퇴 측정을 위한 지표로 인구증감률·순이동률·독거노인 가구 비율 등의 인구사회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높은 쇠퇴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들이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동은 지역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특성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수의 연구에서 인구증감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범 외, 2010; 기정훈, 2011; 박세훈 외, 2012; 김순은, 2016).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인구변동 요인은 크게 저출생, 고령화 등의 자연적 증감 요인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 요인으로 대분될 수 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자연적 요인은 모든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공통적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고령층의 유입 및 유출로 인해 인구구조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역적 차원에서 자연적 인구증감은 사회적 요인인 인구이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증감은 국제 이동을 제외하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 총량의 변화가 없으며 지역 간 제로섬 게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에 의한 인구증가는 다른 지역 인구유출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도시쇠퇴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은 다른 지역의 쇠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의 자연적 인구증감 요인은 그 자체로 인구증감의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인구이동과 결합된 복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더 의미 있는 지역의 인구증감 관련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인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구변화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실증되고 있다(박진경 외, 2017; 이상림 외, 2018). 특히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 전 연령층 감소 혹은 청년층 인구유입 증가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도시 및 군 지역에서는 청년층 인구유출과 고령층 인구유입 등의 유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대도시 지역의 인구증감과 그 이외 지역의 인구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림 외, 2018).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는

항아리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시·군·자치구의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구조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2008년)에 비해 최근(2018년) 고령화 도시유형 지역과 젊은 도시유형 지역 간 인구 규모, 사회·경제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석호원·김소담, 2020).

상기한 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변동은 사회적 증감 요인인 인구의 유입 및 유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다양한 요인의 함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요인과 관련하여 기대소득, 취업기회 등의 경제적 요인은 초기부터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과거 두드러진 이촌향도 현상에 대한 주요 설명 변수로 검토되어 왔다. 경제적 요인론에서는 고용기회, 소득, 자산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며 대표적으로 Lewis(1954)는 전통(농업)부문에 비해 도시의 절대 임금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Todaro(1980)는 실질소득보다는 도시의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에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호(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지역 간 인구이동은 6~7% 정도의 실질임금 편익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은우(2005)와 강은택·마강래(2012) 등은 인구이동이 소득 격차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동자의 소득이 더 높고,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과 이동 없이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집단과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성격을 지니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취업기회와 양질의 노동환경, 고임금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이동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높다면 노동자들의 이동성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최석현, 2016).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구이동 요인으로서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고령 인구의 증가와 기대여명 증가 등 변화된 사회 환경 하에서도 역시 여전히 중요한 이동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은 노동자의 연령과 경제활동 상태 등 개인 요인 및 혼인 및 자녀 여부 등의 가구특성 그리고 지역의 주거 및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함수이므로 이러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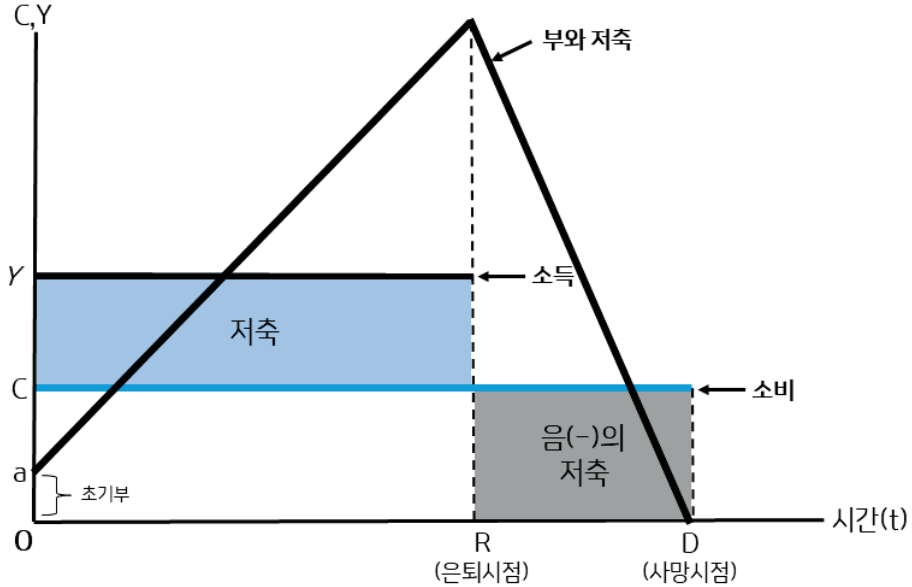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인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지역의 고용성장률, 실업률, 평균임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동 요인들은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Cushing,1993; Shelley and Koven,1993; 김현아, 2008; 강동우, 2016). 또한, 인구, 사회적, 환경적 특성으로 출산율 사망률, 인구증가율, 교육, 문화, 교통시설 등이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다(Conway and Houtenville, 1998; Banzhaf and Walsh, 2008; 이희연·박정호, 2009; 석호원, 2012; 김리영·양광식, 2013; 김병석·서원석, 2014). 그러나 인구이동과 인구이동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관찰된 인구이동의 결과와 이동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 등에 관한 관계를 추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찰된 이동 인구의 직접적 이동요인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제2절 연령과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상기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각 요인에 대한 선호 정도는 개인별로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선호는 이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다. 즉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같은 실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 경우 경제적 편익과 이동 비용 측면에서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Herzog et al., 1993; 이희연, 2008).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이와 연관된 개인적 선호는 잠재적 이동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인구학에서 연령의 영향은 중요한 연구대상이었으며 사망, 출산, 인구이동 등 인구학적 행위들의 발생은 연령에 따라 보편적인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연령은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 육아 그리고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며 특히 인구이동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이상립, 2009). 모딜리아니-브람버그-앤도(Modigliani-Ando-Brumberg) 등에 의해 주창된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보다 소득이 작은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고 소비보다 소득이 높은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라이프사이클 가설



출처: 정운찬·김영식(2006)

그림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시점에는 소비가 부모의 부와 소득에 의존하게 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저축을 하게 되며, 은퇴 시점 이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소비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 생애주기 가설에 비추어 볼 때 학령인구의 경우 가구주의 의지에 따라 이동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대 중반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구직 활동에 따른 직업요인이 주된 이동 원인일 수 있다. 한편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의 경우 가족 요인과 이직 그리고 주택 등이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은퇴에 따른 주거 및 지역의 편의 등이 이동을 유발하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별적 이동은 생애과정에 따라 직면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반응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인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림, 2009). 한편 세대(연령)에 따라 같은 요인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Plantinga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주택가격은 일반적인

로 인구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고소득자나 청년층의 경우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가격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Chen and Rosenthal(2008)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근로자와 달리 은퇴자의 경우에는 소비에 부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의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한 이찬영(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반면 40~50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이동의 이유로 20대는 일자리 그리고 30대 이상의 연령은 주택가격이 낮고 문화기반 시설 수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찬영, 2018). 아울러 전 연령층에서 전세가격, 문화서비스 혜택, 교육 여건 등의 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인구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찬영·문제철, 2016). 동 연구는 연령대에 따른 인구이동 요인을 검토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단위가 광역 수준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인구이동 결과를 지역 특성에 사후적으로 환원하여 추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이동요인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이동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동의 이유를 조사하지 않는 한 가용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이동요인을 구성하는 변수가 과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대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20대 중반의 이주 주체들은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81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홍성호·유수영, 2012). 동 연구는 기초 수준에서 세대별로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세대의 대상이 81세 이상의 고령자와 23~27세의 연령대와 자녀동반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연령층이 제한적이며 전입신고서의 자료에 기초하면서도 그 이동요인을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통계적 추정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직접적

이동요인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연령대별 이주지역 선택요인을 이동 거리와 아파트 가격, 인구 수 등으로 설정하고 연령대별 각 요인의 영향력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이동 거리는 20대에서 가장 둔감하며 가장 민감한 연령대는 40대로, 이는 취학이동이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2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30대와 60대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비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40대와 50대 연령층의 자산형성 여력을 제시하고 있다(최성호·이창무, 2013). 동 연구결과는 40대와 50대의 경우 교육 및 주택요인 등이 이동의 주요인일 수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자연환경 등의 요인이 주된 이주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변수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 요인이 연령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문화적인 교육, 노동, 결혼, 양육, 은퇴 등의 패턴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연령에 따른 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 즉 혼인 여부, 교육 정도, 성향, 교육 정도 등에 따라 이동 유인과 이동에 따른 편익 및 소요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동의 결과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과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양질의 데이터는 활용(습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분석결과 역시 통계적 추정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이동요인의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이동 결과(거주지, 이동지) 그리고 이동 이유 등이 이동자별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이동 이유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적 특성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어야 이동지역의 특성과 이동 결과 간 통계적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더 정확한 인구이동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 3 장

분석모형의 설정

제1절 모형의 개요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제절 모형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이동의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여 생애주기별 인구의 이동요인에 관한 이론적 관계 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연구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항목의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국내이동통계 자료이며 동 기간 고양시의 전입, 전출사례의 전수자료를 분석하도록 한다.

지역 간 이동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지역 간 이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M_{tik} = F[U(X_{1tij}, X_{2tij}, X_{3tij} \dots), C_{tik}] \quad \text{식 (1)}$$

식 (1)의 M_{tik} 는 특정 시기(t) i지역에 거주하는 대표적 개인 k의 이동을 나타내며 k의 이동은 t기의 거주지역 i와 이동을 고려하는 지역 j의 직업(X_1), 교육(X_2), 주거환경(X_3) 등의 이동에 따른 효용과 소요되는 이동 비용 C_{tik} 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이동에 따른 비용은 이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이사비용 등의 명시적 비용과 이직, 가족과의 관계변화 등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개인은 이동을 통해 얻는 효용이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보다 클 때 이동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동한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동을 통해 얻는 효용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 개인의 효용과 비용 간 관계는 식 (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U(X_{1tij}, X_{2tij}, X_{3tij} \dots) > C_{tik} \quad \text{식(2)}$$

식(2)의 관계하에서 대표적 개인 k의 이동 원인은 각 요인의 상대적 효용의 크기의 함수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동을 결정한 개인이 주된 이동 이유가 직업(X_1)에 있을 경우 이동에 통해 얻게 되는 직업의 한계효용이 다른 요인에 의한 한계효용보다 큰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U'(X_{1tij}) > U'(X_{2tij}), U'(X_{3tij}), U'(\dots) \quad \text{식(3)}$$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동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항목의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국내이동통계 자료 중 고양시의 전입, 전출자 전수자료이다. 동 데이터는 특정 지역에 전입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된 전입 신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전입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신고자의 성별과 연령 등의 기본자료와 기존 거주지 그리고 함께 전입한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에 관한 정보 등이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 직업, 교육 정도 등 개인정보가 병기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 가족관계 이외의 통제변수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한다. 동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입의 이유를 직접 기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통해 이동 사유를 추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 기재의 충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아울러 상기한 바와 같이 통제변수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적 모형 구성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다.

[그림 3-1] 전입신고서 양식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19. 2. 8.>

[] 전입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일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동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우궁학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 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관기재)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취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집집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동 연구의 설명변수는 연령별 고양시 유입 및 유출 인구의 이동 사유로서 전입 시 전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전입사유를 분석데이터로 활용하기로 한다. 전입신고서 양식에 의하면 전입의 사유를 7개(직업, 교육, 가족, 주거환경, 주택, 자연환경, 그 밖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입자는 이 가운데 주된 전입사유 1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은 전입신고서 양식에 적시되어 있는 전입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표 3-1] 전입신고서 서식(조사표)

전입사유 (주된 1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	---

한편 고양시 기준으로 볼 때 전입신고서는 고양시에 전입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재된 전입사유는 고양시로 전입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의 경우 그 이동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하여 이들이 작성한 전입 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에 전입한 인구나 전출한 인구의 이동 사유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출인구의 다른 지역 전입사유는 곧 고양시의 전출사유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수집·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전입 신고서를 통해 세대주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동반 가족의 나이와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의 구성은 연령별 인구이동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형의 고려변수로 아울러 구성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양시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례로 분석기간 동안 고양시 전입 및 전출사례 전체를 연령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이동 사유를 분석하도록 한다. 연령의 범위는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등으로 구분하

며 이동 사유 분석 시 세대주의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경우에 따라 세대주 동반 이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안에 따라 같이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의 설명

변수	내용
종속변수	M_{tik} : 고양시 전입자, 전출자(연령 구분)
설명변수	<p>이동 이유 (X_{tij} : 이동 이유의 벡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고려변수	<p>C_{tij} (고려변수의 벡터: 동반 가족 유형, 성별 등)</p> $M_{tik} = F(X_{tij}, C_{tik})$

제 4 장

고양시 연령별 인구이동 요인 분석

제1절 고양시 인구이동 현황

제2절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제절 고양시 인구이동 현황

1. 고양시 전입사례 현황

10년간 고양시 전입사례는 약 55만 8천여 건으로 이 중 1인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에 따른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자 전체사례는 덕양구가 24만 4,364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일산동구 17만 2,840건 일산서구 14만 1,615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고양시 이동자수별 전입사례

(단위: 건, %)

이동자 수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전입사례	비율	전입사례	비율	전입사례	비율	전입사례	비율
1명	386,776	(69.21%)	166,417	(68.10%)	126,193	(73.01%)	94,166	(66.49%)
2명	70,480	(12.61%)	32,699	(13.38%)	19,589	(11.33%)	18,192	(12.85%)
3명	52,070	(9.32%)	23,716	(9.71%)	13,587	(7.86%)	14,767	(10.43%)
4명	39,635	(7.09%)	17,213	(7.04%)	10,794	(6.25%)	11,628	(8.21%)
5명	8,134	(1.46%)	3,597	(1.47%)	2,178	(1.26%)	2,359	(1.67%)
6명	1,351	(0.24%)	573	(0.23%)	389	(0.23%)	389	(0.27%)
7명	274	(0.05%)	104	(0.04%)	85	(0.05%)	85	(0.06%)
8명	68	(0.01%)	31	(0.01%)	15	(0.01%)	22	(0.02%)
9명	25	(0.00%)	9	(0.00%)	10	(0.01%)	6	(0.00%)
10명	6	(0.00%)	5	(0.00%)	0	(0.00%)	1	(0.00%)
계	558,819	(100%)	244,364	(100%)	172,840	(100%)	141,615	(100%)

아래의 [표 4-2]는 고양시 및 각 구의 전입사례와 전입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 고양시 구별 전입사례와 전입인구

(단위: 건, 명)

이동자 수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전입사례	0동 인구수	전입사례	0동 인구수	전입사례	0동 인구수	전입사례	0동 인구수
1명	386,776	386,776	166,417	166,417	126,193	126,193	94,166	94,166
2명	70,480	140,960	32,699	65,398	19,589	39,178	18,192	36,384
3명	52,070	156,210	23,716	71,148	13,587	40,761	14,767	44,301
4명	39,635	158,540	17,213	68,852	10,794	43,176	11,628	46,512
5명	8,134	40,670	3,597	17,985	2,178	10,890	2,359	11,795
6명	1,351	8,106	573	3,438	389	2,334	389	2,334
7명	274	1,918	104	728	85	595	85	595
8명	68	544	31	248	15	120	22	176
9명	25	225	9	81	10	90	6	54
10명	6	60	5	50	0	0	1	10
계	558,819	894,009	244,364	394,345	172,840	263,337	141,615	236,327

10년간 고양시에 전입한 인구는 89만 4천여 명으로 덕양구 39만 4,345명 일산동구 26만 3,337명 일산서구 23만 6,327명으로 덕양구가 전체 전입사례의 약 43.7% 그리고 전입인구의 44.1%로 전입사례와 전입인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3]은 연도별 전입사례 수와 전입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10년간 고양시 전입사례는 총 55만 8천여 건으로 연도별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5만 9천여 건에서 2017년과 2018년 5만 건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2019년 다시 약 5만 9천 건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구별 전입사례는 덕양구가 약 24만 4천 건(43%)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일산동구(30%) 약 17만 2천 건 일산서구(25%) 약 14만 6천 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 인구 수 역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전입 인구 수는 9만 6천여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입인구는 2011년 가장 많았으며 2017년 7만 5천여 명 수준으로 사례수와 전입인구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3] 고양시 연도별 구별 전입사례와 전입인구

(단위: 건, 명)

구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전입사례 수	0동 인구수	전입사례 수	0동 인구수	전입사례 수	0동 인구수	전입사례 수	0동 인구수
2010	59,654	96,447	25,003	40,247	19,172	30,301	15,479	25,899
	(100%)	(100%)	(41.91%)	(41.73%)	(32.14%)	(31.42%)	(25.95%)	(26.85%)
2011	57,998	96,696	22,075	35,150	20,105	33,060	15,818	28,486
	(100%)	(100%)	(38.06%)	(36.35%)	(34.66%)	(34.19%)	(27.27%)	(29.46%)
2012	54,406	88,629	22,400	37,119	18,101	28,101	13,905	23,409
	(100%)	(100%)	(41.17%)	(41.88%)	(33.27%)	(31.71%)	(25.56%)	(26.41%)
2013	55,884	93,949	24,030	41,657	17,251	26,836	14,603	25,456
	(100%)	(100%)	(43.0%)	(44.34%)	(30.87%)	(28.56%)	(26.13%)	(27.1%)
2014	55,289	90,890	24,805	41,949	16,384	24,886	14,100	24,055
	(100%)	(100%)	(44.86%)	(46.15%)	(29.63%)	(27.38%)	(25.50%)	(26.47%)
2015	58,811	96,083	27,330	45,889	16,961	25,915	14,520	24,279
	(100%)	(100%)	(46.47%)	(47.76%)	(28.84%)	(26.97%)	(24.69%)	(25.27%)
2016	54,835	85,039	23,924	36,779	17,079	25,589	13,832	22,671
	(100%)	(100%)	(43.63%)	(43.25%)	(31.15%)	(30.09%)	(25.22%)	(26.66%)
2017	50,148	75,860	22,415	34,036	15,421	22,332	12,312	19,492
	(100%)	(100%)	(44.70%)	(44.87%)	(30.75%)	(29.44%)	(24.55%)	(25.69%)
2018	51,972	78,937	23,412	36,047	16,238	23,539	12,322	19,351
	(100%)	(100%)	(45.05%)	(45.67%)	(31.24%)	(29.82%)	(23.71%)	(24.51%)
2019	59,822	91,479	28,970	45,472	16,128	22,778	14,724	23,229
	(100%)	(100%)	(48.43%)	(49.71%)	(26.96%)	(24.9%)	(24.61%)	(25.39%)
계	558,819	894,009	244,364	394,345	172,840	263,337	141,615	236,327
	(100%)	(100%)	(43.73%)	(44.11%)	(30.93%)	(29.46%)	(25.34%)	(26.43%)

2. 고양시 연령별, 성별, 가족관계별 전입사례 현황

1) 연령별 전입사례 현황

전입사유의 경우 세대주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입사례에서는 세대주와 같이 이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동 사유를 중심으로 볼 때 세대주와 같이 이동하는 경우와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사안에 따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4-4]는 세대주가 이동한 경우의 전입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55만 8,819건의 사례 중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은 사례는 18만 5,905건으로 전체의 약 33%에 해당하며 세대주가 이동한 사례는 37만 2,914건 전체의 67% 수준이다. 전입 건수는 30대와 40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20대의 경우 역시 고양시 기준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경향은 고양시 행정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전입사례는 일산동구에서 다소 높고 40대 및 70대 이상의 전입사례는 일산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덕양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50대와 60대의 전입사례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 고양시 연령별 전입 현황(세대주 이동)

(단위: 건, %)

구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대 미만	66	(0.02%)	22	(0.01%)	19	(0.02%)	25	(0.03%)
10대	1,741	(0.47%)	924	(0.56%)	478	(0.41%)	339	(0.37%)
20대	61,135	(16.39%)	24,517	(14.91%)	24,052	(20.51%)	12,566	(13.77%)
30대	113,119	(30.33%)	48,969	(29.79%)	36,264	(30.93%)	27,886	(30.55%)
40대	82,920	(22.24%)	34,775	(21.15%)	25,814	(22.02%)	22,331	(24.47%)
50대	55,763	(14.95%)	26,660	(16.22%)	15,690	(13.38%)	13,413	(14.70%)
60대	30,705	(8.23%)	15,468	(9.41%)	7,766	(6.62%)	7,471	(8.19%)
70대	18,656	(5.0%)	8,941	(5.44%)	4,707	(4.01%)	5,008	(5.49%)
80대 이상	8,809	(2.36%)	4,122	(2.51%)	2,460	(2.10%)	2,227	(2.44%)
계(A)	372,914	(100%)	164,398	(100%)	117,250	(100%)	91,266	(100%)
세대주 미이동(B)	185,905		79,966		55,590		50,349	
총계(A+B)	558,819		244,364		172,840		141,615	

아래의 [표 4-5]는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0대 이하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큰 변화는 찾기 어려우나 20대의 경우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대의 경우 2014년까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3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40대의 경우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등락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5]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세대주 이동)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2010	5	137	7,279	13,977	9,327	5,156	2,871	1,774	665	41,191
	(0.01%)	(0.33%)	(17.67%)	(33.93%)	(22.64%)	(12.52%)	(6.97%)	(4.31%)	(1.61%)	(100%)
2011	8	127	6,423	13,358	9,358	5,366	2,890	1,784	708	40,022
	(0.02%)	(0.32%)	(16.05%)	(33.38%)	(23.38%)	(13.41%)	(7.22%)	(4.46%)	(1.77%)	(100%)
2012	5	125	5,790	11,788	8,588	5,369	2,587	1,650	722	36,624
	(0.01%)	(0.34%)	(15.81%)	(32.19%)	(23.45%)	(14.66%)	(7.06%)	(4.51%)	(1.97%)	(100%)
2013	10	118	5,360	12,261	8,936	5,824	3,017	2,018	851	38,395
	(0.03%)	(0.31%)	(13.96%)	(31.93%)	(23.27%)	(15.17%)	(7.86%)	(5.26%)	(2.22%)	(100%)
2014	2	161	5,276	11,635	8,730	5,748	3,042	1,973	854	37,421
	(0.01%)	(0.43%)	(14.10%)	(31.09%)	(23.33%)	(15.36%)	(8.13%)	(5.27%)	(2.28%)	(100%)
2015	8	206	5,606	11,416	8,847	6,473	3,635	2,273	1,075	39,539
	(0.02%)	(0.52%)	(14.18%)	(28.87%)	(22.38%)	(16.37%)	(9.19%)	(5.75%)	(2.72%)	(100%)
2016	7	157	5,824	9,944	7,722	5,667	3,223	1,930	940	35,414
	(0.02%)	(0.44%)	(16.45%)	(28.08%)	(21.80%)	(16.0%)	(9.10%)	(5.45%)	(2.65%)	(100%)
2017	8	185	5,854	8,786	6,791	4,913	2,757	1,616	864	31,774
	(0.03%)	(0.58%)	(18.42%)	(27.65%)	(21.37%)	(15.46%)	(8.68%)	(5.09%)	(2.72%)	(100%)
2018	3	177	6,199	9,085	6,808	5,191	3,029	1,753	1,032	33,277
	(0.01%)	(0.53%)	(18.63%)	(27.30%)	(20.46%)	(15.60%)	(9.10%)	(5.27%)	(3.10%)	(100%)
2019	10	348	7,524	10,869	7,813	6,056	3,654	1,885	1,098	39,257
	(0.03%)	(0.89%)	(19.17%)	(27.69%)	(19.90%)	(15.43%)	(9.31%)	(4.80%)	(2.80%)	(100%)
계	66	1,741	61,135	113,119	82,920	55,763	30,705	18,656	8,809	372,914
	(0.02%)	(0.47%)	(16.39%)	(30.33%)	(22.24%)	(14.95%)	(8.23%)	(5.0%)	(2.36%)	(100%)

[표 4-6]은 세대주 이동과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연령에 따른 이동 사례를 나타낸다. [표 4-6]에 의하면 전체 연령 중 30대의 이동 사례가 가장 높은 28.1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20대 40대의 순으로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경우 일산동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는 각 구가 유사하나 40대의 경우 일산서구의 사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덕양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50대와 60대의 전입사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6] 고양시 연령별 전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대 미만	4,988	(0.89%)	2,277	(0.93%)	1,361	(0.79%)	1,350	(0.95%)
10대	13,023	(2.33%)	5,469	(2.24%)	3,943	(2.28%)	3,611	(2.55%)
20대	109,121	(19.53%)	44,781	(18.33%)	38,617	(22.34%)	25,723	(18.16%)
30대	157,365	(28.16%)	68,925	(28.21%)	49,253	(28.50%)	39,187	(27.67%)
40대	108,305	(19.38%)	45,406	(18.58%)	33,530	(19.40%)	29,369	(20.74%)
50대	75,008	(13.42%)	35,080	(14.36%)	21,554	(12.47%)	18,374	(12.97%)
60대	44,776	(8.01%)	21,670	(8.87%)	11,878	(6.87%)	11,228	(7.93%)
70대	29,639	(5.30%)	13,448	(5.50%)	7,940	(4.59%)	8,251	(5.83%)
80대 이상	16,594	(2.97%)	7,308	(2.99%)	4,764	(2.76%)	4,522	(3.19%)
계	558,819	(100%)	244,364	(100%)	172,840	(100%)	141,615	(100%)

주: 하나의 사례에 이동자가 다수인 경우 고연령자의 연령에 따름

아래의 [표 4-7]은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0대 미만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기는 하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0대의 경우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2010년 20%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10% 후반대로 감소하였고 2017년 다시 2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30대의 경우 2011년까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20% 중 후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40대의 경우 10% 후반 수준에서 2014년(2012년 제외)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60대의 경우 7% 후반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 약 8.9% 수준까지 비중이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의 경우 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2.1% 수준에서 2018년 3.7%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표 4-7]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715	1,555	11,953	18,591	11,688	6,737	4,254	2,897	1,264	59,654
	(1.20%)	(2.61%)	(20.04%)	(31.16%)	(19.59%)	(11.29%)	(7.13%)	(4.86%)	(2.12%)	(100%)
2011	639	1,470	11,041	17,723	11,686	6,977	4,217	2,882	1,363	57,998
	(1.10%)	(2.53%)	(19.04%)	(30.56%)	(20.15%)	(12.03%)	(7.27%)	(4.97%)	(2.35%)	(100%)
2012	575	1,413	10,303	16,234	10,863	7,039	3,808	2,739	1,432	54,406
	(1.06%)	(2.60%)	(18.94%)	(29.84%)	(19.97%)	(12.94%)	(7.0%)	(5.03%)	(2.63%)	(100%)
2013	501	1,302	9,655	16,661	11,264	7,496	4,302	3,132	1,571	55,884
	(0.90%)	(2.33%)	(17.28%)	(29.81%)	(20.16%)	(13.41%)	(7.70%)	(5.60%)	(2.81%)	(100%)
2014	503	1,253	9,691	16,133	11,230	7,561	4,271	3,070	1,577	55,289
	(0.91%)	(2.27%)	(17.53%)	(29.18%)	(20.31%)	(13.68%)	(7.72%)	(5.55%)	(2.85%)	(100%)
2015	478	1,320	10,513	15,961	11,618	8,537	5,051	3,418	1,915	58,811
	(0.81%)	(2.24%)	(17.88%)	(27.14%)	(19.75%)	(14.52%)	(8.59%)	(5.81%)	(3.26%)	(100%)
2016	440	1,166	10,876	14,552	10,381	7,841	4,722	3,073	1,784	54,835
	(0.80%)	(2.13%)	(19.83%)	(26.54%)	(18.93%)	(14.30%)	(8.61%)	(5.60%)	(3.25%)	(100%)
2017	407	1,142	10,811	12,911	9,409	6,945	4,191	2,603	1,729	50,148
	(0.81%)	(2.28%)	(21.56%)	(25.75%)	(18.76%)	(13.85%)	(8.36%)	(5.19%)	(3.45%)	(100%)
2018	378	1,121	11,059	13,156	9,527	7,353	4,619	2,844	1,915	51,972
	(0.73%)	(2.16%)	(21.28%)	(25.31%)	(18.33%)	(14.15%)	(8.89%)	(5.47%)	(3.68%)	(100%)
2019	352	1,281	13,219	15,443	10,639	8,522	5,341	2,981	2,044	59,822
	(0.59%)	(2.14%)	(22.10%)	(25.81%)	(17.78%)	(14.25%)	(8.93%)	(4.98%)	(3.42%)	(100%)
계	4,988	13,023	109,121	157,365	108,305	75,008	44,776	29,639	16,594	558,819
	(0.89%)	(2.33%)	(19.53%)	(28.16%)	(19.38%)	(13.42%)	(8.01%)	(5.30%)	(2.97%)	(100%)

2) 성별 전입사례 현황

성별의 경우 세대주 전입사례 기준 남성의 비중이 66%로 여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각 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8] 고양시 성별 전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고양시	244,718	(65.62%)	128,196	(34.38%)	372,914	(100%)
덕양구	110,961	(67.50%)	53,437	(32.50%)	164,398	(100%)
일산동구	73,515	(62.70%)	43,735	(37.30%)	117,250	(100%)
일산서구	60,242	(66.01%)	31,024	(33.99%)	91,266	(100%)
구분	남성		여성		계	
10대 미만	31	(46.97%)	35	(53.03%)	66	(100%)
10대	892	(51.23%)	849	(48.77%)	1,741	(100%)
20대	35,233	(57.63%)	25,902	(42.37%)	61,135	(100%)
30대	81,813	(72.32%)	31,306	(27.68%)	113,119	(100%)
40대	56,230	(67.81%)	26,690	(32.19%)	82,920	(100%)
50대	36,279	(65.06%)	19,484	(34.94%)	55,763	(100%)
60대	19,059	(62.07%)	11,646	(37.93%)	30,705	(100%)
70대	10,744	(57.59%)	7,912	(42.41%)	18,656	(100%)
80대 이상	4,437	(50.37%)	4,372	(49.63%)	8,809	(100%)
계	244,718	(65.62%)	128,196	(34.38%)	372,914	(100%)

연도별 전입사례 현황 역시 남성의 비율이 63~66% 수준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 기준 20대 미만에서는 남녀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다시 남녀의 비율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표 4-9] 고양시 연도별 성별 전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2010	27,217	(66.08%)	13,974	(33.92%)	41,191	(100%)
2011	26,598	(66.46%)	13,424	(33.54%)	40,022	(100%)
2012	24,497	(66.89%)	12,127	(33.11%)	36,624	(100%)
2013	25,597	(66.67%)	12,798	(33.33%)	38,395	(100%)
2014	24,967	(66.72%)	12,454	(33.28%)	37,421	(100%)
2015	25,931	(65.58%)	13,608	(34.42%)	39,539	(100%)
2016	23,110	(65.26%)	12,304	(34.74%)	35,414	(100%)
2017	20,469	(64.42%)	11,305	(35.58%)	31,774	(100%)
2018	21,229	(63.79%)	12,048	(36.21%)	33,277	(100%)
2019	25,103	(63.95%)	14,154	(36.05%)	39,257	(100%)
계	244,718	(65.62%)	128,196	(34.38%)	372,914	(100%)

3) 가족관계별 전입사례 현황

[표 4-10]은 고양시 전입사례의 가족 관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는 세대주 전입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사례이며 ‘세대주’는 세대주가 같이 이동한 경우의 사례이다.

[표 4-10] 배우자, 자녀, 부모 전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총 전입사례	558,819	(100%)	372,914	(100%)
배우자 전입	164,449	(29.43%)	105,138	(28.19%)
자녀 전입	163,706	(29.29%)	105,942	(28.41%)
부모 전입	38,355	(6.86%)	10,882	(2.92%)

먼저 배우자의 경우 ‘전체’에서는 약 29%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이동하였으며 세대주와 같이 이동한 경우는 약 28%이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의 경우 ‘전체’는 29% 세대주 이동의 경우 2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경우 전체의 경우 6.86% 그리고 세대주 이동의 경우 2.92%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경

우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하는 비중이 아닌 고양시 전입사례에서 동 가족관계 이동이 나타나는 비중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4-11]은 고양시 전입사례의 가족구성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1] 전입 가족 구성별 빈도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총 전입사례	558,819	(100%)	372,914	(100%)
배우자, 자녀, 부모(o)	3,871	(0.69%)	3,744	(1.00%)
배우자, 자녀(o)	76,445	(13.68%)	69,184	(18.55%)
배우자, 부모(o)	1,107	(0.20%)	763	(0.20%)
자녀, 부모(o)	1,272	(0.23%)	1,103	(0.30%)

먼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모두 전입한 경우는 전체 전입사례의 0.7%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세대주가 전입한 경우 역시 1% 수준에 불과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입한 경우는 ‘전체’에서 약 13.7% 수준이며 세대주가 같이 이동한 경우는 18.6% 수준이다. 한편 배우자와 부모가 이동한 경우와 자녀와 부모만 이동한 경우는 0.2% 수준으로, 세대주 이동의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이동한 경우 0.3%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동 수치는 고양시 전입사례 중에서 가족과 같이 이동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서 전입자에 포함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고양시 전출사례 현황

10년간 고양시 전출사례는 51만 923건으로 이 중 1인 전출사례가 가장 많은 약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반 이동 가족 수와 비중은 반비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자 전체사례는 덕양구가 21만 1,46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산동구 15만 9,554건 일산서구 13만 9,900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고양시 이동자수별 전출사례

(단위: 건, %)

이동자 수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전출사례	비율	전출사례	비율	전출사례	비율	전출사례	비율
1명	361,839	(70.82%)	151,299	(71.55%)	116,256	(72.86%)	94,284	(67.39%)
2명	61,393	(12.02%)	25,511	(12.06%)	18,727	(11.74%)	17,155	(12.26%)
3명	44,251	(8.66%)	17,764	(8.40%)	12,567	(7.88%)	13,920	(9.95%)
4명	35,210	(6.89%)	13,628	(6.44%)	9,679	(6.07%)	11,903	(8.51%)
5명	6,855	(1.34%)	2,705	(1.28%)	1,923	(1.21%)	2,227	(1.59%)
6명	1,115	(0.22%)	460	(0.22%)	328	(0.21%)	327	(0.23%)
7명	192	(0.04%)	73	(0.03%)	56	(0.04%)	63	(0.05%)
8명	45	(0.01%)	22	(0.01%)	9	(0.01%)	14	(0.01%)
9명	18	(0.00%)	4	(0.00%)	8	(0.01%)	6	(0.00%)
10명	5	(0.00%)	3	(0.00%)	1	(0.00%)	1	(0.00%)
계	510,923	(100%)	211,469	(100%)	159,554	(100%)	139,900	(100%)

아래의 [표 4-13]은 고양시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3] 고양시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수

(단위: 건, 명)

이동자 수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사례	이동자 수	사례	이동자 수	사례	이동자 수	사례	이동자 수
1명	361,839	361,839	151,299	151,299	116,256	116,256	94,284	94,284
2명	61,393	122,786	25,511	51,022	18,727	37,454	17,155	34,310
3명	44,251	132,753	17,764	53,292	12,567	37,701	13,920	41,760
4명	35,210	140,840	13,628	54,512	9,679	38,716	11,903	47,612
5명	6,855	34,275	2,705	13,525	1,923	9,615	2,227	11,135
6명	1,115	6,690	460	2,760	328	1,968	327	1,962
7명	192	1,344	73	511	56	392	63	441
8명	45	360	22	176	9	72	14	112
9명	18	162	4	36	8	72	6	54
10명	5	50	3	30	1	10	1	10
계	510,923	801,099	211,469	327,163	159,554	242,256	139,900	231,680

고양시 10년간 전출인구는 80만 1,099명으로 덕양구 32만 7,163명 일산동구 24만 2,256명 일산서구 23만 1,680명으로 덕양구가 전체 전출사례의 약 41.3% 그리고 전입인구의 40.8%로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4]는 연도별 전출사례 수와 전출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10년간 고양시 전출 사례는 51만 923건으로 연도별 등락이 있으나 2013년 이후 5만 건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4만 9천 건 수준에서 진동을 거듭하고 있다. 구별 전출사례는 덕양구가 약 21만 1,469건(41.4%)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일산동구(31.2%) 15만 9,554건 일산서구(27%) 13만 9,900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 인구 수는 덕양구가 32만 7천여 명 수준으로 사례수와 이동자 수가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출인구 수는 2010년 9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4] 고양시 연도별 구별 전출사례와 전출인구

(단위: 건, 명)

구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사례 수	0동인구수	사례 수	0동인구수	사례 수	0동인구수	사례 수	0동인구수
2010	58,107	97,319	24,344	39,598	17,583	28,357	16,180	29,364
	(100%)	(100%)	(41.90%)	(40.69%)	(30.26%)	(29.14%)	(27.85%)	(30.17%)
2011	54,233	89,944	22,241	36,381	17,365	27,990	14,627	25,573
	(100%)	(100%)	(41.01%)	(40.45%)	(32.02%)	(31.12%)	(26.97%)	(28.43%)
2012	51,418	84,067	20,640	33,234	16,540	25,899	14,238	24,934
	(100%)	(100%)	(40.14%)	(39.53%)	(32.17%)	(30.81%)	(27.69%)	(29.66%)
2013	47,932	76,276	19,278	30,255	15,580	24,162	13,074	21,859
	(100%)	(100%)	(40.22%)	(39.67%)	(32.50%)	(31.68%)	(27.28%)	(28.66%)
2014	49,228	78,193	19,770	30,537	15,657	24,339	13,801	23,317
	(100%)	(100%)	(40.16%)	(39.05%)	(31.81%)	(31.13%)	(28.03%)	(29.82%)
2015	49,693	78,264	20,464	31,474	15,397	23,723	13,832	23,067
	(100%)	(100%)	(41.18%)	(40.22%)	(30.98%)	(30.31%)	(27.83%)	(29.47%)
2016	49,384	75,749	20,931	32,090	14,867	21,902	13,586	21,757
	(100%)	(100%)	(42.38%)	(42.36%)	(30.10%)	(28.91%)	(27.51%)	(28.72%)
2017	49,687	74,794	21,145	31,733	15,258	22,159	13,284	20,902
	(100%)	(100%)	(42.56%)	(42.43%)	(30.71%)	(29.63%)	(26.74%)	(27.95%)
2018	51,627	76,967	21,713	32,089	15,951	22,939	13,963	21,939
	(100%)	(100%)	(42.06%)	(41.69%)	(30.90%)	(29.8%)	(27.05%)	(28.5%)
2019	49,614	69,526	20,943	29,772	15,356	20,786	13,315	18,968
	(100%)	(100%)	(42.21%)	(42.82%)	(30.95%)	(29.9%)	(26.84%)	(27.28%)
계	510,923	801,099	211,469	327,163	159,554	242,256	139,900	231,680
	(100%)	(100%)	(41.39%)	(40.84%)	(31.23%)	(30.24%)	(27.38%)	(28.92%)

4. 연령별, 성별, 가족관계별 전출사례 현황

1) 연령별 전출사례 현황

전입사유의 경우 세대주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대주와 같이 이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전출사유는 따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전입한 지역에서 작성한 전입사유를 근거로 이전 지역의 전출사유를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 사유를 중심으로 볼 때 세대주와 같이 이동하는 경우와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사안에 따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4-15]는 세대주가 이동한 경우의 연령별 전출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51만 923건의 사례 중 세대주가 이동한 사례는 34만 1,915건 67% 수준이다. 전출 건수는 30대와 40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20대의 경우 역시 18.3%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경향은 고양시 행정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전출사례는 일산동구에서 다소 높고 10대와 70대의 전출은 일산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5] 고양시 연령별 전출 현황(세대주 이동)

(단위: 건, %)

연령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대 미만	72	(0.02%)	30	(0.02%)	21	(0.02%)	21	(0.02%)
10대	4,834	(1.41%)	1,798	(1.28%)	1,458	(1.38%)	1,578	(1.65%)
20대	62,526	(18.29%)	24,729	(17.60%)	20,678	(19.52%)	17,119	(17.93%)
30대	92,576	(27.08%)	38,772	(27.59%)	29,856	(28.19%)	23,948	(25.08%)
40대	77,794	(22.75%)	30,822	(21.93%)	23,823	(22.49%)	23,149	(24.24%)
50대	55,386	(16.20%)	22,893	(16.29%)	16,602	(15.68%)	15,891	(16.64%)
60대	26,504	(7.75%)	12,077	(8.59%)	7,473	(7.06%)	6,954	(7.28%)
70대	15,254	(4.46%)	6,543	(4.66%)	4,073	(3.85%)	4,638	(4.86%)
80대 이상	6,969	(2.04%)	2,863	(2.04%)	1,924	(1.82%)	2,182	(2.29%)
계(A)	341,915	(100%)	140,527	(100%)	105,908	(100%)	95,480	(100%)
세대주 미이동(B)	169,008		70,942		53,646		44,420	
총계(A+B)	510,923		211,469		159,554		139,900	

아래의 [표 4-16]은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0대 미만의 경우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전체 전출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적기는 하나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대의 경우 2017년 이전 10% 중·후반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 20%를 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는 오히려 전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0대는 20% 중반수준에서 2018년 이후 10% 후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50대는 2010년 이후 10%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6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6]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세대주 이동)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2010	4	431	5,899	12,053	10,255	5,924	2,957	1,866	719	40,108
	(0.01%)	(1.07%)	(14.71%)	(30.05%)	(25.57%)	(14.77%)	(7.37%)	(4.65%)	(1.79%)	(100%)
2011	6	438	5,402	10,982	9,167	5,610	2,689	1,782	700	36,776
	(0.02%)	(1.19%)	(14.69%)	(29.86%)	(24.93%)	(15.25%)	(7.31%)	(4.85%)	(1.90%)	(100%)
2012	11	485	5,159	10,088	8,524	5,629	2,404	1,553	628	34,481
	(0.03%)	(1.41%)	(14.96%)	(29.26%)	(24.72%)	(16.32%)	(6.97%)	(4.50%)	(1.82%)	(100%)
2013	10	397	4,863	9,056	7,689	5,242	2,367	1,578	656	31,858
	(0.03%)	(1.25%)	(15.26%)	(28.43%)	(24.14%)	(16.45%)	(7.43%)	(4.95%)	(2.06%)	(100%)
2014	2	443	5,341	9,010	7,976	5,453	2,416	1,481	694	32,816
	(0.01%)	(1.35%)	(16.28%)	(27.46%)	(24.31%)	(16.62%)	(7.36%)	(4.51%)	(2.11%)	(100%)
2015	12	415	5,610	8,471	7,658	5,892	2,699	1,526	708	32,991
	(0.04%)	(1.26%)	(17.0%)	(25.68%)	(23.21%)	(17.86%)	(8.18%)	(4.63%)	(2.15%)	(100%)
2016	4	478	6,174	8,347	7,183	5,557	2,661	1,523	703	32,630
	(0.01%)	(1.46%)	(18.92%)	(25.58%)	(22.01%)	(17.03%)	(8.16%)	(4.67%)	(2.15%)	(100%)
2017	8	535	7,186	8,548	6,766	5,493	2,711	1,403	708	33,358
	(0.02%)	(1.60%)	(21.54%)	(25.63%)	(20.28%)	(16.47%)	(8.13%)	(4.21%)	(2.12%)	(100%)
2018	10	560	8,099	8,544	6,675	5,575	2,919	1,376	784	34,542
	(0.03%)	(1.62%)	(23.45%)	(24.74%)	(19.32%)	(16.14%)	(8.45%)	(3.98%)	(2.27%)	(100%)
2019	5	652	8,793	7,477	5,901	5,011	2,681	1,166	669	32,355
	(0.02%)	(2.02%)	(27.18%)	(23.11%)	(18.24%)	(15.49%)	(8.29%)	(3.60%)	(2.07%)	(100%)
계	72	4,834	62,526	92,576	77,794	55,386	26,504	15,254	6,969	341,915
	(0.02%)	(1.41%)	(18.29%)	(27.08%)	(22.75%)	(16.20%)	(7.75%)	(4.46%)	(2.04%)	(100%)

[표 4-17]은 세대주 이동과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연령에 따른 이동 사례를 나타낸다. [표 4-17]에 의하면 전체 연령 중 30대의 이동 사례가 가장 높은 2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40대 20대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일산동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50대 그리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전출사례는 일산서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덕양구의 경우 60대의 전출사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17] 고양시 연령별 전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대 미만	4,615	(0.90%)	2,153	(1.02%)	1,322	(0.83%)	1,140	(0.81%)
10대	14,613	(2.86%)	5,679	(2.69%)	4,425	(2.77%)	4,509	(3.22%)
20대	102,795	(20.12%)	41,413	(19.58%)	34,499	(21.62%)	26,883	(19.22%)
30대	135,483	(26.52%)	56,586	(26.76%)	44,132	(27.66%)	34,765	(24.85%)
40대	103,772	(20.31%)	41,241	(19.50%)	32,044	(20.08%)	30,487	(21.79%)
50대	73,494	(14.38%)	30,876	(14.60%)	22,011	(13.80%)	20,607	(14.73%)
60대	38,973	(7.63%)	17,705	(8.37%)	10,979	(6.88%)	10,289	(7.35%)
70대	24,055	(4.71%)	10,309	(4.87%)	6,484	(4.06%)	7,262	(5.19%)
80대 이상	13,123	(2.57%)	5,507	(2.60%)	3,658	(2.29%)	3,958	(2.83%)
계	510,923	(100%)	211,469	(100%)	159,554	(100%)	139,900	(100%)

주: 하나의 사례에 이동자가 다수인 경우 고연령자의 연령에 따름

[표 4-18]은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0대 미만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기는 하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2012년 제외)에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0대의 경우 등락이 있으나 2%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2015년까지는 10% 후반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20% 수준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대의 경우 2010년대 초반 20% 후반 수준에서 2010년대 후반 2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40대의 경우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뚜렷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0대의 경우 2010년 12.9% 수준에서 2015년 15.5%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등락이 있으나 6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중 후반 이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70대의 경우 이와 달리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8]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2010	703	1,628	10,405	16,736	12,807	7,506	4,197	2,855	1,270	58,107
	(1.21%)	(2.80%)	(17.91%)	(28.80%)	(22.04%)	(12.92%)	(7.22%)	(4.91%)	(2.19%)	(100%)
2011	538	1,637	9,586	15,657	11,774	7,288	3,865	2,639	1,249	54,233
	(0.99%)	(3.02%)	(17.68%)	(28.87%)	(21.71%)	(13.44%)	(7.13%)	(4.87%)	(2.30%)	(100%)
2012	567	1,596	9,167	14,649	11,035	7,252	3,539	2,437	1,176	51,418
	(1.10%)	(3.10%)	(17.83%)	(28.49%)	(21.46%)	(14.10%)	(6.88%)	(4.74%)	(2.29%)	(100%)
2013	462	1,412	8,561	13,356	10,219	6,795	3,434	2,509	1,184	47,932
	(0.96%)	(2.95%)	(17.86%)	(27.86%)	(21.32%)	(14.18%)	(7.16%)	(5.23%)	(2.47%)	(100%)
2014	435	1,418	9,140	13,287	10,494	7,254	3,578	2,361	1,261	49,228
	(0.88%)	(2.88%)	(18.57%)	(26.99%)	(21.32%)	(14.74%)	(7.27%)	(4.80%)	(2.56%)	(100%)
2015	424	1,366	9,516	12,684	10,407	7,712	3,872	2,376	1,336	49,693
	(0.85%)	(2.75%)	(19.15%)	(25.52%)	(20.94%)	(15.52%)	(7.79%)	(4.78%)	(2.69%)	(100%)
2016	398	1,375	9,931	12,554	9,872	7,514	3,996	2,400	1,344	49,384
	(0.81%)	(2.78%)	(20.11%)	(25.42%)	(19.99%)	(15.22%)	(8.09%)	(4.86%)	(2.72%)	(100%)
2017	400	1,330	11,177	12,474	9,269	7,399	3,981	2,231	1,426	49,687
	(0.81%)	(2.68%)	(22.49%)	(25.11%)	(18.65%)	(14.89%)	(8.01%)	(4.49%)	(2.87%)	(100%)
2018	356	1,380	12,330	12,628	9,324	7,612	4,329	2,193	1,475	51,627
	(0.69%)	(2.67%)	(23.88%)	(24.46%)	(18.06%)	(14.74%)	(8.39%)	(4.25%)	(2.86%)	(100%)
2019	332	1,471	12,982	11,458	8,571	7,162	4,182	2,054	1,402	49,614
	(0.67%)	(2.96%)	(26.17%)	(23.09%)	(17.28%)	(14.44%)	(8.43%)	(4.14%)	(2.83%)	(100%)
계	4,615	14,613	102,795	135,483	103,772	73,494	38,973	24,055	13,123	510,923
	(0.90%)	(2.86%)	(20.12%)	(26.52%)	(20.31%)	(14.38%)	(7.63%)	(4.71%)	(2.57%)	(100%)

2) 성별 전출사례 현황

성별의 경우 세대주 전출사례 기준 남성의 비중이 65.6%로 여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 기준 20대 미만에서는 남녀의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 이상 70대 미만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다시 유사해지고 있으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9] 고양시 성별 전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고양시	224,296	(65.60%)	117,619	(34.40%)	341,915	(100%)
덕양구	93,732	(66.70%)	46,795	(33.30%)	140,527	(100%)
일산동구	67,653	(63.88%)	38,255	(36.12%)	105,908	(100%)
일산서구	62,911	(65.89%)	32,569	(34.11%)	95,480	(100%)
구분	남성		여성		계	
10대 미만	36	(50.00%)	36	(50.00%)	72	(100%)
10대	2,498	(51.68%)	2,336	(48.32%)	4,834	(100%)
20대	37,421	(59.85%)	25,105	(40.15%)	62,526	(100%)
30대	65,348	(70.59%)	27,228	(29.41%)	92,576	(100%)
40대	53,081	(68.23%)	24,713	(31.77%)	77,794	(100%)
50대	37,241	(67.24%)	18,145	(32.76%)	55,386	(100%)
60대	16,648	(62.81%)	9,856	(37.19%)	26,504	(100%)
70대	8,510	(55.79%)	6,744	(44.21%)	15,254	(100%)
80대 이상	3,513	(50.41%)	3,456	(49.59%)	6,969	(100%)
계	224,296	(65.60%)	117,619	(34.40%)	341,915	(100%)

[표 4-20] 고양시 연도별 성별 전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0	26,788	(66.79%)	13,320	(33.21%)	40,108	(100%)
2011	24,354	(66.22%)	12,422	(33.78%)	36,776	(100%)
2012	22,954	(66.57%)	11,527	(33.43%)	34,481	(100%)
2013	21,072	(66.14%)	10,786	(33.86%)	31,858	(100%)
2014	21,707	(66.15%)	11,109	(33.85%)	32,816	(100%)
2015	21,859	(66.26%)	11,132	(33.74%)	32,991	(100%)
2016	21,507	(65.91%)	11,123	(34.09%)	32,630	(100%)
2017	21,730	(65.14%)	11,628	(34.86%)	33,358	(100%)
2018	22,013	(63.73%)	12,529	(36.27%)	34,542	(100%)
2019	20,312	(62.78%)	12,043	(37.22%)	32,355	(100%)
계	224,296	(65.60%)	117,619	(34.40%)	341,915	(100%)

3) 가족관계별 전출사례 현황

[표 4-21]은 고양시 전출사례의 가족관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는 세대주 전출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사례이며 ‘세대주’는 세대주가 같이 이동한 경우의 사례이다.

[표 4-21] 배우자, 자녀, 부모 전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총 전출사례	510,923	(100%)	341,915	(100%)
배우자 전출	138,164	(27.04%)	88,435	(25.86%)
자녀 전출	147,674	(28.90%)	89,790	(26.26%)
부모 전출	27,916	(5.46%)	8,925	(2.61%)

먼저 배우자의 경우 ‘전체’에서는 27%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이동하였으며 세대주와 같이 이동한 경우는 25.9%이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의 경우 ‘전체’는 28.9% 세대주 이동의 경우 26.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경우 전체의 경우 5.46% 그리고 세대주 이동의 경우 2.61%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하는 비중이 아닌 고양시 전입사례에서 동 가족관계 이동이 나타나는 비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 4-22]는 고양시 전출사례의 가족구성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2] 전출 가족 구성별 빈도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총 전출사례	510,923	(100%)	341,915	(100%)
배우자, 자녀, 부모(o)	3,112	(0,61%)	3,017	(0,88%)
배우자, 자녀(o)	63,194	(12,37%)	57,639	(16,86%)
배우자, 부모(o)	957	(0,19%)	668	(0,20%)
자녀, 부모(o)	1,074	(0,21%)	944	(0,28%)

먼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모두 전출한 경우는 전체 전입사례의 0.6%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세대주가 전출한 경우 역시 0.9% 수준에 불과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출한 경우는 ‘전체’에서 약 12.3% 수준이며 세대주가 같이 이동한 경우는 16.8% 수준이다. 한편 배우자와 부모가 이동한 경우와 자녀와 부모만 이동한 경우는 0.2% 수준이며 세대주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같이 이동한 경우 0.2%,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이동한 경우는 0.28%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동 수치는 고양시 전출사례 중에서 같이 이동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서 전출자에 포함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1. 고양시 전입사례의 이동요인 분석

전입신고 자료 양식에 의하면 전입의 사유를 전입신고 자료 양식에 의하면 직업, 교육, 가족, 주거환경, 주택, 자연환경, 기타의 7개의 항목 중 주된 1가지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4-23]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전입사유¹⁾ (주된 1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	---

2010~ 2019년의 10년 동안 고양시에 전입한 사례는 총 55만 8,819건이며 전입자 사례에 따라 1개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 수가 전입사유의 분석대상이 된다. 물론 전입사유는 개인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식(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입사유서에 기재된 항목이 전입사유로 가장 선호되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¹⁾ 마이크로 데이터 인구이동 자료처리 기준에 의하면 자료입력의 표준화 및 현장점검 지침 등을 통해 데이터 체계화 및 전입신고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입신고서 접수 시 직업 등에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세대가 직업으로 기재한 경우 다른 사유를 해당 사유로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며 통근 편의 등을 위한 이동의 경우 주거환경으로 전입사유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 사유의 경우 원거리 이동의 경우 다른 주된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며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가 주택으로 기재한 경우 다른 사유를 해당 사유로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재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고양시 전입사유(전체, 구별)

(1) 고양시 전체 전입사유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고양시에 전입한 세대 전체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가족, 직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24]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고양시 전입사례의 전입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의 빈도와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4] 고양시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11,662	14,133	14,654	1,522	508	759	16,416	59,654
	(19.55%)	(23.69%)	(24.56%)	(2.55%)	(0.85%)	(1.27%)	(27.52%)	(100%)
2011	11,887	13,850	15,062	1,617	586	834	14,162	57,998
	(20.50%)	(23.88%)	(25.97%)	(2.79%)	(1.01%)	(1.44%)	(24.42%)	(100%)
2012	12,108	13,375	14,503	1,780	686	863	11,091	54,406
	(22.25%)	(24.58%)	(26.66%)	(3.27%)	(1.26%)	(1.59%)	(20.39%)	(100%)
2013	12,853	15,701	17,255	1,657	1,276	638	6,504	55,884
	(23.0%)	(28.10%)	(30.88%)	(2.97%)	(2.28%)	(1.14%)	(11.64%)	(100%)
2014	13,794	17,223	18,357	1,538	1,448	672	2,257	55,289
	(24.95%)	(31.15%)	(33.20%)	(2.78%)	(2.62%)	(1.22%)	(4.08%)	(100%)
2015	13,971	17,558	19,654	1,554	1,195	549	4,330	58,811
	(23.76%)	(29.85%)	(33.42%)	(2.64%)	(2.03%)	(0.93%)	(7.36%)	(100%)
2016	13,528	17,007	17,367	1,408	1,024	398	4,103	54,835
	(24.67%)	(31.01%)	(31.67%)	(2.57%)	(1.87%)	(0.73%)	(7.48%)	(100%)
2017	12,794	15,740	14,116	1,423	1,312	449	4,314	50,148
	(25.51%)	(31.39%)	(28.15%)	(2.84%)	(2.62%)	(0.90%)	(8.60%)	(100%)
2018	14,356	16,020	13,379	1,405	1,593	557	4,662	51,972
	(27.62%)	(30.82%)	(25.74%)	(2.70%)	(3.07%)	(1.07%)	(8.97%)	(100%)
2019	14,669	18,457	17,781	1,886	2,318	538	4,173	59,822
	(24.52%)	(30.85%)	(29.72%)	(3.15%)	(3.87%)	(0.90%)	(6.98%)	(100%)
계	131,622	159,064	162,128	15,790	11,946	6,257	72,012	558,819
	(23.55%)	(28.46%)	(29.01%)	(2.83%)	(2.14%)	(1.12%)	(12.89%)	(100%)

고양시에 전입한 이유는 연도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요인의 경우 2010년 20% 미만이었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가장 높은 27.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가족요인은 20% 초반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4년 이후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요인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주거환경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환경 요인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고양시 구별 전입사유

고양시 구별 전입사례의 주된 전입사유는 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고양시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5]는 구별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5] 고양시 구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고양시	131,622	159,064	162,128	15,790	11,946	6,257	72,012	558,819
	(23.55%)	(28.46%)	(29.01%)	(2.83%)	(2.14%)	(1.12%)	(12.89%)	(100%)
덕양구	50,012	69,649	80,505	6,684	4,693	2,572	30,249	244,364
	(20.47%)	(28.50%)	(32.94%)	(2.74%)	(1.92%)	(1.05%)	(12.38%)	(100%)
일산동구	50,256	44,507	40,096	4,918	4,333	2,303	26,427	172,840
	(29.08%)	(25.75%)	(23.20%)	(2.85%)	(2.51%)	(1.33%)	(15.29%)	(100%)
일산서구	31,354	44,908	41,527	4,188	2,920	1,382	15,336	141,615
	(22.14%)	(31.71%)	(29.32%)	(2.96%)	(2.06%)	(0.98%)	(10.83%)	(100%)

직업요인의 경우 일산동구에서 2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요인은 일산서구에서, 주택요인은 덕양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4-26]은 덕양구의 연도별 전입사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고양

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며 주택요인의 경우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26] 덕양구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860	6,242	7,614	536	155	276	6,320	25,003
	(15.44%)	(24.97%)	(30.45%)	(2.14%)	(0.62%)	(1.10%)	(25.28%)	(100%)
2011	3,835	5,502	6,708	551	173	308	4,998	22,075
	(17.37%)	(24.92%)	(30.39%)	(2.50%)	(0.78%)	(1.40%)	(22.64%)	(100%)
2012	3,867	5,428	7,023	632	218	329	4,903	22,400
	(17.26%)	(24.23%)	(31.35%)	(2.82%)	(0.97%)	(1.47%)	(21.89%)	(100%)
2013	4,724	6,618	8,496	644	407	228	2,913	24,030
	(19.66%)	(27.54%)	(35.36%)	(2.68%)	(1.69%)	(0.95%)	(12.12%)	(100%)
2014	5,572	7,536	9,073	689	563	318	1,054	24,805
	(22.46%)	(30.38%)	(36.58%)	(2.78%)	(2.27%)	(1.28%)	(4.25%)	(100%)
2015	5,881	8,156	10,121	682	491	223	1,776	27,330
	(21.52%)	(29.84%)	(37.03%)	(2.50%)	(1.80%)	(0.82%)	(6.50%)	(100%)
2016	5,384	7,533	7,898	630	395	170	1,914	23,924
	(22.50%)	(31.49%)	(33.01%)	(2.63%)	(1.65%)	(0.71%)	(8.0%)	(100%)
2017	5,209	6,991	6,693	655	552	185	2,130	22,415
	(23.24%)	(31.19%)	(29.86%)	(2.92%)	(2.46%)	(0.83%)	(9.50%)	(100%)
2018	5,849	7,062	6,588	641	722	282	2,268	23,412
	(24.98%)	(30.16%)	(28.14%)	(2.74%)	(3.08%)	(1.20%)	(9.69%)	(100%)
2019	5,831	8,581	10,291	1,024	1,017	253	1,973	28,970
	(20.13%)	(29.62%)	(35.52%)	(3.53%)	(3.51%)	(0.87%)	(6.81%)	(100%)
계	50,012	69,649	80,505	6,684	4,693	2,572	30,249	244,364
	(20.47%)	(28.50%)	(32.94%)	(2.74%)	(1.92%)	(1.05%)	(12.38%)	(100%)

일산동구의 경우 역시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요인은 2014년 이후 28~2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요인의 경우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7] 일산동구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236	3,291	3,393	441	184	240	7,387	19,172
	(22.09%)	(17.17%)	(17.70%)	(2.30%)	(0.96%)	(1.25%)	(38.53%)	(100%)
2011	4,772	4,021	4,402	577	232	308	5,793	20,105
	(23.74%)	(20.0%)	(21.90%)	(2.87%)	(1.15%)	(1.53%)	(28.81%)	(100%)
2012	5,217	4,007	3,605	604	297	345	4,026	18,101
	(28.82%)	(22.14%)	(19.92%)	(3.34%)	(1.64%)	(1.91%)	(22.24%)	(100%)
2013	5,322	4,679	3,594	573	578	284	2,221	17,251
	(30.85%)	(27.12%)	(20.83%)	(3.32%)	(3.35%)	(1.65%)	(12.87%)	(100%)
2014	5,151	4,970	4,499	444	514	233	573	16,384
	(31.44%)	(30.33%)	(27.46%)	(2.71%)	(3.14%)	(1.42%)	(3.50%)	(100%)
2015	5,073	4,780	4,802	485	431	212	1,178	16,961
	(29.91%)	(28.18%)	(28.31%)	(2.86%)	(2.54%)	(1.25%)	(6.95%)	(100%)
2016	5,084	4,916	4,694	473	406	149	1,357	17,079
	(29.77%)	(28.78%)	(27.48%)	(2.77%)	(2.38%)	(0.87%)	(7.95%)	(100%)
2017	4,664	4,361	4,131	422	446	156	1,241	15,421
	(30.24%)	(28.28%)	(26.79%)	(2.74%)	(2.89%)	(1.01%)	(8.05%)	(100%)
2018	5,286	4,696	3,723	462	571	192	1,308	16,238
	(32.55%)	(28.92%)	(22.93%)	(2.85%)	(3.52%)	(1.18%)	(8.06%)	(100%)
2019	5,451	4,786	3,253	437	674	184	1,343	16,128
	(33.80%)	(29.68%)	(20.17%)	(2.71%)	(4.18%)	(1.14%)	(8.33%)	(100%)
계	50,256	44,507	40,096	4,918	4,333	2,303	26,427	172,840
	(29.08%)	(25.75%)	(23.20%)	(2.85%)	(2.51%)	(1.33%)	(15.29%)	(100%)

일산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직업요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가족 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28] 일산서구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566	4,600	3,647	545	169	243	2,709	15,479
	(23.04%)	(29.72%)	(23.56%)	(3.52%)	(1.09%)	(1.57%)	(17.50%)	(100%)
2011	3,280	4,327	3,952	489	181	218	3,371	15,818
	(20.74%)	(27.35%)	(24.98%)	(3.09%)	(1.14%)	(1.38%)	(21.31%)	(100%)
2012	3,024	3,940	3,875	544	171	189	2,162	13,905
	(21.75%)	(28.34%)	(27.87%)	(3.91%)	(1.23%)	(1.36%)	(15.55%)	(100%)
2013	2,807	4,404	5,165	440	291	126	1,370	14,603
	(19.22%)	(30.16%)	(35.37%)	(3.01%)	(1.99%)	(0.86%)	(9.38%)	(100%)
2014	3,071	4,717	4,785	405	371	121	630	14,100
	(21.78%)	(33.45%)	(33.94%)	(2.87%)	(2.63%)	(0.86%)	(4.47%)	(100%)
2015	3,017	4,622	4,731	387	273	114	1,376	14,520
	(20.78%)	(31.83%)	(32.58%)	(2.67%)	(1.88%)	(0.79%)	(9.48%)	(100%)
2016	3,060	4,558	4,775	305	223	79	832	13,832
	(22.12%)	(32.95%)	(34.52%)	(2.21%)	(1.61%)	(0.57%)	(6.02%)	(100%)
2017	2,921	4,388	3,292	346	314	108	943	12,312
	(23.72%)	(35.64%)	(26.74%)	(2.81%)	(2.55%)	(0.88%)	(7.66%)	(100%)
2018	3,221	4,262	3,068	302	300	83	1,086	12,322
	(26.14%)	(34.59%)	(24.90%)	(2.45%)	(2.43%)	(0.67%)	(8.81%)	(100%)
2019	3,387	5,090	4,237	425	627	101	857	14,724
	(23.0%)	(34.57%)	(28.78%)	(2.89%)	(4.26%)	(0.69%)	(5.82%)	(100%)
계	31,354	44,908	41,527	4,188	2,920	1,382	15,336	141,615
	(22.14%)	(31.71%)	(29.32%)	(2.96%)	(2.06%)	(0.98%)	(10.83%)	(100%)

(3) 고양시 전입사례의 주요 전출지 분석

고양시 전입자의 전출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서 전출한 사례가 전체 전입사례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전출지의 순위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9]는 연도별 고양시 전입사례의 주요 전출지 20개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20개 지역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며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²⁾.

²⁾ 고양시 전입사례의 연도별 전출지 자료는 [부록 1-17] 참조

[표 4-29] 고양시 전입사태의 주요 전출지(상위 20개)

연번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전출지	연도											
1	경기도	파주시	5,536	5,576	5,497	5,954	5,596	5,900	5,669	5,063	5,093	6,095	55,979
2	서울특별시	은평구	4,494	4,051	4,217	4,877	5,283	5,697	4,985	4,560	4,895	5,922	48,98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2,283	2,276	1,907	1,947	2,045	2,164	2,109	1,731	1,809	2,413	20,684
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43	1,851	1,600	1,709	1,625	1,839	1,746	1,536	1,793	2,314	18,056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52	1,778	1,616	1,733	1,702	1,856	1,782	1,552	1,644	2,009	17,724
6	경기도	부천시	1,334	1,292	1,144	1,182	1,090	1,146	1,038	981	1,013	1,220	11,440
7	서울특별시	관악구	1,299	1,244	1,079	1,118	1,068	1,117	1,021	996	1,046	1,143	11,131
8	경기도	김포시	795	796	894	1,050	1,104	1,207	1,218	1,044	1,221	1,665	10,994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65	1,122	1,046	1,059	961	1,041	978	854	844	987	10,057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1,159	1,117	1,029	1,005	940	1,052	1,026	918	813	848	9,907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1,203	1,131	950	947	928	996	994	796	818	988	9,751
12	경기도	성남시	1,083	1,050	944	938	961	971	916	841	823	869	9,396
13	경기도	용인시	982	956	946	905	935	933	830	854	860	935	9,136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946	945	959	910	879	937	749	687	740	823	8,575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1,091	1,032	862	881	858	853	793	676	729	742	8,517
16	경기도	수원시	896	839	811	711	770	847	749	765	708	850	7,946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893	934	818	874	798	787	751	631	667	761	7,914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867	834	703	806	723	851	793	730	676	750	7,733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797	834	734	816	740	800	693	608	673	742	7,437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873	911	775	707	683	745	616	613	686	642	7,251

(단위: 건)

2) 고양시 연령별 전입사유

상기한 바와 같이 전입사유는 세대주가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같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분석과 세대주 이동 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 4-30] 연령별 전입사유(전체)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30	2,600	332	1,192	50	23	661	4,988
	(2.61%)	(52.13%)	(6.66%)	(23.90%)	(1.0%)	(0.46%)	(13.25%)	(100%)
10대	803	6,587	917	2,924	198	53	1,541	13,023
	(6.17%)	(50.58%)	(7.04%)	(22.45%)	(1.52%)	(0.41%)	(11.83%)	(100%)
20대	37,381	36,572	16,341	4,692	2,336	257	11,542	109,121
	(34.26%)	(33.52%)	(14.98%)	(4.30%)	(2.14%)	(0.24%)	(10.58%)	(100%)
30대	41,847	43,288	46,749	2,349	3,590	776	18,766	157,365
	(26.59%)	(27.51%)	(29.71%)	(1.49%)	(2.28%)	(0.49%)	(11.93%)	(100%)
40대	27,886	22,297	36,476	3,411	2,235	850	15,150	108,305
	(25.75%)	(20.59%)	(33.68%)	(3.15%)	(2.06%)	(0.78%)	(13.99%)	(100%)
50대	15,999	17,576	27,362	805	1,480	1,007	10,779	75,008
	(21.33%)	(23.43%)	(36.48%)	(1.07%)	(1.97%)	(1.34%)	(14.37%)	(100%)
60대	5,327	13,034	17,632	210	878	1,029	6,666	44,776
	(11.90%)	(29.11%)	(39.38%)	(0.47%)	(1.96%)	(2.30%)	(14.89%)	(100%)
70대	1,667	10,219	11,408	147	665	1,168	4,365	29,639
	(5.62%)	(34.48%)	(38.49%)	(0.50%)	(2.24%)	(3.94%)	(14.73%)	(100%)
80대 이상	582	6,891	4,911	60	514	1,094	2,542	16,594
	(3.51%)	(41.53%)	(29.60%)	(0.36%)	(3.10%)	(6.59%)	(15.32%)	(100%)
계	131,622	159,064	162,128	15,790	11,946	6,257	72,012	558,819
	(23.55%)	(28.46%)	(29.01%)	(2.83%)	(2.14%)	(1.12%)	(12.89%)	(100%)

고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장 주요한 전입사유는 주택요인이며 이어 가족, 직업 요인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대 미만의 경우 가족요인 이외에 교육요인이 23.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역시 가족요인에 이어 교육요인이 22.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대 이후에서는 교육요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60대 이후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34.3%로 가장 높고 이어 가족과 주택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주택요인(29.7%)에 이어 가족요인(27.5%), 직업요인(26.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중이 거의 유사하며, 40대의 경우 주택요인, 직업요인, 가족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는 가족 및 직업요인과 주택요인의 비중 격차가 높게 나타나며 60대의 경우 직업요인의 비중이 1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주택요인이 40%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70대의 경우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의 비중이 높고 특히 가족요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직업요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주택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요인의 경우 20대~ 40대의 연령층과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환경요인의 경우 50대 이상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4-31]은 세대주 전입사유의 연령별 전입사유를 분석한 것이다.

[표 4-31] 연령별 전입사유(세대주)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4	17	30	3	0	1	11	66
	(6.06%)	(25.76%)	(45.45%)	(4.55%)	(0.0%)	(1.52%)	(16.67%)	(100%)
10대	388	147	320	614	57	11	204	1,741
	(22.29%)	(8.44%)	(18.38%)	(35.27%)	(3.27%)	(0.63%)	(11.72%)	(100%)
20대	29,585	6,226	13,628	3,064	1,637	146	6,849	61,135
	(48.39%)	(10.18%)	(22.29%)	(5.01%)	(2.68%)	(0.24%)	(11.20%)	(100%)
30대	35,623	14,727	43,407	1,824	3,030	591	13,917	113,119
	(31.49%)	(13.02%)	(38.37%)	(1.61%)	(2.68%)	(0.52%)	(12.30%)	(100%)
40대	23,858	7,843	34,109	2,858	1,879	659	11,714	82,920
	(28.77%)	(9.46%)	(41.13%)	(3.45%)	(2.27%)	(0.79%)	(14.13%)	(100%)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50대	13,447	5,848	25,519	658	1,240	723	8,328	55,763
	(24.11%)	(10.49%)	(45.76%)	(1.18%)	(2.22%)	(1.30%)	(14.93%)	(100%)
60대	4,431	3,503	16,361	169	702	675	4,864	30,705
	(14.43%)	(11.41%)	(53.28%)	(0.55%)	(2.29%)	(2.20%)	(15.84%)	(100%)
70대	1,387	2,280	10,518	130	531	710	3,100	18,656
	(7.43%)	(12.22%)	(56.38%)	(0.70%)	(2.85%)	(3.81%)	(16.62%)	(100%)
80대	504	1,124	4,395	46	405	665	1,670	8,809
	(5.72%)	(12.76%)	(49.89%)	(0.52%)	(4.60%)	(7.55%)	(18.96%)	(100%)
계	109,227	41,715	148,287	9,366	9,481	4,181	50,657	372,914
	(29.29%)	(11.19%)	(39.76%)	(2.51%)	(2.54%)	(1.12%)	(13.58%)	(100%)

10대 미만의 경우 이동 사례는 매우 적으며 이동의 주된 이유는 주택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48%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어 주택과 가족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여전히 높기는 하나 20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주택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역시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직업요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특징을 보이며 6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50%를 넘어서고 직업요인이 1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고 직업요인은 10%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며 80대 이상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은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자연환경은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2]는 연령별 전입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연령의 첫 번째 행은 관측 도수를 나타내며 두 번째 행은 기대도수를 나타낸다.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value는 0.01 이하로 유의수준 0.01에서 연령에 따라 전입사유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주요 전입사유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표 4-32] 연령별 전입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30	2,600	332	1,192	50	23	661	4,988
	1,174.90	1,419.80	1,447.10	140.9	106.6	55.8	642.8	4,988.00
10대	803	6,587	917	2,924	198	53	1,541	13,023
	3,067.40	3,706.90	3,778.30	368	278.4	145.8	1,678.20	13,023.00
20대	37,381	36,572	16,341	4,692	2,336	257	11,542	109,121
	25,701.90	31,060.50	31,658.90	3,083.30	2,332.70	1,221.80	14,061.80	109,121.00
30대	41,847	43,288	46,749	2,349	3,590	776	18,766	157,365
	37,065.10	44,792.90	45,655.70	4,446.50	3,364.00	1,762.00	20,278.80	157,365.00
40대	27,886	22,297	36,476	3,411	2,235	850	15,150	108,305
	25,509.70	30,828.30	31,422.10	3,060.30	2,315.30	1,212.70	13,956.70	108,305.00
50대	15,999	17,576	27,362	805	1,480	1,007	10,779	75,008
	17,667.10	21,350.50	21,761.80	2,119.40	1,603.50	839.9	9,665.90	75,008.00
60대	5,327	13,034	17,632	210	878	1,029	6,666	44,776
	10,546.40	12,745.20	12,990.70	1,265.20	957.2	501.3	5,770.00	44,776.00
70대	1,667	10,219	11,408	147	665	1,168	4,365	29,639
	6,981.10	8,436.50	8,599.00	837.5	633.6	331.9	3,819.40	29,639.00
80대 이상	582	6,891	4,911	60	514	1,094	2,542	16,594
	3,908.50	4,723.40	4,814.40	468.9	354.7	185.8	2,138.40	16,594.00
계	131,622	159,064	162,128	15,790	11,946	6,257	72,012	558,819
	131,622.00	159,064.00	162,128.00	15,790.00	11,946.00	6,257.00	72,012.00	558,8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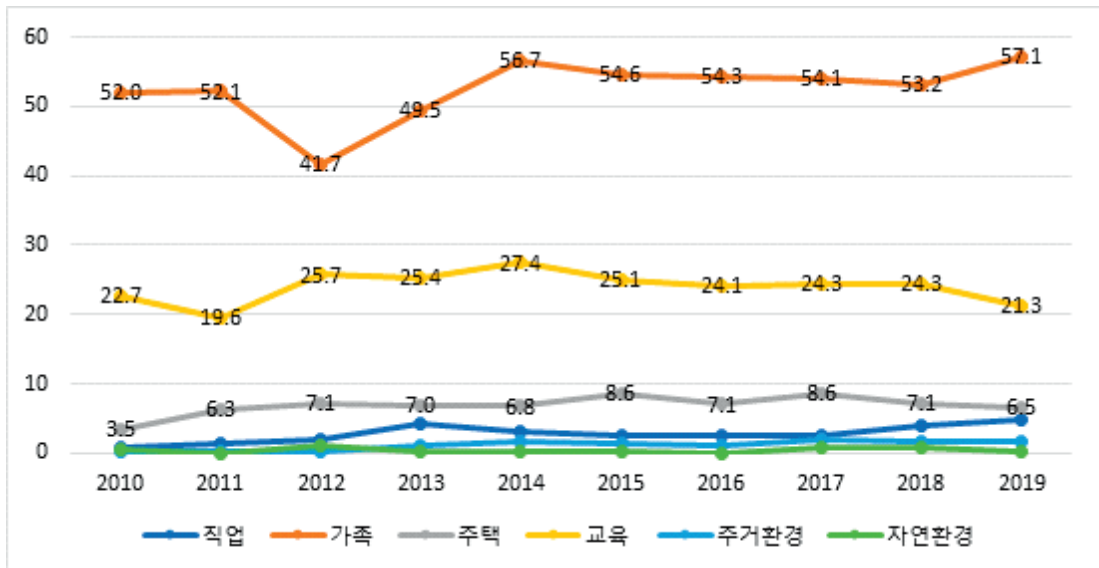
Pearson $\chi^2(48) = 8.2e+04$ Pr = 0.000

연령을 기준으로 연도별 전입사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대미만

[그림 4-1]은 10대 미만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교육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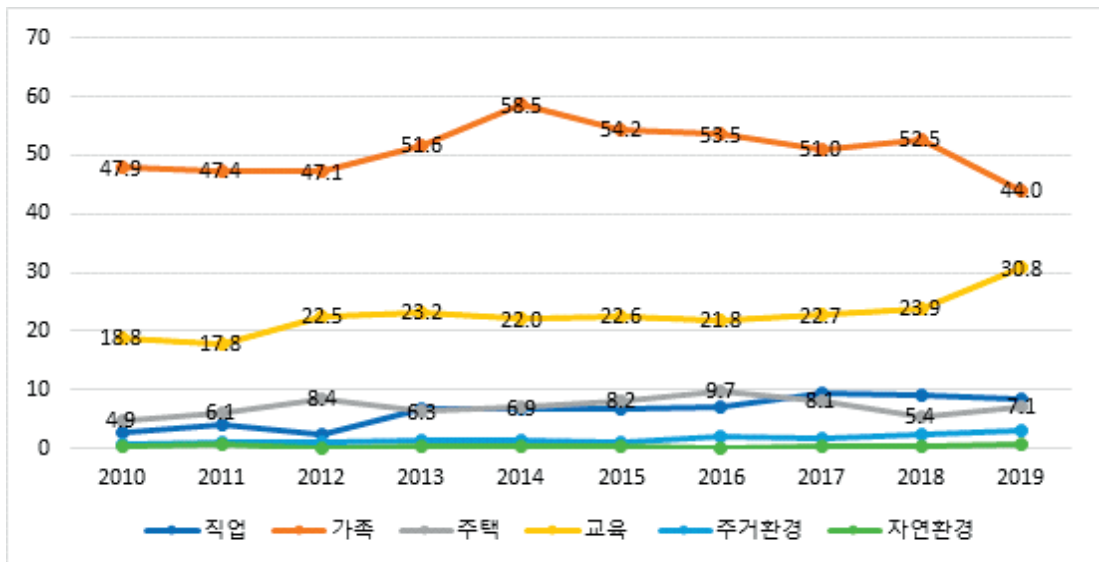
[그림 4-1] 10대 미만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2) 10대

[그림 4-2]는 1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교육요인이 주요한 이동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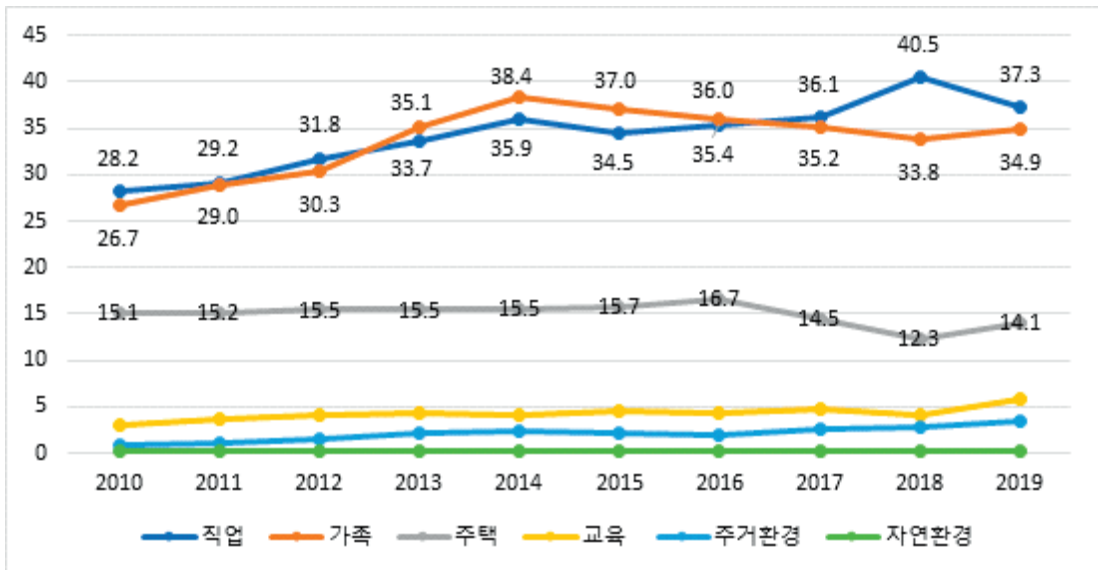
[그림 4-2] 1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3) 20대

[그림 4-3]은 2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요인의 경우 2014년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요인은 1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나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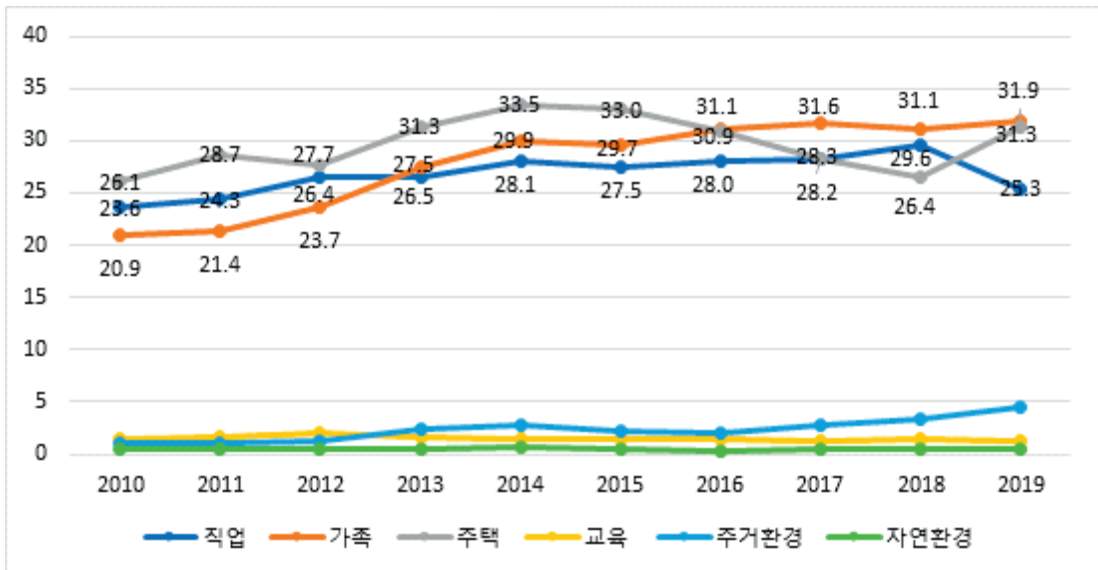
[그림 4-3] 2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4) 30대

[그림 4-4]는 3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30대의 경우 2016년 이후 가족요인이 가장 중요한 전입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에는 주택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직업과 주택 가족요인의 비중이 유사하며 직업요인이 가장 완만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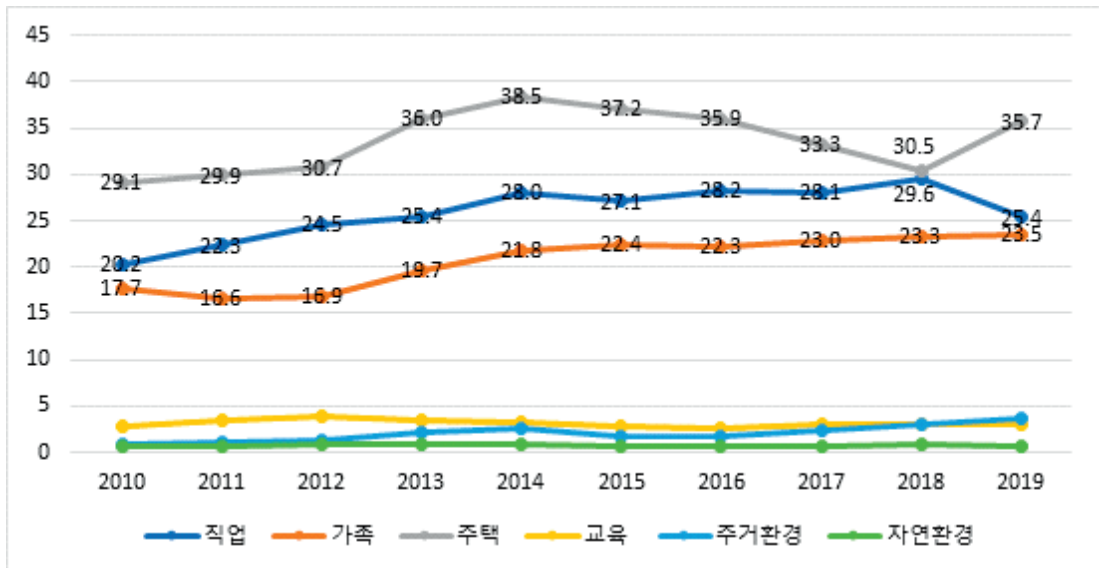
[그림 4-4] 3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5) 40대

[그림 4-5]는 4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점차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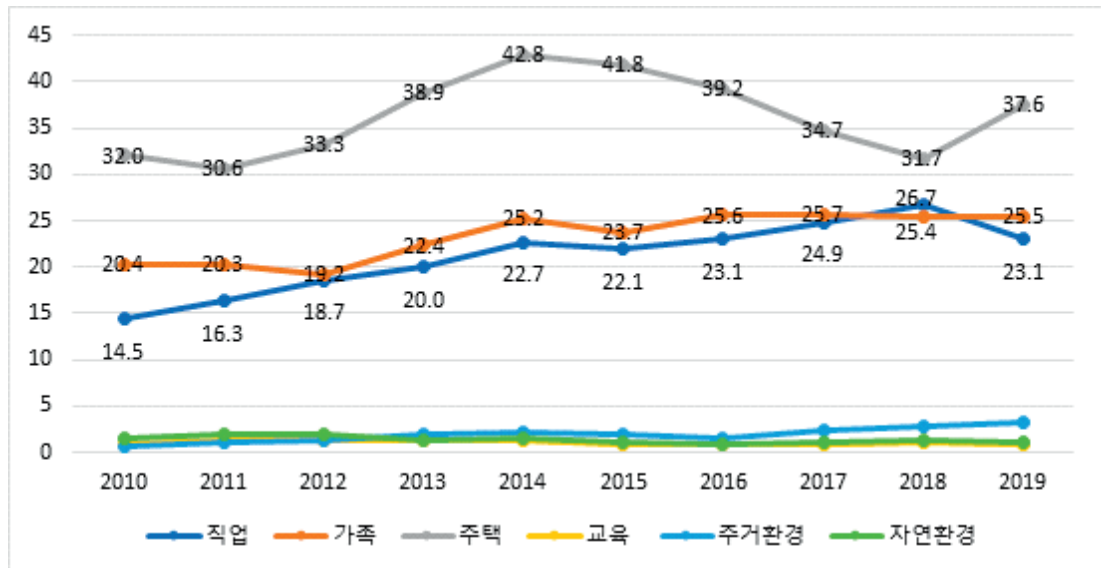
[그림 4-5] 4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6) 50대

[그림 4-6]은 5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으로 20~40대의 젊은 연령층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나타나고 있으나 그 형태는 역 U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주택요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과 직업요인은 약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주거환경 요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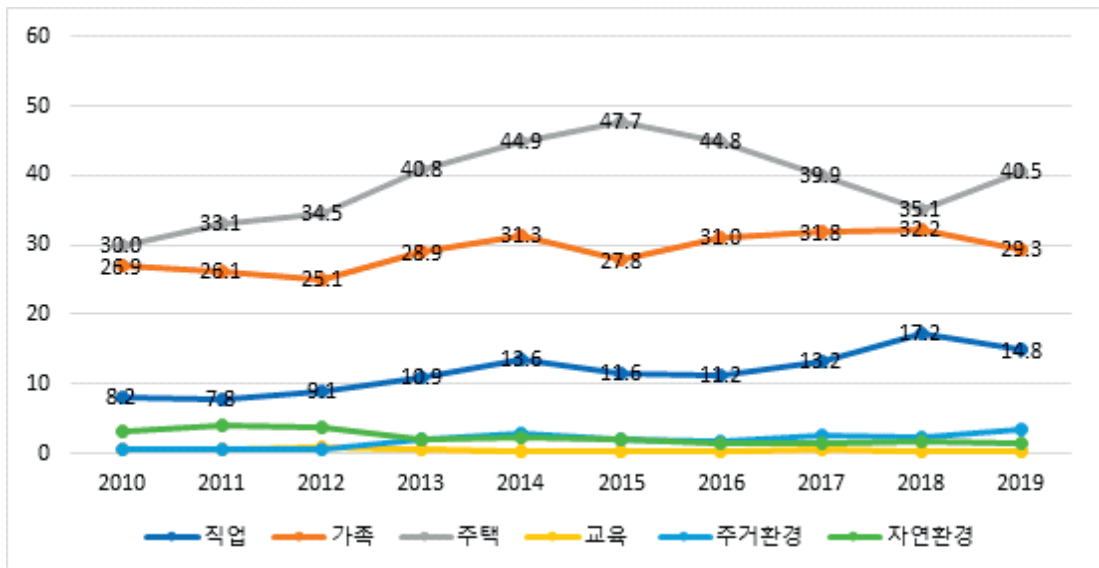
[그림 4-6] 5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7) 60대

[그림 4-7]은 6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으로 주택요인은 30대 ~50대와 유사하게 역 유(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요인은 2016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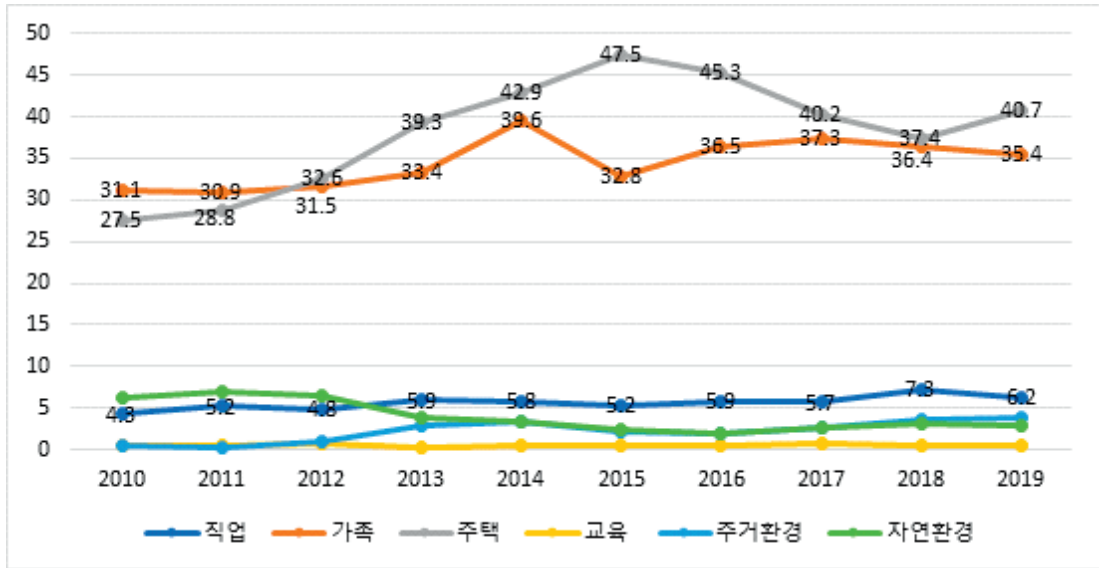
[그림 4-7] 6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8) 70대

[그림 4-8]은 70대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요인은 대략 5~6%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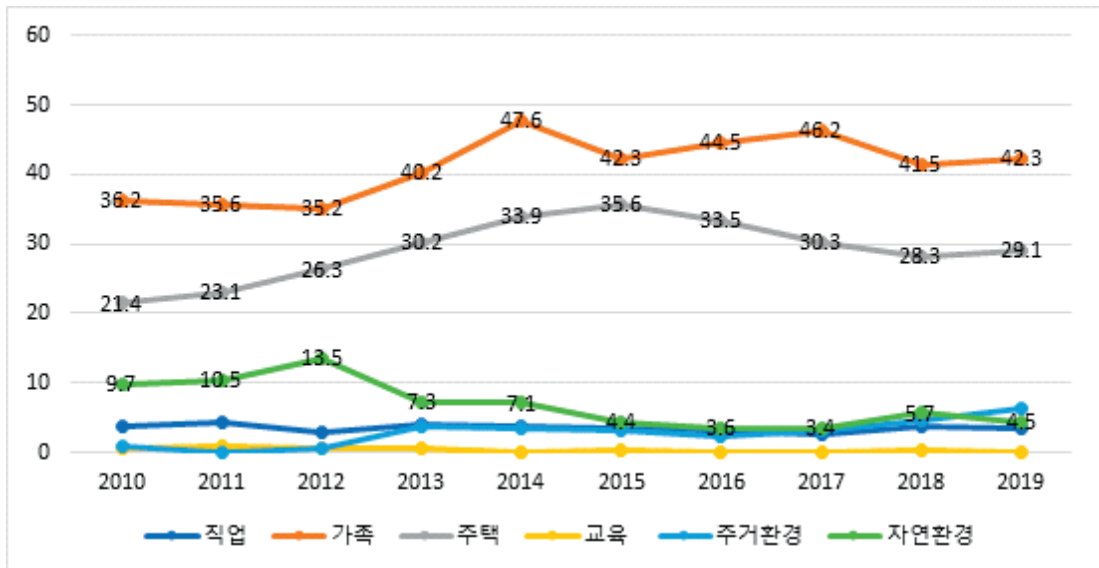
[그림 4-8] 7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9) 80대 이상

[그림 4-9]는 80대 이상의 전입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역시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으로 특히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연환경 요인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4-9] 80대 이상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 변화 추이



3) 고양시 성별 전입사유

고양시 세대주 전입사례의 경우 남성이 24만 4718명이며 여성이 12만 8196명으로 남성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직업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우 교육, 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3] 고양시 성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직업	74,677	(30.52%)	34,550	(26.95%)	109,227	(29.29%)
가족	28,464	(11.63%)	13,251	(10.34%)	41,715	(11.19%)
주택	97,684	(39.92%)	50,603	(39.47%)	148,287	(39.76%)
교육	5,786	(2.36%)	3,580	(2.79%)	9,366	(2.51%)
주거환경	5,815	(2.38%)	3,666	(2.86%)	9,481	(2.54%)
자연환경	2,140	(.87%)	2,041	(1.59%)	4,181	(1.12%)
기타	30,152	(12.32%)	20,505	(16.00%)	50,657	(13.58%)
계	244,718	(100%)	128,196	(100%)	372,914	(100%)

4) 전입 가족관계에 따른 이동사유

(1) 자녀 유무에 따른 이동요인

아래의 [표 4-34]는 전입사례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전입이유를 나타낸다. [표 4-34]에 따르면 전체 기준 직업요인은 자녀동반 이동의 경우 일반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요인과 주택요인 그리고 교육요인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주 이동 역시 직업요인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주택, 교육 요인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4] 자녀가 있는 경우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자녀(0)	비율	일반사례	자녀(0)	비율	일반사례
직업	26,609	(16.25%)	(23.55%)	21,551	(20.34%)	(29.29%)
가족	52,212	(31.89%)	(28.46%)	11,466	(10.82%)	(11.19%)
주택	58,177	(35.54%)	(29.01%)	54,167	(51.13%)	(39.76%)
교육	6,928	(4.23%)	(2.83%)	4,512	(4.26%)	(2.51%)
주거환경	2,857	(1.75%)	(2.14%)	2,379	(2.25%)	(2.54%)
자연환경	807	(0.49%)	(1.12%)	628	(0.59%)	(1.12%)
기타	16,116	(9.84%)	(12.89%)	11,239	(10.61%)	(13.58%)
계	163,706	(100%)	(100%)	105,942	(100%)	(100%)

주: 일반사례는 자녀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고양시 전출사유(전체, 세대주)를 의미함

(2) 부모 유무에 따른 이동요인

아래의 [표 4-35]는 전입사례에 부모가 있는 경우의 전입이유를 나타낸다. [표 4-35]에 따르면 전체 기준 직업요인은 부모가 같이 이동한 경우 일반사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택요인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연환경 요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주 이동의 경우 직업요인은 일반사례에 비해 다소 낮고 가족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택요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입사례에 부모가 있는 경우 직업요인의 비중은 감소하며 세대주 이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족과 주택요인이 매우 중요한 이동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5] 부모가 있는 경우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부모(0)	비율	일반사례	부모(0)	비율	일반사례
직업	3,150	(8.21%)	(23.55%)	2,288	(21.03%)	(29.29%)
가족	21,570	(56.24%)	(28.46%)	1,084	(9.96%)	(11.19%)
주택	7,783	(20.29%)	(29.01%)	5,760	(52.93%)	(39.76%)
교육	259	(0.68%)	(2.83%)	173	(1.59%)	(2.51%)
주거환경	501	(1.31%)	(2.14%)	243	(2.23%)	(2.54%)
자연환경	1,083	(2.82%)	(1.12%)	119	(1.09%)	(1.12%)
기타	4,009	(10.45%)	(12.89%)	1,215	(11.17%)	(13.58%)
계	38,355	(100%)	(100%)	10,882	(100%)	(100%)

2. 고양시 전출사례의 이동요인 분석

전입신고 자료 양식에 의하면 직업, 교육, 가족, 주거환경, 주택, 자연환경, 기타 등 7개의 항목 중 주된 전입사유 1가지와 이전 거주지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입지로의 전입사유를 기존 거주지(전출지)의 전출사유로 상정하고 고양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례에서 기재된 전입사유를 고양시에서 전출한 이유로 전제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1) 고양시 전출사유(전체, 구별)

(1) 고양시 전체 전출사유

2010년부터 2019년의 10년 동안 고양시에서 전출한 사례 전체의 주된 전입사유는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주택, 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36]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고양시 전출 사례의 전입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표 4-36] 고양시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10,940	13,098	17,312	1,996	579	721	13,461	58,107
	(18.83%)	(22.54%)	(29.79%)	(3.44%)	(1.0%)	(1.24%)	(23.17%)	(100%)
2011	10,493	12,653	15,866	1,927	638	715	11,941	54,233
	(19.35%)	(23.33%)	(29.26%)	(3.55%)	(1.18%)	(1.32%)	(22.02%)	(100%)
2012	11,433	12,544	13,461	2,302	569	788	10,321	51,418
	(22.24%)	(24.40%)	(26.18%)	(4.48%)	(1.11%)	(1.53%)	(20.07%)	(100%)
2013	12,730	13,626	12,739	2,263	883	564	5,127	47,932
	(26.56%)	(28.43%)	(26.58%)	(4.72%)	(1.84%)	(1.18%)	(10.70%)	(100%)
2014	14,192	14,492	14,340	2,384	1,002	647	2,171	49,228
	(28.83%)	(29.44%)	(29.13%)	(4.84%)	(2.04%)	(1.31%)	(4.41%)	(100%)
2015	14,776	14,451	14,054	2,342	1,014	638	2,418	49,693
	(29.73%)	(29.08%)	(28.28%)	(4.71%)	(2.04%)	(1.28%)	(4.87%)	(100%)
2016	14,907	14,407	13,061	2,467	1,025	567	2,950	49,384
	(30.19%)	(29.17%)	(26.45%)	(5.0%)	(2.08%)	(1.15%)	(5.97%)	(100%)
2017	14,928	13,832	12,992	2,621	1,420	666	3,228	49,687
	(30.04%)	(27.84%)	(26.15%)	(5.28%)	(2.86%)	(1.34%)	(6.50%)	(100%)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8	15,563	14,286	13,064	2,721	1,712	717	3,564	51,627
	(30.15%)	(27.67%)	(25.30%)	(5.27%)	(3.32%)	(1.39%)	(6.90%)	(100%)
2019	16,178	14,293	10,449	2,959	1,802	724	3,209	49,614
	(32.61%)	(28.81%)	(21.06%)	(5.96%)	(3.63%)	(1.46%)	(6.47%)	(100%)
계	136,140	137,682	137,338	23,982	10,644	6,747	58,390	510,923
	(26.65%)	(26.95%)	(26.88%)	(4.69%)	(2.08%)	(1.32%)	(11.43%)	(100%)

고양시에서 전출한 이유는 연도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요인은 감소하는 반면 가족요인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비중은 높지 않으나 교육요인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환경 요인 역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고양시 구별 전출사유

고양시 구별 전출사례의 주된 전출사유는 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고양시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7]은 구별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은 덕양구와 일산동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요인과 교육요인은 일산서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7] 고양시 구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고양시	136,140	137,682	137,338	23,982	10,644	6,747	58,390	510,923
	(26.65%)	(26.95%)	(26.88%)	(4.69%)	(2.08%)	(1.32%)	(11.43%)	(100%)
덕양구	57,094	58,248	55,650	8,996	4,391	2,884	24,206	211,469
	(27.0%)	(27.54%)	(26.32%)	(4.25%)	(2.08%)	(1.36%)	(11.45%)	(100%)
일산동구	43,407	43,148	41,455	7,567	3,475	2,088	18,414	159,554
	(27.21%)	(27.04%)	(25.98%)	(4.74%)	(2.18%)	(1.31%)	(11.54%)	(100%)
일산서구	35,639	36,286	40,233	7,419	2,778	1,775	15,770	139,900
	(25.47%)	(25.94%)	(28.76%)	(5.30%)	(1.99%)	(1.27%)	(11.27%)	(100%)

아래의 [표 4-38]은 덕양구의 연도별 전출사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고양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직업요인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요인은 증가 후 감소 양상을 그리고 주택요인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표 4-38] 덕양구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679	5,587	7,125	772	232	313	5,636	24,344
	(19.22%)	(22.95%)	(29.27%)	(3.17%)	(0.95%)	(1.29%)	(23.15%)	(100%)
2011	4,382	5,185	6,403	747	243	305	4,976	22,241
	(19.70%)	(23.31%)	(28.79%)	(3.36%)	(1.09%)	(1.37%)	(22.37%)	(100%)
2012	4,688	5,186	5,165	841	211	363	4,186	20,640
	(22.71%)	(25.13%)	(25.02%)	(4.07%)	(1.02%)	(1.76%)	(20.28%)	(100%)
2013	5,253	5,473	5,030	860	380	236	2,046	19,278
	(27.25%)	(28.39%)	(26.09%)	(4.46%)	(1.97%)	(1.22%)	(10.61%)	(100%)
2014	5,838	6,013	5,453	905	418	272	871	19,770
	(29.53%)	(30.41%)	(27.58%)	(4.58%)	(2.11%)	(1.38%)	(4.41%)	(100%)
2015	6,210	6,194	5,508	893	397	256	1,006	20,464
	(30.35%)	(30.27%)	(26.92%)	(4.36%)	(1.94%)	(1.25%)	(4.92%)	(100%)
2016	6,247	6,302	5,490	969	424	231	1,268	20,931
	(29.85%)	(30.11%)	(26.23%)	(4.63%)	(2.03%)	(1.10%)	(6.06%)	(100%)
2017	6,428	5,989	5,500	986	620	273	1,349	21,145
	(30.40%)	(28.32%)	(26.01%)	(4.66%)	(2.93%)	(1.29%)	(6.38%)	(100%)
2018	6,580	6,191	5,477	959	691	308	1,507	21,713
	(30.30%)	(28.51%)	(25.22%)	(4.42%)	(3.18%)	(1.42%)	(6.94%)	(100%)
2019	6,789	6,128	4,499	1,064	775	327	1,361	20,943
	(32.42%)	(29.26%)	(21.48%)	(5.08%)	(3.70%)	(1.56%)	(6.50%)	(100%)
계	57,094	58,248	55,650	8,996	4,391	2,884	24,206	211,469
	(27.0%)	(27.54%)	(26.32%)	(4.25%)	(2.08%)	(1.36%)	(11.45%)	(100%)

[표 4-39] 일산동구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374	4,054	4,899	616	197	218	4,225	17,583
	(19.19%)	(23.06%)	(27.86%)	(3.50%)	(1.12%)	(1.24%)	(24.03%)	(100%)
2011	3,482	4,136	4,904	583	237	221	3,802	17,365
	(20.05%)	(23.82%)	(28.24%)	(3.36%)	(1.36%)	(1.27%)	(21.89%)	(100%)
2012	3,810	4,092	4,113	736	205	218	3,366	16,540
	(23.04%)	(24.74%)	(24.87%)	(4.45%)	(1.24%)	(1.32%)	(20.35%)	(100%)
2013	4,187	4,501	4,026	721	296	171	1,678	15,580
	(26.87%)	(28.89%)	(25.84%)	(4.63%)	(1.90%)	(1.10%)	(10.77%)	(100%)
2014	4,561	4,617	4,488	783	318	213	677	15,657
	(29.13%)	(29.49%)	(28.66%)	(5.0%)	(2.03%)	(1.36%)	(4.32%)	(100%)
2015	4,658	4,399	4,332	729	340	212	727	15,397
	(30.25%)	(28.57%)	(28.14%)	(4.73%)	(2.21%)	(1.38%)	(4.72%)	(100%)
2016	4,659	4,336	3,753	740	325	157	897	14,867
	(31.34%)	(29.17%)	(25.24%)	(4.98%)	(2.19%)	(1.06%)	(6.03%)	(100%)
2017	4,690	4,191	3,874	842	442	220	999	15,258
	(30.74%)	(27.47%)	(25.39%)	(5.52%)	(2.90%)	(1.44%)	(6.55%)	(100%)
2018	4,909	4,427	3,882	891	542	233	1,067	15,951
	(30.78%)	(27.75%)	(24.34%)	(5.59%)	(3.40%)	(1.46%)	(6.69%)	(100%)
2019	5,077	4,395	3,184	926	573	225	976	15,356
	(33.06%)	(28.62%)	(20.73%)	(6.03%)	(3.73%)	(1.47%)	(6.36%)	(100%)
계	43,407	43,148	41,455	7,567	3,475	2,088	18,414	159,554
	(27.21%)	(27.04%)	(25.98%)	(4.74%)	(2.18%)	(1.31%)	(11.54%)	(100%)

[표 4-40] 일산서구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2,887	3,457	5,288	608	150	190	3,600	16,180
	(17.84%)	(21.37%)	(32.68%)	(3.76%)	(0.93%)	(1.17%)	(22.25%)	(100%)
2011	2,629	3,332	4,559	597	158	189	3,163	14,627
	(17.97%)	(22.78%)	(31.17%)	(4.08%)	(1.08%)	(1.29%)	(21.62%)	(100%)
2012	2,935	3,266	4,183	725	153	207	2,769	14,238
	(20.61%)	(22.94%)	(29.38%)	(5.09%)	(1.07%)	(1.45%)	(19.45%)	(100%)
2013	3,290	3,652	3,683	682	207	157	1,403	13,074
	(25.16%)	(27.93%)	(28.17%)	(5.22%)	(1.58%)	(1.20%)	(10.73%)	(100%)
2014	3,793	3,862	4,399	696	266	162	623	13,801
	(27.48%)	(27.98%)	(31.87%)	(5.04%)	(1.93%)	(1.17%)	(4.51%)	(100%)
2015	3,908	3,858	4,214	720	277	170	685	13,832
	(28.25%)	(27.89%)	(30.47%)	(5.21%)	(2.0%)	(1.23%)	(4.95%)	(100%)
2016	4,001	3,769	3,818	758	276	179	785	13,586
	(29.45%)	(27.74%)	(28.10%)	(5.58%)	(2.03%)	(1.32%)	(5.78%)	(100%)
2017	3,810	3,652	3,618	793	358	173	880	13,284
	(28.68%)	(27.49%)	(27.24%)	(5.97%)	(2.69%)	(1.30%)	(6.62%)	(100%)
2018	4,074	3,668	3,705	871	479	176	990	13,963
	(29.18%)	(26.27%)	(26.53%)	(6.24%)	(3.43%)	(1.26%)	(7.09%)	(100%)
2019	4,312	3,770	2,766	969	454	172	872	13,315
	(32.38%)	(28.31%)	(20.77%)	(7.28%)	(3.41%)	(1.29%)	(6.55%)	(100%)
계	35,639	36,286	40,233	7,419	2,778	1,775	15,770	139,900
	(25.47%)	(25.94%)	(28.76%)	(5.30%)	(1.99%)	(1.27%)	(11.27%)	(100%)

(3) 고양시 전출사례의 주요 전입지 분석

고양시 전출자의 전입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전입한 사례가 전체 전입사례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표 4-41]은 연도별 고양시 전출사례의 주요 전입지 20개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2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이며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 김포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³⁾.

³⁾ 고양시 전출사례의 연도별 전입지 자료는 [부록 2-17] 참조

[표 4-41] 고양시 전출시세의 주요 전입지(상위 20개)

(단위: 건)

연번	전입지		연도																		총계
	경기도	파주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경기도	파주시	10,035	9,052	7,790	6,169	7,083	7,162	6,001	6,078	7,668	5,883	72,921								
2	서울특별시	은평구	4,378	3,503	3,130	3,022	2,858	2,930	2,696	2,870	2,860	2,982	31,229								
3	경기도	김포시	1,059	1,344	1,840	1,656	1,638	1,199	1,373	2,105	2,108	1,658	15,980								
4	서울특별시	마포구	1,538	1,507	1,321	1,236	1,357	1,537	1,442	1,393	1,395	1,387	14,113								
5	서울특별시	강서구	1,308	1,186	1,186	1,121	1,320	1,175	1,352	1,450	1,274	1,217	12,589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55	1,183	1,228	1,119	1,026	1,216	1,303	1,128	1,147	1,178	11,883								
7	경기도	용인시	1,136	1,067	1,073	1,082	1,036	1,061	1,186	1,082	1,292	1,181	11,196								
8	경기도	성남시	1,148	1,049	936	988	997	1,043	1,125	1,015	984	861	10,146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152	1,061	909	886	1,062	1,018	938	896	888	939	9,749								
10	경기도	수원시	882	917	987	922	968	1,008	1,007	995	1,035	963	9,684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936	817	821	835	839	773	855	872	949	1,013	8,710								
12	경기도	부천시	1,029	942	909	844	763	827	845	777	777	753	8,466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90	832	757	696	690	740	816	768	828	838	7,855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842	740	677	713	719	688	805	764	749	866	7,563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849	733	645	650	676	678	687	615	666	639	6,838								
16	인천광역시	서구	503	737	761	789	685	656	677	657	696	638	6,799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877	776	709	651	667	654	650	600	605	606	6,795								
18	경기도	남양주시	792	608	641	639	643	642	672	617	677	716	6,64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751	689	625	587	589	578	544	574	565	656	6,158								
20	경기도	화성시	523	441	447	443	415	633	672	710	861	863	6,008								

2) 고양시 연령별 전출사유

전입사례 분석과 유사하게 전입사유는 세대주가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같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세대주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분석과 세대주 이동 시 결과를 필요한 경우 동시에 분석하도록 한다.

고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장 주요한 전출사유는 가족요인이며 이어 주택, 직업, 교육요인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대 미만의 경우 가족요인 이외에 교육요인이 26%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이 49.2%로 가장 높고 이어 가족 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36%로 가장 높고 이어 가족과 주택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30%, 이어 가족요인, 주택요인 순으로 나타나며, 40대의 경우 직업요인은 3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주택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는 주택요인이 35% 이상으로 이보다 더 높은 연령일수록 직업요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6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과 직업요인이 뒤를 잇고 있으나 직업요인은 15% 수준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7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족요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80대 이상에서는 가족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자연환경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42] 연령별 전출사유(전체)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43	2,372	252	1,216	41	21	570	4,615
	(3.10%)	(51.40%)	(5.46%)	(26.35%)	(0.89%)	(0.46%)	(12.35%)	(100%)
10대	781	4,352	793	7,190	210	60	1,227	14,613
	(5.34%)	(29.78%)	(5.43%)	(49.20%)	(1.44%)	(0.41%)	(8.40%)	(100%)
20대	37,158	31,818	13,714	8,758	2,194	324	8,829	102,795
	(36.15%)	(30.95%)	(13.34%)	(8.52%)	(2.13%)	(0.32%)	(8.59%)	(100%)
30대	41,029	38,105	35,900	1,986	2,784	742	14,937	135,483
	(30.28%)	(28.13%)	(26.50%)	(1.47%)	(2.05%)	(0.55%)	(11.02%)	(100%)
40대	30,394	20,802	32,489	3,406	2,069	1,106	13,506	103,772
	(29.29%)	(20.05%)	(31.31%)	(3.28%)	(1.99%)	(1.07%)	(13.02%)	(100%)
50대	18,592	15,507	26,079	1,060	1,520	1,389	9,347	73,494
	(25.30%)	(21.10%)	(35.48%)	(1.44%)	(2.07%)	(1.89%)	(12.72%)	(100%)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60대	5,719	11,066	14,675	193	896	1,271	5,153	38,973
	(14.67%)	(28.39%)	(37.65%)	(0.50%)	(2.30%)	(3.26%)	(13.22%)	(100%)
70대	1,709	8,119	9,318	120	542	1,031	3,216	24,055
	(7.10%)	(33.75%)	(38.74%)	(0.50%)	(2.25%)	(4.29%)	(13.37%)	(100%)
80대 이상	615	5,541	4,118	53	388	803	1,605	13,123
	(4.69%)	(42.22%)	(31.38%)	(0.40%)	(2.96%)	(6.12%)	(12.23%)	(100%)
계	136,140	137,682	137,338	23,982	10,644	6,747	58,390	510,923
	(26.65%)	(26.95%)	(26.88%)	(4.69%)	(2.08%)	(1.32%)	(11.43%)	(100%)

한편 아래의 [표 4-43]은 연령별 전출사유의 세대주 전출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10대 미만의 경우 이동 사례는 매우 적으며 이동의 주된 이유는 가족과 교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이 73%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50%, 이어 주택과 교육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유사하나 직업요인이 다소 높은 반면 40대는 주택요인이 직업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는 주택요인이 직업요인보다 월등히 더 높게 나타나며 60대 이상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7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직업요인이 크게 감소하며 80대 이상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요인은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자연환경요인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3] 연령별 전출사유(세대주)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2	27	13	14	0	1	15	72
	(2.78%)	(37.50%)	(18.06%)	(19.44%)	(0.0%)	(1.39%)	(20.83%)	(100%)
10대	470	116	341	3,517	112	12	266	4,834
	(9.72%)	(2.40%)	(7.05%)	(72.76%)	(2.32%)	(0.25%)	(5.50%)	(100%)
20대	31,337	4,642	11,701	7,644	1,630	177	5,395	62,526
	(50.12%)	(7.42%)	(18.71%)	(12.23%)	(2.61%)	(0.28%)	(8.63%)	(100%)
30대	34,775	9,937	32,882	1,415	2,274	522	10,771	92,576
	(37.56%)	(10.73%)	(35.52%)	(1.53%)	(2.46%)	(0.56%)	(11.63%)	(100%)
40대	25,874	6,245	30,103	2,768	1,669	860	10,275	77,794
	(33.26%)	(8.03%)	(38.70%)	(3.56%)	(2.15%)	(1.11%)	(13.21%)	(100%)
50대	15,968	4,610	24,354	926	1,263	1,122	7,143	55,386
	(28.83%)	(8.32%)	(43.97%)	(1.67%)	(2.28%)	(2.03%)	(12.90%)	(100%)
60대	4,693	2,628	13,486	158	694	1,011	3,834	26,504
	(17.71%)	(9.92%)	(50.88%)	(0.60%)	(2.62%)	(3.81%)	(14.47%)	(100%)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70대	1,440	1,569	8,597	107	424	735	2,382	15,254
	(9.44%)	(10.29%)	(56.36%)	(0.70%)	(2.78%)	(4.82%)	(15.62%)	(100%)
80대 이상	528	776	3,730	38	304	515	1,078	6,969
	(7.58%)	(11.14%)	(53.52%)	(0.55%)	(4.36%)	(7.39%)	(15.47%)	(100%)
계	115,087	30,550	125,207	16,587	8,370	4,955	41,159	341,915
	(33.66%)	(8.93%)	(36.62%)	(4.85%)	(2.45%)	(1.45%)	(12.04%)	(100%)

[표 4-44]는 연령별 진출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연령의 첫 번째 행은 관측 도수를 나타내며 두 번째 행은 기대도수를 나타낸다.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value는 0.01 이하로 유의수준 0.01에서 연령에 따라 진출사유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주요 진출사유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표 4-44] 연령별 진출사유의 카이스퀘어 검정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43	2,372	252	1,216	41	21	570	4,615
	1,229.70	1,243.60	1,240.50	216.6	96.1	60.9	527.4	4,615.00
10대	781	4,352	793	7,190	210	60	1,227	14,613
	3,893.80	3,937.90	3,928.00	685.9	304.4	193	1,670.00	14,613.00
20대	37,158	31,818	13,714	8,758	2,194	324	8,829	102,795
	27,390.60	27,700.90	27,631.70	4,825.10	2,141.50	1,357.50	11,747.80	102,795.00
30대	41,029	38,105	35,900	1,986	2,784	742	14,937	135,483
	36,100.70	36,509.60	36,418.30	6,359.40	2,822.50	1,789.10	15,483.50	135,483.00
40대	30,394	20,802	32,489	3,406	2,069	1,106	13,506	103,772
	27,651.00	27,964.20	27,894.30	4,870.90	2,161.90	1,370.40	11,859.40	103,772.00
50대	18,592	15,507	26,079	1,060	1,520	1,389	9,347	73,494
	19,583.10	19,804.90	19,755.50	3,449.70	1,531.10	970.5	8,399.10	73,494.00
60대	5,719	11,066	14,675	193	896	1,271	5,153	38,973
	10,384.70	10,502.30	10,476.10	1,829.30	811.9	514.7	4,454.00	38,973.00
70대	1,709	8,119	9,318	120	542	1,031	3,216	24,055
	6,409.70	6,482.30	6,466.10	1,129.10	501.1	317.7	2,749.10	24,055.00
80대 이상	615	5,541	4,118	53	388	803	1,605	13,123
	3,496.70	3,536.30	3,527.50	616	273.4	173.3	1,499.70	13,123.00
계	136,140	137,682	137,338	23,982	10,644	6,747	58,390	510,923
	136,140.00	137,682.00	137,338.00	23,982.00	10,644.00	6,747.00	58,390.00	510,9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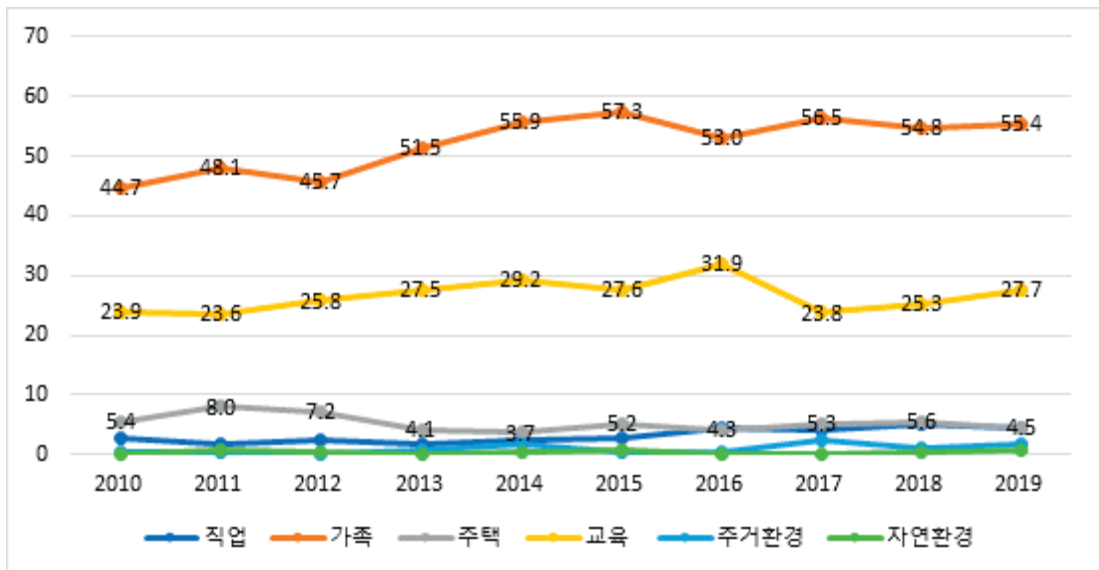
Pearson chi2(48) = 1.2e+05 Pr = 0,000

연령을 기준으로 연도별 전출사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대미만

[그림 4-10]은 10대 미만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족요인으로 전체의 50% 이상이며 이어 교육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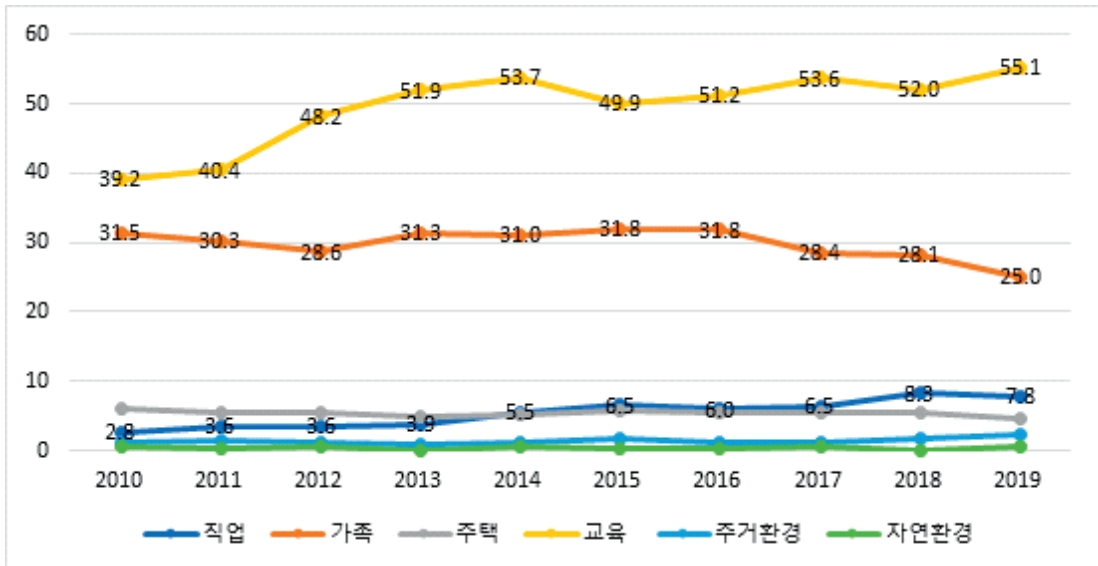
[그림 4-10] 10대 미만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2) 10대

[그림 4-11]은 1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교육요인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가족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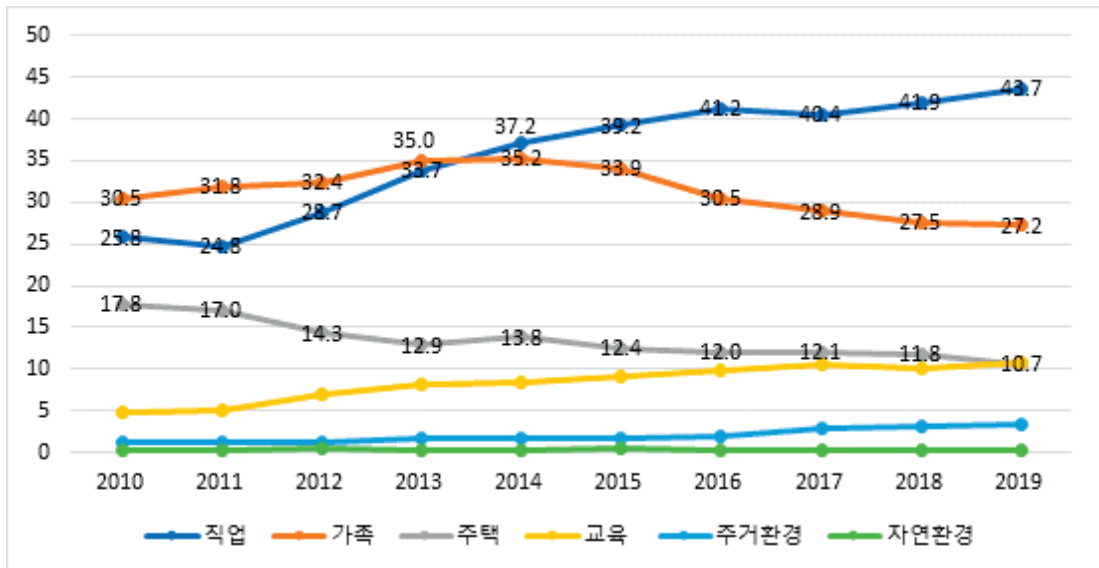
[그림 4-11] 1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3) 20대

[그림 4-12]는 2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이전에는 가장 주요한 사유가 가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직업요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이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교육요인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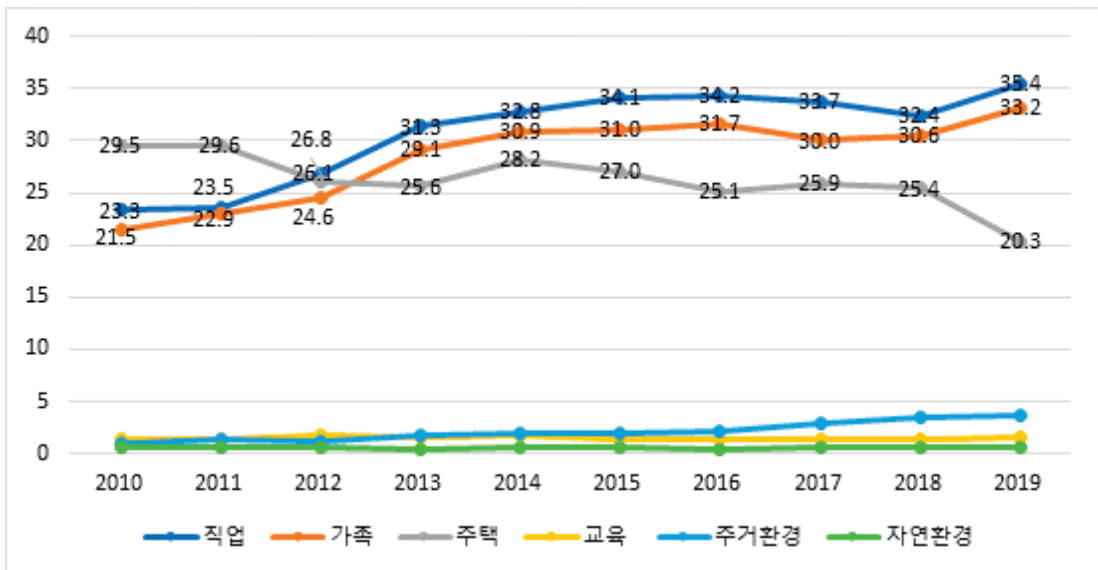
[그림 4-12] 2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4) 30대

[그림 4-13]은 3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출사유는 2012년 이전에는 주택이었으나 이후 직업과 가족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순위가 바뀌었다. 또한, 주거환경 요인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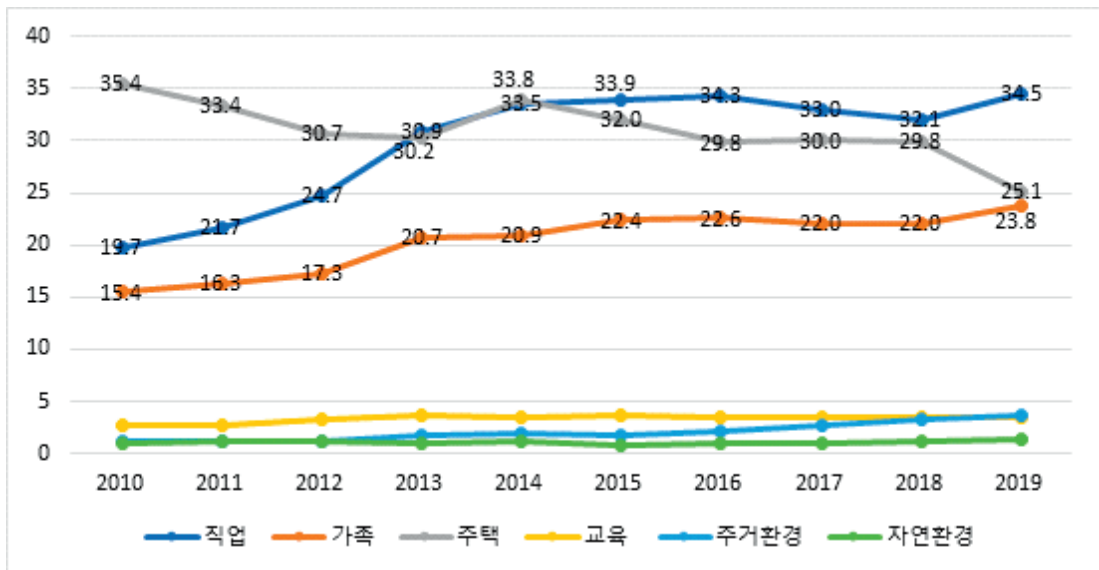
[그림 4-13] 3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5) 40대

[그림 4-14]는 4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에서 직업요인으로 바뀌었으며 가족요인과 직업요인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요인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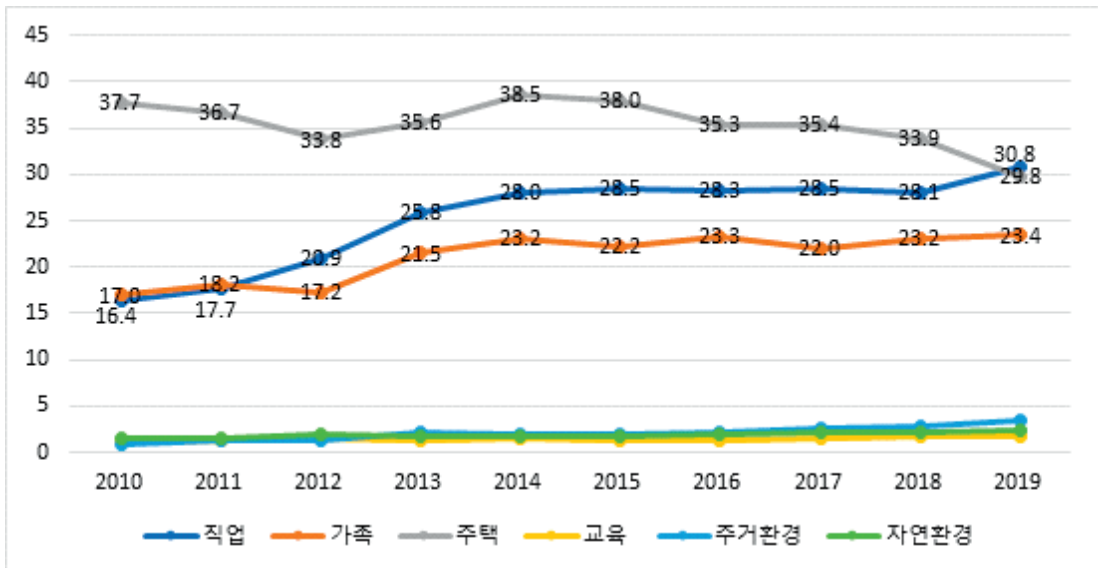
[그림 4-14] 4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6) 50대

[그림 4-15]는 5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며 이어 직업요인과 가족요인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요인은 완만하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요인은 20% 초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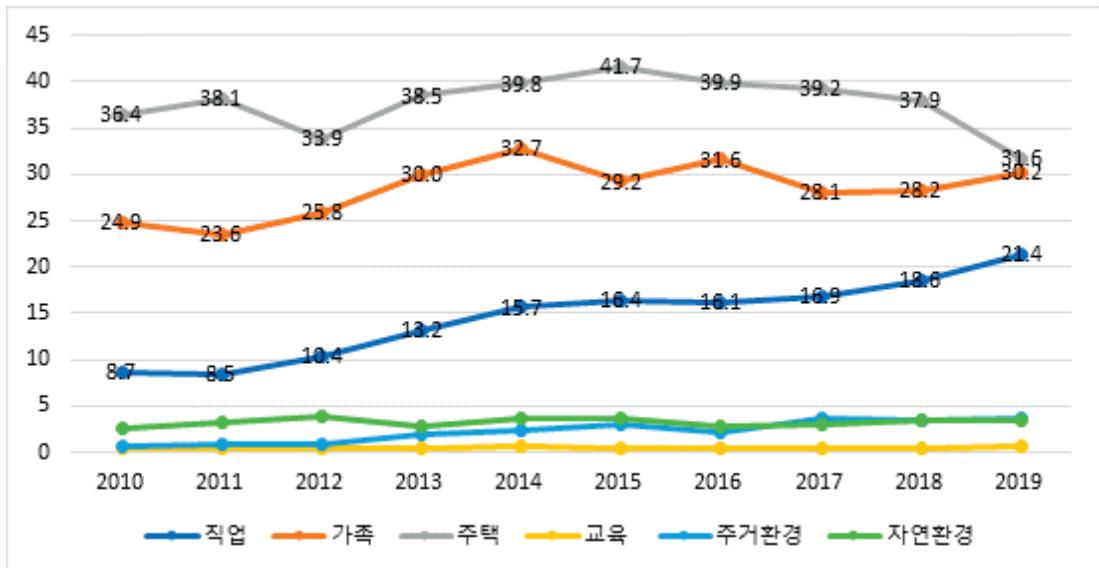
[그림 4-15] 5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7) 60대

[그림 4-16]은 6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요인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택요인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연환경 요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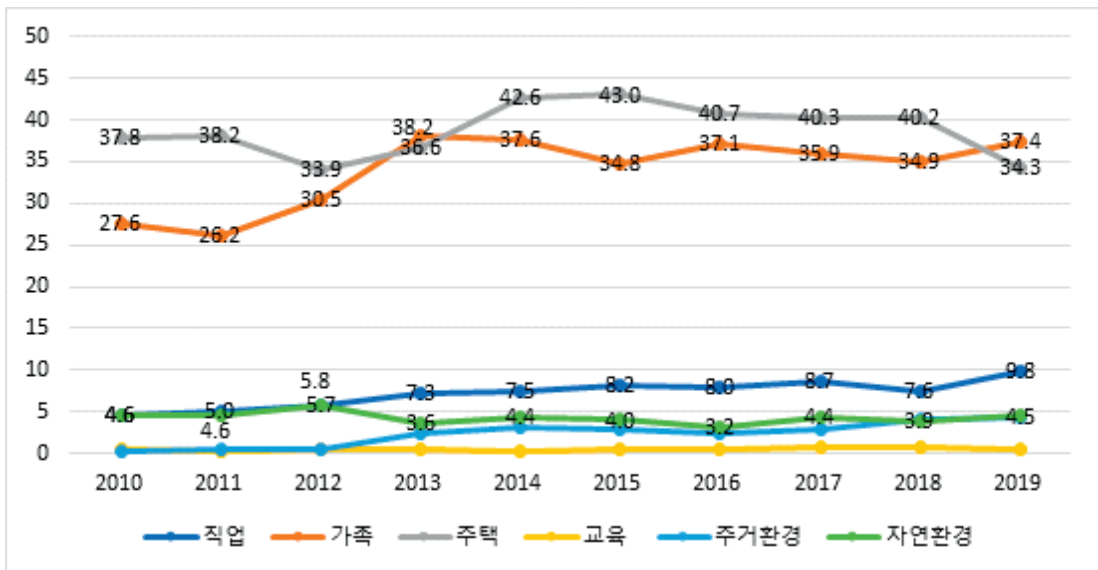
[그림 4-16] 6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8) 70대

[그림 4-17]은 70대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으로 주택요인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가족요인은 2013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대략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직업요인과 주거환경 요인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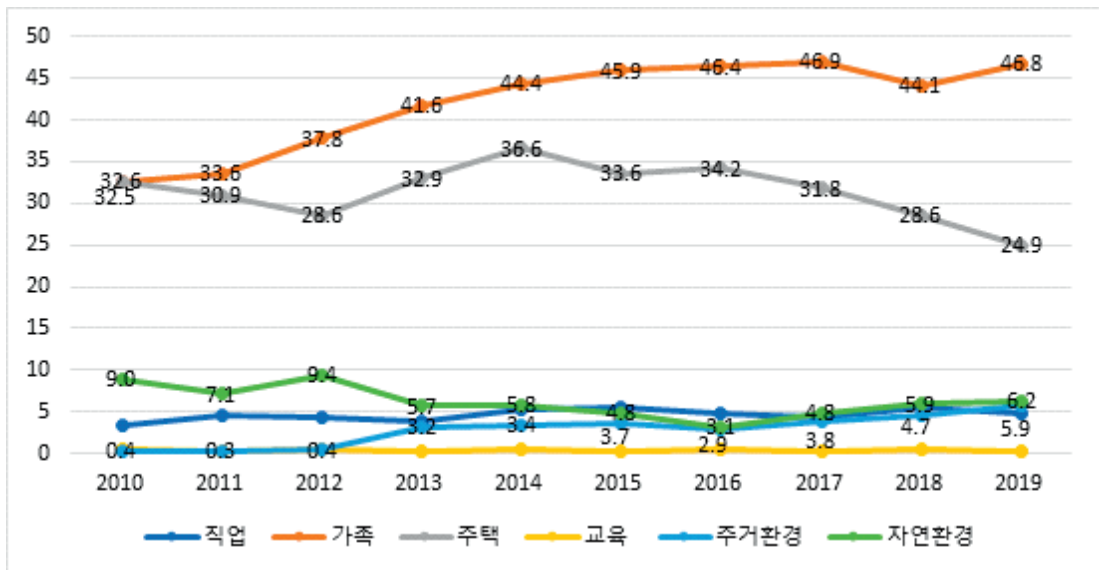
[그림 4-17] 7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9) 80대 이상

[그림 4-18]은 80대 이상의 전출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역시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으로 가족요인은 점차 상승추세이며 주택요인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외에 자연환경 요인과 주거환경 요인 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8] 80대 이상 전출자의 주된 전출사유 변화 추이



3) 고양시 성별 전출사유

고양시 전출사례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22만 4296명이며 여성이 11만 7619명으로 남성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직업요인이 더 높고 여성의 경우 교육, 주거환경 등의 요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5] 고양시 성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직업	81,158	(36.18%)	33,929	(28.85%)	115,087	(33.66%)
가족	20,108	(8.96%)	10,442	(8.88%)	30,550	(8.93%)
주택	80,681	(35.97%)	44,526	(37.86%)	125,207	(36.62%)
교육	9,917	(4.42%)	6,670	(5.67%)	16,587	(4.85%)
주거환경	4,999	(2.23%)	3,371	(2.87%)	8,370	(2.45%)
자연환경	2,795	(1.25%)	2,160	(1.84%)	4,955	(1.45%)
기타	24,638	(10.98%)	16,521	(14.05%)	41,159	(12.04%)
계	224,296	(100%)	117,619	(100%)	341,915	(100%)

4) 전출 가족관계에 따른 이동사유

(1) 자녀 유무에 따른 이동요인

아래의 [표 4-46]은 전출사례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전출이유를 나타낸다. [표 4-46]에 따르면 전체 기준 직업요인은 자녀동반 이동의 경우 일반사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이 일반사례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주가 같이 이동한 경우 역시 직업요인의 비중은 일반사례에 비해 감소하며 가장 중요한 사유는 주택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과 주택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6] 자녀가 있는 경우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자녀(0)	비율	일반사례	자녀(0)	비율	일반사례
직업	27,290	(18.48%)	(26.65%)	21,454	(23.89%)	(33.66%)
가족	50,539	(34.22%)	(26.95%)	8,629	(9.61%)	(8.93%)
주택	47,261	(32.0%)	(26.88%)	43,809	(48.79%)	(36.62%)
교육	5,644	(3.82%)	(4.69%)	4,143	(4.61%)	(4.85%)
주거환경	2,260	(1.53%)	(2.08%)	1,804	(2.01%)	(2.45%)
자연환경	950	(0.64%)	(1.32%)	648	(0.72%)	(1.45%)
기타	13,730	(9.30%)	(11.43%)	9,303	(10.36%)	(12.04%)
계	147,674	(100%)	(100%)	89,790	(100%)	(100%)

(2) 부모 유무에 따른 이동요인

아래의 [표 4-47]은 전출사례에 부모가 있는 경우의 전출이유를 나타낸다. [표 4-47]에 따르면 직업요인은 부모가 있는 경우 일반사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체사례에서 그 비중 차이가 15% 포인트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사례의 경우 가족 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세대주 사례에서는 주택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7] 부모가 있는 경우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전체			세대주		
	부모(0)	비율	일반사례	부모(0)	비율	일반사례
직업	2,733	(9.79%)	(26.65%)	2,090	(23.42%)	(33.66%)
가족	15,647	(56.05%)	(26.95%)	833	(9.33%)	(8.93%)
주택	5,961	(21.35%)	(26.88%)	4,638	(51.97%)	(36.62%)
교육	221	(0.79%)	(4.69%)	153	(1.71%)	(4.85%)
주거환경	352	(1.26%)	(2.08%)	183	(2.05%)	(2.45%)
자연환경	578	(2.07%)	(1.32%)	96	(1.08%)	(1.45%)
기타	2,424	(8.68%)	(11.43%)	932	(10.44%)	(12.04%)
계	27,916	(100%)	(100%)	8,925	(100%)	(100%)

제 5 장
시사점

시사점

2020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 0.8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생률과 높은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성장잠재력 저하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지역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구변화는 인구이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이에 지방소멸, 지역쇠퇴의 관점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구조 불균등의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동요인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고용기회, 소득변동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구이동과 인구이동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관찰된 인구이동의 결과와 이동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 등에 관한 관계를 추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찰된 이동 인구의 직접적 이동요인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이동의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특히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이와 연관된 개인적 선호는 잠재적 이동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별 이동 요인 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서 2019년의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연령별 인구이동 양상과 이동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실증 분석하여 연령별 인구의 이동요인과 그 변화에 관한 관계 이론적 관계 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고양시 인구의 진입 및 진출요인과

관련된 고양시 특성을 검토하여 고양시가 지닌 어떠한 특성이 연령별 인구의 유입을 추동하고, 또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고양시 인구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항목의 국내이동 통계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770만 건의 이동 사례 중 고양시 사례를 추출하고 전출지를 추적하여 연령에 따른 전입 및 전출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양시 전체 전입사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업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주택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사례의 시계열적 특징은 직업요인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족요인이 크게 상승하고 주택요인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 요인 역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 전입사유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미만의 경우 교육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가족과 주택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요인 주택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40대의 경우 직업요인은 20~30대에 비해 감소하며 주택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50대에서는 주택요인과 직업요인이 유사한 비중을 보이며 6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직업과 가족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가족요인의 직업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주택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경우 8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자연환경의 경우 5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미만의 학령인구에서는 교육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20대에서 ~50대까지는 직업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50대 이후에서는 주택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환경 요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출사례의 경우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요인은 200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주택요인은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전출요인의 경우 10대 미만은 가족 요인과 교육요인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 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 이후에서는 교육요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30대 이후에는 3%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직업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가족과 주택요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요인에 이어 주택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직업요인은 점차 감소하고 주택요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는 주택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이상 연령으로 갈수록 직업요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60대의 경우 주택요인이 가장 높고 이어 직업과 가족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역시 주택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가족요인이 직업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이 매우 높고 이어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경우 8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자연환경의 경우 6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각 연령별 전입 및 전출사유는 주요인들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대 미만에서는 가족과 교육요인이 중요하며 20대 이상 50대 미만에서는 직업과 가족 주택요인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특히 주거환경요인이 완만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령별 전입사례 및 전출사례 이동 이유의 우선순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대 전입사례에서는 가족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출사례에서는 교육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20대 전입자는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이 유사한 비중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출사례에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명확한 분기점을 보이며 직업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연령별 주된 이동 사유인 직업, 가족, 주택요인의 변화추세의 시계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 요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족요인과 직업요인 그리고 주거환경 요인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주택요인은 역 유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전입 및 전출사유에 대한 분석은 상기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동사례에 대한 통제변수로써 이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내용의 엄밀성 등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령별 주요 이동 사유가 다르게 나타나며 전입사례와 전출사례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연령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양시의 연령별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요인과 직업요인 그리고 주거환경 요인 등은 2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전출사유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관련 정책 계획 수립 시 동 요인의 변화 경향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정책연구 2016-01, 한국노동연구원
- 강은택·마강래. (2012).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33-43제7권제호, pp.33-43.
- 구형수, 김태완, 이승욱, 민범식.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기정훈. (2011):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중. (2010).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43-58.
- 김리영·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20.
- 김병석·서원석(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1-14.
- 김순은. (2016): 저출산 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6 한일 공동세미나.
- 김진범·박경현·장은교·박은관. (2010).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 김현아(2008).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0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75-103.
- 박세훈·김동주·정윤화·박근현·이은영 (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박진경, 김상민. (20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석호원. (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73-311.
- 석호원·김소담. (2020).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이상림.(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 이상림·이지혜·Bernhard Köppen·임소장·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1): 45-70.
- 이소영, 오은주, 이희연. (2012).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은우.(2005). 지역 간 인구이동이 소득 결정에 미친 영향. 경제발전연구 11(1): 171-197.
-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이찬영·문제철(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 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 이희연·박정호(2009).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2), 123-141.
- 이희연·이승민(2008).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3(4): 561-579.
- 정운찬·김영식(2006). 거시경제론. 을국출판사.
- 최석현·이병호·박정훈(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87.
- 최성호·이창무(2013).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부동산학회, 87-102.
- 홍성호·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1-19.

[해외문헌]

- Banzhaf, S. H., & Walsh, R. P. (2008). Do people vote with their feet? an empirical test of tiebout's mechanis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8(3): 843-863.
- Chen, Y., & Rosenthal, S. S. (2008). Local amenities and life-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3), 519-537.
- Conway, K. S., & Houtenville, A. J. (1998). Do the elderly" vote with their feet?". *Public Choice*: 663-685.
- Cushing, B.J. (1993).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on metropolitan migration in the US by income group, gender and family structure, *Urban Studies*, 30: 325-338.
- Elis, V. (2008). The impact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es.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861-878. Brill.
- Herzog Jr, H. W., Schlottmann, A. M., & Boehm, T. P. (1993). Migration as spatial job-search: a survey of empirical findings. *Regional Studies*, 27(4), 327-340.
-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22, pp.139-191.
- Martinez-Fernandez, C., Audirac, I., Fol, S., and Cunningham-Sabot, E. (2012). Shrinking cities: Urban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213-225.
- Pallagst, K. (2008). Shrinking cities: Planning challeng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ities growing smaller*, 10, 5-16.
- Plantinga, Andrew J., Cecile Detang-Dessendre, Gary L. Hunt, and Virginie Piquet(2013), "Housing Prices and Inter-Urban Migra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43, 296-306.
- Shelley, M, and Koven, S. (1993). Interstate migration: A test of competing interpret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21: 243-261.
- Todaro, M. (1980).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In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361-40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n Diego, CA

부 록

1. 전입사례 분석
2. 전출사례 분석

부록 1. 전입사례 분석

1. 연령별 전입사유 분석

[부록 1-1] 고양시 전입자 중 10대 미만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6	372	25	162	1	5	144	715
	(0.84%)	(52.03%)	(3.50%)	(22.66%)	(0.14%)	(0.70%)	(20.14%)	(100%)
2011	10	333	40	125	1	0	130	639
	(1.56%)	(52.11%)	(6.26%)	(19.56%)	(0.16%)	(0.0%)	(20.34%)	(100%)
2012	12	240	41	148	2	7	125	575
	(2.09%)	(41.74%)	(7.13%)	(25.74%)	(0.35%)	(1.22%)	(21.74%)	(100%)
2013	21	248	35	127	6	1	63	501
	(4.19%)	(49.50%)	(6.99%)	(25.35%)	(1.20%)	(0.20%)	(12.57%)	(100%)
2014	16	285	34	138	8	1	21	503
	(3.18%)	(56.66%)	(6.76%)	(27.44%)	(1.59%)	(0.20%)	(4.17%)	(100%)
2015	12	261	41	120	7	1	36	478
	(2.51%)	(54.60%)	(8.58%)	(25.10%)	(1.46%)	(0.21%)	(7.53%)	(100%)
2016	11	239	31	106	5	0	48	440
	(2.50%)	(54.32%)	(7.05%)	(24.09%)	(1.14%)	(0.0%)	(10.91%)	(100%)
2017	10	220	35	99	8	4	31	407
	(2.46%)	(54.05%)	(8.60%)	(24.32%)	(1.97%)	(0.98%)	(7.62%)	(100%)
2018	15	201	27	92	6	3	34	378
	(3.97%)	(53.17%)	(7.14%)	(24.34%)	(1.59%)	(0.79%)	(8.99%)	(100%)
2019	17	201	23	75	6	1	29	352
	(4.83%)	(57.10%)	(6.53%)	(21.31%)	(1.70%)	(0.28%)	(8.24%)	(100%)
계	130	2,600	332	1,192	50	23	661	4,988
	(2.61%)	(52.13%)	(6.66%)	(23.90%)	(1.0%)	(0.46%)	(13.25%)	(100%)

[부록 1-2] 고양시 전입자 중 1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5	744	76	293	10	7	380	1,555
	(2.89%)	(47.85%)	(4.89%)	(18.84%)	(0.64%)	(0.45%)	(24.44%)	(100%)
2011	61	697	89	262	14	11	336	1,470
	(4.15%)	(47.41%)	(6.05%)	(17.82%)	(0.95%)	(0.75%)	(22.86%)	(100%)
2012	35	666	118	318	15	2	259	1,413
	(2.48%)	(47.13%)	(8.35%)	(22.51%)	(1.06%)	(0.14%)	(18.33%)	(100%)
2013	89	672	82	302	18	4	135	1,302
	(6.84%)	(51.61%)	(6.30%)	(23.20%)	(1.38%)	(0.31%)	(10.37%)	(100%)
2014	86	733	87	276	19	5	47	1,253
	(6.86%)	(58.50%)	(6.94%)	(22.03%)	(1.52%)	(0.40%)	(3.75%)	(100%)
2015	89	716	108	298	16	3	90	1,320
	(6.74%)	(54.24%)	(8.18%)	(22.58%)	(1.21%)	(0.23%)	(6.82%)	(100%)
2016	83	624	113	254	23	2	67	1,166
	(7.12%)	(53.52%)	(9.69%)	(21.78%)	(1.97%)	(0.17%)	(5.75%)	(100%)
2017	106	582	92	259	20	5	78	1,142
	(9.28%)	(50.96%)	(8.06%)	(22.68%)	(1.75%)	(0.44%)	(6.83%)	(100%)
2018	102	589	61	268	25	6	70	1,121
	(9.10%)	(52.54%)	(5.44%)	(23.91%)	(2.23%)	(0.54%)	(6.24%)	(100%)
2019	107	564	91	394	38	8	79	1,281
	(8.35%)	(44.03%)	(7.10%)	(30.76%)	(2.97%)	(0.62%)	(6.17%)	(100%)
계	803	6,587	917	2,924	198	53	1,541	13,023
	(6.17%)	(50.58%)	(7.04%)	(22.45%)	(1.52%)	(0.41%)	(11.83%)	(100%)

[부록 1-3] 고양시 전입자 중 2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369	3,187	1,806	353	107	31	3,100	11,953
	(28.19%)	(26.66%)	(15.11%)	(2.95%)	(0.90%)	(0.26%)	(25.93%)	(100%)
2011	3,220	3,199	1,678	397	131	21	2,395	11,041
	(29.16%)	(28.97%)	(15.20%)	(3.60%)	(1.19%)	(0.19%)	(21.69%)	(100%)
2012	3,274	3,121	1,593	427	160	15	1,713	10,303
	(31.78%)	(30.29%)	(15.46%)	(4.14%)	(1.55%)	(0.15%)	(16.63%)	(100%)
2013	3,252	3,386	1,494	427	203	20	873	9,655
	(33.68%)	(35.07%)	(15.47%)	(4.42%)	(2.10%)	(0.21%)	(9.04%)	(100%)
2014	3,481	3,720	1,505	390	226	29	340	9,691
	(35.92%)	(38.39%)	(15.53%)	(4.02%)	(2.33%)	(0.30%)	(3.51%)	(100%)
2015	3,622	3,893	1,651	484	223	36	604	10,513
	(34.45%)	(37.03%)	(15.70%)	(4.60%)	(2.12%)	(0.34%)	(5.75%)	(100%)
2016	3,851	3,912	1,817	470	212	29	585	10,876
	(35.41%)	(35.97%)	(16.71%)	(4.32%)	(1.95%)	(0.27%)	(5.38%)	(100%)
2017	3,907	3,808	1,570	521	291	23	691	10,811
	(36.14%)	(35.22%)	(14.52%)	(4.82%)	(2.69%)	(0.21%)	(6.39%)	(100%)
2018	4,477	3,736	1,360	451	315	33	687	11,059
	(40.48%)	(33.78%)	(12.30%)	(4.08%)	(2.85%)	(0.30%)	(6.21%)	(100%)
2019	4,928	4,610	1,867	772	468	20	554	13,219
	(37.28%)	(34.87%)	(14.12%)	(5.84%)	(3.54%)	(0.15%)	(4.19%)	(100%)
계	37,381	36,572	16,341	4,692	2,336	257	11,542	109,121
	(34.26%)	(33.52%)	(14.98%)	(4.30%)	(2.14%)	(0.24%)	(10.58%)	(100%)

[부록 1-4] 고양시 전입자 중 3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381	3,889	4,844	269	189	89	4,930	18,591
	(23.57%)	(20.92%)	(26.06%)	(1.45%)	(1.02%)	(0.48%)	(26.52%)	(100%)
2011	4,311	3,793	5,087	293	183	72	3,984	17,723
	(24.32%)	(21.40%)	(28.70%)	(1.65%)	(1.03%)	(0.41%)	(22.48%)	(100%)
2012	4,292	3,842	4,488	318	212	85	2,997	16,234
	(26.44%)	(23.67%)	(27.65%)	(1.96%)	(1.31%)	(0.52%)	(18.46%)	(100%)
2013	4,409	4,579	5,216	266	412	83	1,696	16,661
	(26.46%)	(27.48%)	(31.31%)	(1.60%)	(2.47%)	(0.50%)	(10.18%)	(100%)
2014	4,531	4,827	5,405	238	454	98	580	16,133
	(28.09%)	(29.92%)	(33.50%)	(1.48%)	(2.81%)	(0.61%)	(3.60%)	(100%)
2015	4,387	4,734	5,261	228	339	70	942	15,961
	(27.49%)	(29.66%)	(32.96%)	(1.43%)	(2.12%)	(0.44%)	(5.90%)	(100%)
2016	4,079	4,529	4,498	204	296	57	889	14,552
	(28.03%)	(31.12%)	(30.91%)	(1.40%)	(2.03%)	(0.39%)	(6.11%)	(100%)
2017	3,647	4,081	3,638	158	362	74	951	12,911
	(28.25%)	(31.61%)	(28.18%)	(1.22%)	(2.80%)	(0.57%)	(7.37%)	(100%)
2018	3,900	4,087	3,478	181	447	73	990	13,156
	(29.64%)	(31.07%)	(26.44%)	(1.38%)	(3.40%)	(0.55%)	(7.53%)	(100%)
2019	3,910	4,927	4,834	194	696	75	807	15,443
	(25.32%)	(31.90%)	(31.30%)	(1.26%)	(4.51%)	(0.49%)	(5.23%)	(100%)
계	41,847	43,288	46,749	2,349	3,590	776	18,766	157,365
	(26.59%)	(27.51%)	(29.71%)	(1.49%)	(2.28%)	(0.49%)	(11.93%)	(100%)

[부록 1-5] 고양시 전입자 중 4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2,365	2,066	3,400	334	97	85	3,341	11,688
	(20.23%)	(17.68%)	(29.09%)	(2.86%)	(0.83%)	(0.73%)	(28.58%)	(100%)
2011	2,609	1,939	3,491	396	133	89	3,029	11,686
	(22.33%)	(16.59%)	(29.87%)	(3.39%)	(1.14%)	(0.76%)	(25.92%)	(100%)
2012	2,664	1,830	3,339	414	150	106	2,360	10,863
	(24.52%)	(16.85%)	(30.74%)	(3.81%)	(1.38%)	(0.98%)	(21.73%)	(100%)
2013	2,865	2,220	4,055	394	242	97	1,391	11,264
	(25.44%)	(19.71%)	(36.0%)	(3.50%)	(2.15%)	(0.86%)	(12.35%)	(100%)
2014	3,144	2,449	4,319	369	301	111	537	11,230
	(28.0%)	(21.81%)	(38.46%)	(3.29%)	(2.68%)	(0.99%)	(4.78%)	(100%)
2015	3,148	2,599	4,316	320	214	79	942	11,618
	(27.10%)	(22.37%)	(37.15%)	(2.75%)	(1.84%)	(0.68%)	(8.11%)	(100%)
2016	2,928	2,316	3,730	280	185	59	883	10,381
	(28.21%)	(22.31%)	(35.93%)	(2.70%)	(1.78%)	(0.57%)	(8.51%)	(100%)
2017	2,645	2,160	3,130	285	234	67	888	9,409
	(28.11%)	(22.96%)	(33.27%)	(3.03%)	(2.49%)	(0.71%)	(9.44%)	(100%)
2018	2,821	2,222	2,901	289	280	77	937	9,527
	(29.61%)	(23.32%)	(30.45%)	(3.03%)	(2.94%)	(0.81%)	(9.84%)	(100%)
2019	2,697	2,496	3,795	330	399	80	842	10,639
	(25.35%)	(23.46%)	(35.67%)	(3.10%)	(3.75%)	(0.75%)	(7.91%)	(100%)
계	27,886	22,297	36,476	3,411	2,235	850	15,150	108,305
	(25.75%)	(20.59%)	(33.68%)	(3.15%)	(2.06%)	(0.78%)	(13.99%)	(100%)

[부록 1-6] 고양시 전입자 중 5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979	1,371	2,157	65	52	104	2,009	6,737
	(14.53%)	(20.35%)	(32.02%)	(0.96%)	(0.77%)	(1.54%)	(29.82%)	(100%)
2011	1,137	1,413	2,137	94	84	131	1,981	6,977
	(16.30%)	(20.25%)	(30.63%)	(1.35%)	(1.20%)	(1.88%)	(28.39%)	(100%)
2012	1,313	1,353	2,342	98	89	132	1,712	7,039
	(18.65%)	(19.22%)	(33.27%)	(1.39%)	(1.26%)	(1.88%)	(24.32%)	(100%)
2013	1,499	1,675	2,914	97	154	106	1,051	7,496
	(20.0%)	(22.35%)	(38.87%)	(1.29%)	(2.05%)	(1.41%)	(14.02%)	(100%)
2014	1,719	1,906	3,239	92	158	111	336	7,561
	(22.74%)	(25.21%)	(42.84%)	(1.22%)	(2.09%)	(1.47%)	(4.44%)	(100%)
2015	1,883	2,021	3,564	71	161	90	747	8,537
	(22.06%)	(23.67%)	(41.75%)	(0.83%)	(1.89%)	(1.05%)	(8.75%)	(100%)
2016	1,811	2,006	3,073	63	118	63	707	7,841
	(23.10%)	(25.58%)	(39.19%)	(0.80%)	(1.50%)	(0.80%)	(9.02%)	(100%)
2017	1,729	1,787	2,407	56	167	81	718	6,945
	(24.90%)	(25.73%)	(34.66%)	(0.81%)	(2.40%)	(1.17%)	(10.34%)	(100%)
2018	1,965	1,868	2,327	87	214	92	800	7,353
	(26.72%)	(25.40%)	(31.65%)	(1.18%)	(2.91%)	(1.25%)	(10.88%)	(100%)
2019	1,964	2,176	3,202	82	283	97	718	8,522
	(23.05%)	(25.53%)	(37.57%)	(0.96%)	(3.32%)	(1.14%)	(8.43%)	(100%)
계	15,999	17,576	27,362	805	1,480	1,007	10,779	75,008
	(21.33%)	(23.43%)	(36.48%)	(1.07%)	(1.97%)	(1.34%)	(14.37%)	(100%)

[부록 1-기] 고양시 전입자 중 6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48	1,145	1,278	26	26	134	1,297	4,254
	(8.18%)	(26.92%)	(30.04%)	(0.61%)	(0.61%)	(3.15%)	(30.49%)	(100%)
2011	328	1,102	1,394	24	30	166	1,173	4,217
	(7.78%)	(26.13%)	(33.06%)	(0.57%)	(0.71%)	(3.94%)	(27.82%)	(100%)
2012	345	956	1,312	31	23	145	996	3,808
	(9.06%)	(25.11%)	(34.45%)	(0.81%)	(0.60%)	(3.81%)	(26.16%)	(100%)
2013	470	1,244	1,754	23	91	93	627	4,302
	(10.93%)	(28.92%)	(40.77%)	(0.53%)	(2.12%)	(2.16%)	(14.57%)	(100%)
2014	581	1,337	1,916	19	124	102	192	4,271
	(13.60%)	(31.30%)	(44.86%)	(0.44%)	(2.90%)	(2.39%)	(4.50%)	(100%)
2015	586	1,403	2,409	12	100	100	441	5,051
	(11.60%)	(27.78%)	(47.69%)	(0.24%)	(1.98%)	(1.98%)	(8.73%)	(100%)
2016	527	1,465	2,115	13	86	66	450	4,722
	(11.16%)	(31.02%)	(44.79%)	(0.28%)	(1.82%)	(1.40%)	(9.53%)	(100%)
2017	555	1,332	1,674	25	107	65	433	4,191
	(13.24%)	(31.78%)	(39.94%)	(0.60%)	(2.55%)	(1.55%)	(10.33%)	(100%)
2018	795	1,487	1,619	18	112	76	512	4,619
	(17.21%)	(32.19%)	(35.05%)	(0.39%)	(2.42%)	(1.65%)	(11.08%)	(100%)
2019	792	1,563	2,161	19	179	82	545	5,341
	(14.83%)	(29.26%)	(40.46%)	(0.36%)	(3.35%)	(1.54%)	(10.20%)	(100%)
계	5,327	13,034	17,632	210	878	1,029	6,666	44,776
	(11.90%)	(29.11%)	(39.38%)	(0.47%)	(1.96%)	(2.30%)	(14.89%)	(100%)

[부록 1-8] 고양시 전입자 중 70대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123	902	797	12	16	181	866	2,897
	(4.25%)	(31.14%)	(27.51%)	(0.41%)	(0.55%)	(6.25%)	(29.89%)	(100%)
2011	150	889	831	13	8	201	790	2,882
	(5.20%)	(30.85%)	(28.83%)	(0.45%)	(0.28%)	(6.97%)	(27.41%)	(100%)
2012	130	863	893	19	27	178	629	2,739
	(4.75%)	(31.51%)	(32.60%)	(0.69%)	(0.99%)	(6.50%)	(22.96%)	(100%)
2013	186	1,046	1,230	12	89	119	450	3,132
	(5.94%)	(33.40%)	(39.27%)	(0.38%)	(2.84%)	(3.80%)	(14.37%)	(100%)
2014	178	1,215	1,317	14	102	103	141	3,070
	(5.80%)	(39.58%)	(42.90%)	(0.46%)	(3.32%)	(3.36%)	(4.59%)	(100%)
2015	179	1,121	1,622	15	75	85	321	3,418
	(5.24%)	(32.80%)	(47.45%)	(0.44%)	(2.19%)	(2.49%)	(9.39%)	(100%)
2016	181	1,122	1,393	15	59	58	245	3,073
	(5.89%)	(36.51%)	(45.33%)	(0.49%)	(1.92%)	(1.89%)	(7.97%)	(100%)
2017	148	971	1,047	18	68	71	280	2,603
	(5.69%)	(37.30%)	(40.22%)	(0.69%)	(2.61%)	(2.73%)	(10.76%)	(100%)
2018	207	1,035	1,064	12	103	88	335	2,844
	(7.28%)	(36.39%)	(37.41%)	(0.42%)	(3.62%)	(3.09%)	(11.78%)	(100%)
2019	185	1,055	1,214	17	118	84	308	2,981
	(6.21%)	(35.39%)	(40.72%)	(0.57%)	(3.96%)	(2.82%)	(10.33%)	(100%)
계	1,667	10,219	11,408	147	665	1,168	4,365	29,639
	(5.62%)	(34.48%)	(38.49%)	(0.50%)	(2.24%)	(3.94%)	(14.73%)	(100%)

[부록 1-9] 고양시 전입자 중 80대 이상의 연도별 전입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6	457	271	8	10	123	349	1,264
	(3.64%)	(36.16%)	(21.44%)	(0.63%)	(0.79%)	(9.73%)	(27.61%)	(100%)
2011	61	485	315	13	2	143	344	1,363
	(4.48%)	(35.58%)	(23.11%)	(0.95%)	(0.15%)	(10.49%)	(25.24%)	(100%)
2012	43	504	377	7	8	193	300	1,432
	(3.0%)	(35.20%)	(26.33%)	(0.49%)	(0.56%)	(13.48%)	(20.95%)	(100%)
2013	62	631	475	9	61	115	218	1,571
	(3.95%)	(40.17%)	(30.24%)	(0.57%)	(3.88%)	(7.32%)	(13.88%)	(100%)
2014	58	751	535	2	56	112	63	1,577
	(3.68%)	(47.62%)	(33.93%)	(0.13%)	(3.55%)	(7.10%)	(3.99%)	(100%)
2015	65	810	682	6	60	85	207	1,915
	(3.39%)	(42.30%)	(35.61%)	(0.31%)	(3.13%)	(4.44%)	(10.81%)	(100%)
2016	57	794	597	3	40	64	229	1,784
	(3.20%)	(44.51%)	(33.46%)	(0.17%)	(2.24%)	(3.59%)	(12.84%)	(100%)
2017	47	799	523	2	55	59	244	1,729
	(2.72%)	(46.21%)	(30.25%)	(0.12%)	(3.18%)	(3.41%)	(14.11%)	(100%)
2018	74	795	542	7	91	109	297	1,915
	(3.86%)	(41.51%)	(28.30%)	(0.37%)	(4.75%)	(5.69%)	(15.51%)	(100%)
2019	69	865	594	3	131	91	291	2,044
	(3.38%)	(42.32%)	(29.06%)	(0.15%)	(6.41%)	(4.45%)	(14.24%)	(100%)
계	582	6,891	4,911	60	514	1,094	2,542	16,594
	(3.51%)	(41.53%)	(29.60%)	(0.36%)	(3.10%)	(6.59%)	(15.32%)	(100%)

2. 전입사유별 연령대 분석

[부록 1-10]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직업)

(단위: 건, %)

구분	7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6	45	3,369	4,381	2,365	979	348	123	46	11,662
	(0.05%)	(0.39%)	(28.89%)	(37.57%)	(20.28%)	(8.39%)	(2.98%)	(1.05%)	(0.39%)	(100%)
2011	10	61	3,220	4,311	2,609	1,137	328	150	61	11,887
	(0.08%)	(0.51%)	(27.09%)	(36.27%)	(21.95%)	(9.57%)	(2.76%)	(1.26%)	(0.51%)	(100%)
2012	12	35	3,274	4,292	2,664	1,313	345	130	43	12,108
	(0.10%)	(0.29%)	(27.04%)	(35.45%)	(22.0%)	(10.84%)	(2.85%)	(1.07%)	(0.36%)	(100%)
2013	21	89	3,252	4,409	2,865	1,499	470	186	62	12,853
	(0.16%)	(0.69%)	(25.30%)	(34.30%)	(22.29%)	(11.66%)	(3.66%)	(1.45%)	(0.48%)	(100%)
2014	16	86	3,481	4,531	3,144	1,719	581	178	58	13,794
	(0.12%)	(0.62%)	(25.24%)	(32.85%)	(22.79%)	(12.46%)	(4.21%)	(1.29%)	(0.42%)	(100%)
2015	12	89	3,622	4,387	3,148	1,883	586	179	65	13,971
	(0.09%)	(0.64%)	(25.93%)	(31.40%)	(22.53%)	(13.48%)	(4.19%)	(1.28%)	(0.47%)	(100%)
2016	11	83	3,851	4,079	2,928	1,811	527	181	57	13,528
	(0.08%)	(0.61%)	(28.47%)	(30.15%)	(21.64%)	(13.39%)	(3.90%)	(1.34%)	(0.42%)	(100%)
2017	10	106	3,907	3,647	2,645	1,729	555	148	47	12,794
	(0.08%)	(0.83%)	(30.54%)	(28.51%)	(20.67%)	(13.51%)	(4.34%)	(1.16%)	(0.37%)	(100%)
2018	15	102	4,477	3,900	2,821	1,965	795	207	74	14,356
	(0.10%)	(0.71%)	(31.19%)	(27.17%)	(19.65%)	(13.69%)	(5.54%)	(1.44%)	(0.52%)	(100%)
2019	17	107	4,928	3,910	2,697	1,964	792	185	69	14,669
	(0.12%)	(0.73%)	(33.59%)	(26.65%)	(18.39%)	(13.39%)	(5.40%)	(1.26%)	(0.47%)	(100%)
계	130	803	37,381	41,847	27,886	15,999	5,327	1,667	582	131,622
	(0.10%)	(0.61%)	(28.40%)	(31.79%)	(21.19%)	(12.16%)	(4.05%)	(1.27%)	(0.44%)	(100%)

[부록 1-11] 고양시 전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업사유 가족)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372	744	3,187	3,889	2,066	1,371	1,145	902	457	14,133
	(2.63%)	(5.26%)	(22.55%)	(27.52%)	(14.62%)	(9.70%)	(8.10%)	(6.38%)	(3.23%)	(100%)
2011	333	697	3,199	3,793	1,939	1,413	1,102	889	485	13,850
	(2.40%)	(5.03%)	(23.10%)	(27.39%)	(14.0%)	(10.20%)	(7.96%)	(6.42%)	(3.50%)	(100%)
2012	240	666	3,121	3,842	1,830	1,353	956	863	504	13,375
	(1.79%)	(4.98%)	(23.33%)	(28.73%)	(13.68%)	(10.12%)	(7.15%)	(6.45%)	(3.77%)	(100%)
2013	248	672	3,386	4,579	2,220	1,675	1,244	1,046	631	15,701
	(1.58%)	(4.28%)	(21.57%)	(29.16%)	(14.14%)	(10.67%)	(7.92%)	(6.66%)	(4.02%)	(100%)
2014	285	733	3,720	4,827	2,449	1,906	1,337	1,215	751	17,223
	(1.65%)	(4.26%)	(21.60%)	(28.03%)	(14.22%)	(11.07%)	(7.76%)	(7.05%)	(4.36%)	(100%)
2015	261	716	3,893	4,734	2,599	2,021	1,403	1,121	810	17,558
	(1.49%)	(4.08%)	(22.17%)	(26.96%)	(14.80%)	(11.51%)	(7.99%)	(6.38%)	(4.61%)	(100%)
2016	239	624	3,912	4,529	2,316	2,006	1,465	1,122	794	17,007
	(1.41%)	(3.67%)	(23.0%)	(26.63%)	(13.62%)	(11.80%)	(8.61%)	(6.60%)	(4.67%)	(100%)
2017	220	582	3,808	4,081	2,160	1,787	1,332	971	799	15,740
	(1.40%)	(3.70%)	(24.19%)	(25.93%)	(13.72%)	(11.35%)	(8.46%)	(6.17%)	(5.08%)	(100%)
2018	201	589	3,736	4,087	2,222	1,868	1,487	1,035	795	16,020
	(1.25%)	(3.68%)	(23.32%)	(25.51%)	(13.87%)	(11.66%)	(9.28%)	(6.46%)	(4.96%)	(100%)
2019	201	564	4,610	4,927	2,496	2,176	1,563	1,055	865	18,457
	(1.09%)	(3.06%)	(24.98%)	(26.69%)	(13.52%)	(11.79%)	(8.47%)	(5.72%)	(4.69%)	(100%)
계	2,600	6,587	36,572	43,288	22,297	17,576	13,034	10,219	6,891	159,064
	(1.63%)	(4.14%)	(22.99%)	(27.21%)	(14.02%)	(11.05%)	(8.19%)	(6.42%)	(4.33%)	(100%)

[부록 1-12]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주택)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25	76	1,806	4,844	3,400	2,157	1,278	797	271	14,654
	(0.17%)	(0.52%)	(12.32%)	(33.06%)	(23.20%)	(14.72%)	(8.72%)	(5.44%)	(1.85%)	(100%)
2011	40	89	1,678	5,087	3,491	2,137	1,394	831	315	15,062
	(0.27%)	(0.59%)	(11.14%)	(33.77%)	(23.18%)	(14.19%)	(9.26%)	(5.52%)	(2.09%)	(100%)
2012	41	118	1,593	4,488	3,339	2,342	1,312	893	377	14,503
	(0.28%)	(0.81%)	(10.98%)	(30.95%)	(23.02%)	(16.15%)	(9.05%)	(6.16%)	(2.60%)	(100%)
2013	35	82	1,494	5,216	4,055	2,914	1,754	1,230	475	17,255
	(0.20%)	(0.48%)	(8.66%)	(30.23%)	(23.50%)	(16.89%)	(10.17%)	(7.13%)	(2.75%)	(100%)
2014	34	87	1,505	5,405	4,319	3,239	1,916	1,317	535	18,357
	(0.19%)	(0.47%)	(8.20%)	(29.44%)	(23.53%)	(17.64%)	(10.44%)	(7.17%)	(2.91%)	(100%)
2015	41	108	1,651	5,261	4,316	3,564	2,409	1,622	682	19,654
	(0.21%)	(0.55%)	(8.40%)	(26.77%)	(21.96%)	(18.13%)	(12.26%)	(8.25%)	(3.47%)	(100%)
2016	31	113	1,817	4,498	3,730	3,073	2,115	1,393	597	17,367
	(0.18%)	(0.65%)	(10.46%)	(25.90%)	(21.48%)	(17.69%)	(12.18%)	(8.02%)	(3.44%)	(100%)
2017	35	92	1,570	3,638	3,130	2,407	1,674	1,047	523	14,116
	(0.25%)	(0.65%)	(11.12%)	(25.77%)	(22.17%)	(17.05%)	(11.86%)	(7.42%)	(3.71%)	(100%)
2018	27	61	1,360	3,478	2,901	2,327	1,619	1,064	542	13,379
	(0.20%)	(0.46%)	(10.17%)	(26.0%)	(21.68%)	(17.39%)	(12.10%)	(7.95%)	(4.05%)	(100%)
2019	23	91	1,867	4,834	3,795	3,202	2,161	1,214	594	17,781
	(0.13%)	(0.51%)	(10.50%)	(27.19%)	(21.34%)	(18.01%)	(12.15%)	(6.83%)	(3.34%)	(100%)
계	332	917	16,341	46,749	36,476	27,362	17,632	11,408	4,911	162,128
	(0.20%)	(0.57%)	(10.08%)	(28.83%)	(22.50%)	(16.88%)	(10.88%)	(7.04%)	(3.03%)	(100%)

[부록 1-13]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교육)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62	293	353	269	334	65	26	12	8	1,522
	(10,64%)	(19,25%)	(23,19%)	(17,67%)	(21,94%)	(4,27%)	(1,71%)	(0,79%)	(0,53%)	(100%)
2011	125	262	397	293	396	94	24	13	13	1,617
	(7,73%)	(16,20%)	(24,55%)	(18,12%)	(24,49%)	(5,81%)	(1,48%)	(0,80%)	(0,80%)	(100%)
2012	148	318	427	318	414	98	31	19	7	1,780
	(8,31%)	(17,87%)	(23,99%)	(17,87%)	(23,26%)	(5,51%)	(1,74%)	(1,07%)	(0,39%)	(100%)
2013	127	302	427	266	394	97	23	12	9	1,657
	(7,66%)	(18,23%)	(25,77%)	(16,05%)	(23,78%)	(5,85%)	(1,39%)	(0,72%)	(0,54%)	(100%)
2014	138	276	390	238	369	92	19	14	2	1,538
	(8,97%)	(17,95%)	(25,36%)	(15,47%)	(23,99%)	(5,98%)	(1,24%)	(0,91%)	(0,13%)	(100%)
2015	120	298	484	228	320	71	12	15	6	1,554
	(7,72%)	(19,18%)	(31,15%)	(14,67%)	(20,59%)	(4,57%)	(0,77%)	(0,97%)	(0,39%)	(100%)
2016	106	254	470	204	280	63	13	15	3	1,408
	(7,53%)	(18,04%)	(33,38%)	(14,49%)	(19,89%)	(4,47%)	(0,92%)	(1,07%)	(0,21%)	(100%)
2017	99	259	521	158	285	56	25	18	2	1,423
	(6,96%)	(18,20%)	(36,61%)	(11,10%)	(20,03%)	(3,94%)	(1,76%)	(1,26%)	(0,14%)	(100%)
2018	92	268	451	181	289	87	18	12	7	1,405
	(6,55%)	(19,07%)	(32,10%)	(12,88%)	(20,57%)	(6,19%)	(1,28%)	(0,85%)	(0,50%)	(100%)
2019	75	394	772	194	330	82	19	17	3	1,886
	(3,98%)	(20,89%)	(40,93%)	(10,29%)	(17,50%)	(4,35%)	(1,01%)	(0,90%)	(0,16%)	(100%)
계	1,192	2,924	4,692	2,349	3,411	805	210	147	60	15,790
	(7,55%)	(18,52%)	(29,72%)	(14,88%)	(21,60%)	(5,10%)	(1,33%)	(0,93%)	(0,38%)	(100%)

[부록 1-14]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주거환경)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	10	107	189	97	52	26	16	10	508
	(0,20%)	(1,97%)	(21,06%)	(37,20%)	(19,09%)	(10,24%)	(5,12%)	(3,15%)	(1,97%)	(100%)
2011	1	14	131	183	133	84	30	8	2	586
	(0,17%)	(2,39%)	(22,35%)	(31,23%)	(22,70%)	(14,33%)	(5,12%)	(1,37%)	(0,34%)	(100%)
2012	2	15	160	212	150	89	23	27	8	686
	(0,29%)	(2,19%)	(23,32%)	(30,90%)	(21,87%)	(12,97%)	(3,35%)	(3,94%)	(1,17%)	(100%)
2013	6	18	203	412	242	154	91	89	61	1,276
	(0,47%)	(1,41%)	(15,91%)	(32,29%)	(18,97%)	(12,07%)	(7,13%)	(6,97%)	(4,78%)	(100%)
2014	8	19	226	454	301	158	124	102	56	1,448
	(0,55%)	(1,31%)	(15,61%)	(31,35%)	(20,79%)	(10,91%)	(8,56%)	(7,04%)	(3,87%)	(100%)
2015	7	16	223	339	214	161	100	75	60	1,195
	(0,59%)	(1,34%)	(18,66%)	(28,37%)	(17,91%)	(13,47%)	(8,37%)	(6,28%)	(5,02%)	(100%)
2016	5	23	212	296	185	118	86	59	40	1,024
	(0,49%)	(2,25%)	(20,70%)	(28,91%)	(18,07%)	(11,52%)	(8,40%)	(5,76%)	(3,91%)	(100%)
2017	8	20	291	362	234	167	107	68	55	1,312
	(0,61%)	(1,52%)	(22,18%)	(27,59%)	(17,84%)	(12,73%)	(8,16%)	(5,18%)	(4,19%)	(100%)
2018	6	25	315	447	280	214	112	103	91	1,593
	(0,38%)	(1,57%)	(19,77%)	(28,06%)	(17,58%)	(13,43%)	(7,03%)	(6,47%)	(5,71%)	(100%)
2019	6	38	468	696	399	283	179	118	131	2,318
	(0,26%)	(1,64%)	(20,19%)	(30,03%)	(17,21%)	(12,21%)	(7,72%)	(5,09%)	(5,65%)	(100%)
계	50	198	2,336	3,590	2,235	1,480	878	665	514	11,946
	(0,42%)	(1,66%)	(19,55%)	(30,05%)	(18,71%)	(12,39%)	(7,35%)	(5,57%)	(4,30%)	(100%)

[부록 1-15]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자연환경)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5	7	31	89	85	104	134	181	123	759
	(0.66%)	(0.92%)	(4.08%)	(11.73%)	(11.20%)	(13.70%)	(17.65%)	(23.85%)	(16.21%)	(100%)
2011	0	11	21	72	89	131	166	201	143	834
	(0.0%)	(1.32%)	(2.52%)	(8.63%)	(10.67%)	(15.71%)	(19.90%)	(24.10%)	(17.15%)	(100%)
2012	7	2	15	85	106	132	145	178	193	863
	(0.81%)	(0.23%)	(1.74%)	(9.85%)	(12.28%)	(15.30%)	(16.80%)	(20.63%)	(22.36%)	(100%)
2013	1	4	20	83	97	106	93	119	115	638
	(0.16%)	(0.63%)	(3.13%)	(13.01%)	(15.20%)	(16.61%)	(14.58%)	(18.65%)	(18.03%)	(100%)
2014	1	5	29	98	111	111	102	103	112	672
	(0.15%)	(0.74%)	(4.32%)	(14.58%)	(16.52%)	(16.52%)	(15.18%)	(15.33%)	(16.67%)	(100%)
2015	1	3	36	70	79	90	100	85	85	549
	(0.18%)	(0.55%)	(6.56%)	(12.75%)	(14.39%)	(16.39%)	(18.21%)	(15.48%)	(15.48%)	(100%)
2016	0	2	29	57	59	63	66	58	64	398
	(0.0%)	(0.50%)	(7.29%)	(14.32%)	(14.82%)	(15.83%)	(16.58%)	(14.57%)	(16.08%)	(100%)
2017	4	5	23	74	67	81	65	71	59	449
	(0.89%)	(1.11%)	(5.12%)	(16.48%)	(14.92%)	(18.04%)	(14.48%)	(15.81%)	(13.14%)	(100%)
2018	3	6	33	73	77	92	76	88	109	557
	(0.54%)	(1.08%)	(5.92%)	(13.11%)	(13.82%)	(16.52%)	(13.64%)	(15.80%)	(19.57%)	(100%)
2019	1	8	20	75	80	97	82	84	91	538
	(0.19%)	(1.49%)	(3.72%)	(13.94%)	(14.87%)	(18.03%)	(15.24%)	(15.61%)	(16.91%)	(100%)
계	23	53	257	776	850	1,007	1,029	1,168	1,094	6,257
	(0.37%)	(0.85%)	(4.11%)	(12.40%)	(13.58%)	(16.09%)	(16.45%)	(18.67%)	(17.48%)	(100%)

[부록 1-16] 고양시 전입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입사유: 기타)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44	380	3,100	4,930	3,341	2,009	1,297	866	349	16,416
	(0,88%)	(2,31%)	(18,88%)	(30,03%)	(20,35%)	(12,24%)	(7,90%)	(5,28%)	(2,13%)	(100%)
2011	130	336	2,395	3,984	3,029	1,981	1,173	790	344	14,162
	(0,92%)	(2,37%)	(16,91%)	(28,13%)	(21,39%)	(13,99%)	(8,28%)	(5,58%)	(2,43%)	(100%)
2012	125	259	1,713	2,997	2,360	1,712	996	629	300	11,091
	(1,13%)	(2,34%)	(15,44%)	(27,02%)	(21,28%)	(15,44%)	(8,98%)	(5,67%)	(2,70%)	(100%)
2013	63	135	873	1,696	1,391	1,051	627	450	218	6,504
	(0,97%)	(2,08%)	(13,42%)	(26,08%)	(21,39%)	(16,16%)	(9,64%)	(6,92%)	(3,35%)	(100%)
2014	21	47	340	580	537	336	192	141	63	2,257
	(0,93%)	(2,08%)	(15,06%)	(25,70%)	(23,79%)	(14,89%)	(8,51%)	(6,25%)	(2,79%)	(100%)
2015	36	90	604	942	942	747	441	321	207	4,330
	(0,83%)	(2,08%)	(13,95%)	(21,76%)	(21,76%)	(17,25%)	(10,18%)	(7,41%)	(4,78%)	(100%)
2016	48	67	585	889	883	707	450	245	229	4,103
	(1,17%)	(1,63%)	(14,26%)	(21,67%)	(21,52%)	(17,23%)	(10,97%)	(5,97%)	(5,58%)	(100%)
2017	31	78	691	951	888	718	433	280	244	4,314
	(0,72%)	(1,81%)	(16,02%)	(22,04%)	(20,58%)	(16,64%)	(10,04%)	(6,49%)	(5,66%)	(100%)
2018	34	70	687	990	937	800	512	335	297	4,662
	(0,73%)	(1,50%)	(14,74%)	(21,24%)	(20,10%)	(17,16%)	(10,98%)	(7,19%)	(6,37%)	(100%)
2019	29	79	554	807	842	718	545	308	291	4,173
	(0,69%)	(1,89%)	(13,28%)	(19,34%)	(20,18%)	(17,21%)	(13,06%)	(7,38%)	(6,97%)	(100%)
계	661	1,541	11,542	18,766	15,150	10,779	6,666	4,365	2,542	72,012
	(0,92%)	(2,14%)	(16,03%)	(26,06%)	(21,04%)	(14,97%)	(9,26%)	(6,06%)	(3,53%)	(100%)

(단위: 킷 %)

[부록 2-17] 고양시 전입지의 전출지

전출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비율
파주시	5,536	5,576	5,497	5,954	5,596	5,900	5,669	5,063	5,093	6,095	55,979	10.02%
부천시	1,334	1,292	1,144	1,182	1,090	1,146	1,038	981	1,013	1,220	11,440	2.05%
김포시	795	796	894	1,050	1,104	1,207	1,218	1,044	1,221	1,665	10,994	1.97%
성남시	1,083	1,050	944	938	961	971	916	841	823	869	9,396	1.68%
용인시	982	956	946	905	935	933	830	854	860	935	9,136	1.63%
수원시	896	839	811	711	770	847	749	765	708	850	7,946	1.42%
남양주시	663	720	658	704	710	808	695	599	680	673	6,910	1.24%
의정부시	781	766	682	669	693	714	668	585	582	698	6,838	1.22%
안양시	589	610	524	481	564	578	498	461	448	491	5,244	0.94%
안산시	575	586	546	533	513	519	477	467	450	446	5,112	0.91%
양주시	518	540	507	499	481	499	478	405	438	515	4,880	0.87%
광명시	400	428	455	448	443	423	380	356	362	441	4,136	0.74%
화성시	430	385	368	364	313	321	352	353	384	538	3,808	0.68%
시흥시	400	358	339	375	318	329	303	296	300	399	3,417	0.61%
평택시	250	245	226	244	270	240	243	258	245	335	2,556	0.46%
광주시	260	224	260	243	278	239	259	221	253	292	2,529	0.45%
군포시	289	263	248	250	261	263	219	209	182	216	2,400	0.43%
포천시	250	250	211	224	184	218	197	209	175	188	2,106	0.38%
구리시	209	210	203	178	163	183	186	148	156	185	1,821	0.33%
하남시	160	142	134	121	131	157	149	175	170	266	1,605	0.29%
이천시	131	133	159	155	151	146	153	159	164	196	1,547	0.28%
양평군	118	125	164	163	148	127	156	132	152	194	1,479	0.26%
동두천시	146	161	151	149	130	138	135	125	122	122	1,379	0.25%
의왕시	124	133	114	134	134	153	111	124	115	116	1,258	0.23%
오산시	109	120	141	120	134	127	112	116	119	150	1,248	0.22%
안성시	141	117	126	138	116	120	110	110	120	130	1,228	0.22%
연천군	100	94	94	99	103	128	117	104	98	102	1,039	0.19%
가평군	73	95	97	94	91	113	81	100	108	110	962	0.17%

정 기 도

서울특별시															
과천시	98	86	74	75	79	90	85	85	55	60	787	0.14%			
여주시	0	0	0	21	76	105	94	100	73	88	557	0.10%			
여주군	69	86	80	49	0	0	0	0	0	0	284	0.05%			
소계	17,509	17,386	16,797	17,270	16,940	17,742	16,678	15,445	15,669	18,585	170,021	30.43%			
은평구	4,494	4,051	4,217	4,877	5,283	5,697	4,985	4,560	4,895	5,922	48,981	8.77%			
마포구	2,283	2,276	1,907	1,947	2,045	2,164	2,109	1,731	1,809	2,413	20,684	3.70%			
강서구	2,043	1,851	1,600	1,709	1,625	1,839	1,746	1,536	1,793	2,314	18,056	3.23%			
서대문구	2,052	1,778	1,616	1,733	1,702	1,856	1,782	1,552	1,644	2,009	17,724	3.17%			
관악구	1,299	1,244	1,079	1,118	1,068	1,117	1,021	996	1,046	1,143	11,131	1.99%			
영등포구	1,165	1,122	1,046	1,059	961	1,041	978	854	844	987	10,057	1.80%			
강남구	1,159	1,117	1,029	1,005	940	1,052	1,026	918	813	848	9,907	1.77%			
양천구	1,203	1,131	950	947	928	996	994	796	818	988	9,751	1.74%			
성북구	946	945	959	910	879	937	749	687	740	823	8,575	1.53%			
송파구	1,091	1,032	862	881	858	853	793	676	729	742	8,517	1.52%			
노원구	893	934	818	874	798	787	751	631	667	761	7,914	1.42%			
동작구	867	834	703	806	723	851	793	730	676	750	7,733	1.38%			
구로구	797	834	734	816	740	800	693	608	673	742	7,437	1.33%			
서초구	873	911	775	707	683	745	616	613	686	642	7,251	1.30%			
용산구	762	785	672	705	730	726	680	592	648	688	6,988	1.25%			
동대문구	641	612	596	616	578	672	543	467	509	605	5,839	1.04%			
강동구	641	657	566	567	537	676	560	464	422	501	5,591	1.00%			
광진구	626	619	530	569	548	602	519	480	489	564	5,546	0.99%			
성동구	576	651	514	541	625	555	486	452	470	563	5,433	0.97%			
강북구	545	534	552	549	550	538	501	440	464	488	5,161	0.92%			
종로구	603	535	530	547	537	542	463	450	451	481	5,139	0.92%			
도봉구	511	571	506	522	500	512	479	414	413	460	4,888	0.87%			
중랑구	534	525	478	476	457	530	464	410	436	478	4,788	0.86%			
금천구	360	326	346	340	311	359	330	305	261	370	3,308	0.59%			
중구	343	345	358	352	341	356	277	241	284	331	3,228	0.58%			
소계	27,307	26,220	23,943	25,173	24,947	26,803	24,338	21,603	22,680	26,613	249,627	44.67%			

인천광역시													
서구	500	510	459	625	635	711	689	580	601	746	6,056	1.08%	
부평구	608	588	514	532	529	510	506	476	472	533	5,268	0.94%	
계양구	507	475	469	474	492	478	424	368	389	386	4,462	0.80%	
남동구	377	341	379	382	351	375	411	323	367	436	3,742	0.67%	
남구	348	328	298	294	288	327	316	322	151	0	2,672	0.48%	
연수구	200	222	213	199	201	245	257	242	212	322	2,313	0.41%	
중구	149	142	100	126	158	194	175	178	168	170	1,560	0.28%	
강화군	125	109	137	91	120	108	128	105	131	132	1,186	0.21%	
미추홀구	0	0	0	0	0	0	0	0	139	363	502	0.09%	
동구	38	38	39	44	35	48	38	35	28	37	380	0.07%	
옹진군	21	31	30	37	19	27	30	20	25	27	267	0.05%	
소계	2,873	2,784	2,638	2,804	2,828	3,023	2,974	2,649	2,683	3,152	28,408	5.08%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47,689	46,390	43,378	45,247	44,715	47,568	43,990	39,697	41,032	48,350	448,056	80.18%	
비수도권	11,965	11,608	11,028	10,637	10,574	11,243	10,845	10,451	10,940	11,472	110,763	19.82%	
총합(전국)	59,654	57,998	54,406	55,884	55,289	58,811	54,835	50,148	51,972	59,822	558,819	100%	

부록2. 전출사례 분석

1. 연령별 전출사유 분석

[부록 2-1] 고양시 전출자 중 10대 미만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20	314	38	168	4	2	157	703
	(2.84%)	(44.67%)	(5.41%)	(23.90%)	(0.57%)	(0.28%)	(22.33%)	(100%)
2011	10	259	43	127	2	5	92	538
	(1.86%)	(48.14%)	(7.99%)	(23.61%)	(0.37%)	(0.93%)	(17.10%)	(100%)
2012	14	259	41	146	0	2	105	567
	(2.47%)	(45.68%)	(7.23%)	(25.75%)	(0.0%)	(0.35%)	(18.52%)	(100%)
2013	9	238	19	127	3	1	65	462
	(1.95%)	(51.52%)	(4.11%)	(27.49%)	(0.65%)	(0.22%)	(14.07%)	(100%)
2014	11	243	16	127	8	2	28	435
	(2.53%)	(55.86%)	(3.68%)	(29.20%)	(1.84%)	(0.46%)	(6.44%)	(100%)
2015	12	243	22	117	2	3	25	424
	(2.83%)	(57.31%)	(5.19%)	(27.59%)	(0.47%)	(0.71%)	(5.90%)	(100%)
2016	18	211	17	127	2	0	23	398
	(4.52%)	(53.02%)	(4.27%)	(31.91%)	(0.50%)	(0.0%)	(5.78%)	(100%)
2017	16	226	21	95	10	1	31	400
	(4.0%)	(56.50%)	(5.25%)	(23.75%)	(2.50%)	(0.25%)	(7.75%)	(100%)
2018	18	195	20	90	4	2	27	356
	(5.06%)	(54.78%)	(5.62%)	(25.28%)	(1.12%)	(0.56%)	(7.58%)	(100%)
2019	15	184	15	92	6	3	17	332
	(4.52%)	(55.42%)	(4.52%)	(27.71%)	(1.81%)	(0.90%)	(5.12%)	(100%)
계	143	2,372	252	1,216	41	21	570	4,615
	(3.10%)	(51.40%)	(5.46%)	(26.35%)	(0.89%)	(0.46%)	(12.35%)	(100%)

[부록 2-2] 고양시 전출자 중 1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5	512	98	638	20	9	306	1,628
	(2.76%)	(31.45%)	(6.02%)	(39.19%)	(1.23%)	(0.55%)	(18.80%)	(100%)
2011	59	496	92	662	24	6	298	1,637
	(3.60%)	(30.30%)	(5.62%)	(40.44%)	(1.47%)	(0.37%)	(18.20%)	(100%)
2012	58	457	89	769	19	10	194	1,596
	(3.63%)	(28.63%)	(5.58%)	(48.18%)	(1.19%)	(0.63%)	(12.16%)	(100%)
2013	55	442	68	733	13	2	99	1,412
	(3.90%)	(31.30%)	(4.82%)	(51.91%)	(0.92%)	(0.14%)	(7.01%)	(100%)
2014	78	440	75	761	16	7	41	1,418
	(5.50%)	(31.03%)	(5.29%)	(53.67%)	(1.13%)	(0.49%)	(2.89%)	(100%)
2015	89	435	80	682	24	6	50	1,366
	(6.52%)	(31.84%)	(5.86%)	(49.93%)	(1.76%)	(0.44%)	(3.66%)	(100%)
2016	82	437	77	704	18	3	54	1,375
	(5.96%)	(31.78%)	(5.60%)	(51.20%)	(1.31%)	(0.22%)	(3.93%)	(100%)
2017	86	378	72	713	17	9	55	1,330
	(6.47%)	(28.42%)	(5.41%)	(53.61%)	(1.28%)	(0.68%)	(4.14%)	(100%)
2018	114	388	75	717	26	1	59	1,380
	(8.26%)	(28.12%)	(5.43%)	(51.96%)	(1.88%)	(0.07%)	(4.28%)	(100%)
2019	115	367	67	811	33	7	71	1,471
	(7.82%)	(24.95%)	(4.55%)	(55.13%)	(2.24%)	(0.48%)	(4.83%)	(100%)
계	781	4,352	793	7,190	210	60	1,227	14,613
	(5.34%)	(29.78%)	(5.43%)	(49.20%)	(1.44%)	(0.41%)	(8.40%)	(100%)

[부록 2-3] 고양시 전출자 중 2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2,684	3,171	1,847	495	126	28	2,054	10,405
	(25.80%)	(30.48%)	(17.75%)	(4.76%)	(1.21%)	(0.27%)	(19.74%)	(100%)
2011	2,376	3,048	1,627	488	126	31	1,890	9,586
	(24.79%)	(31.80%)	(16.97%)	(5.09%)	(1.31%)	(0.32%)	(19.72%)	(100%)
2012	2,633	2,974	1,310	634	114	39	1,463	9,167
	(28.72%)	(32.44%)	(14.29%)	(6.92%)	(1.24%)	(0.43%)	(15.96%)	(100%)
2013	2,888	2,997	1,100	704	145	25	702	8,561
	(33.73%)	(35.01%)	(12.85%)	(8.22%)	(1.69%)	(0.29%)	(8.20%)	(100%)
2014	3,399	3,214	1,263	770	160	22	312	9,140
	(37.19%)	(35.16%)	(13.82%)	(8.42%)	(1.75%)	(0.24%)	(3.41%)	(100%)
2015	3,730	3,230	1,182	863	167	40	304	9,516
	(39.20%)	(33.94%)	(12.42%)	(9.07%)	(1.75%)	(0.42%)	(3.19%)	(100%)
2016	4,096	3,029	1,190	987	191	26	412	9,931
	(41.24%)	(30.50%)	(11.98%)	(9.94%)	(1.92%)	(0.26%)	(4.15%)	(100%)
2017	4,519	3,230	1,354	1,173	318	37	546	11,177
	(40.43%)	(28.90%)	(12.11%)	(10.49%)	(2.85%)	(0.33%)	(4.89%)	(100%)
2018	5,166	3,392	1,458	1,232	399	43	640	12,330
	(41.90%)	(27.51%)	(11.82%)	(9.99%)	(3.24%)	(0.35%)	(5.19%)	(100%)
2019	5,667	3,533	1,383	1,412	448	33	506	12,982
	(43.65%)	(27.21%)	(10.65%)	(10.88%)	(3.45%)	(0.25%)	(3.90%)	(100%)
계	37,158	31,818	13,714	8,758	2,194	324	8,829	102,795
	(36.15%)	(30.95%)	(13.34%)	(8.52%)	(2.13%)	(0.32%)	(8.59%)	(100%)

[부록 2-4] 고양시 전출자 중 3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899	3,602	4,941	235	177	96	3,786	16,736
	(23.30%)	(21.52%)	(29.52%)	(1.40%)	(1.06%)	(0.57%)	(22.62%)	(100%)
2011	3,686	3,589	4,628	216	204	87	3,247	15,657
	(23.54%)	(22.92%)	(29.56%)	(1.38%)	(1.30%)	(0.56%)	(20.74%)	(100%)
2012	3,930	3,603	3,824	246	162	80	2,804	14,649
	(26.83%)	(24.60%)	(26.10%)	(1.68%)	(1.11%)	(0.55%)	(19.14%)	(100%)
2013	4,185	3,892	3,418	207	230	63	1,361	13,356
	(31.33%)	(29.14%)	(25.59%)	(1.55%)	(1.72%)	(0.47%)	(10.19%)	(100%)
2014	4,354	4,099	3,750	225	258	70	531	13,287
	(32.77%)	(30.85%)	(28.22%)	(1.69%)	(1.94%)	(0.53%)	(4.0%)	(100%)
2015	4,321	3,937	3,424	163	250	69	520	12,684
	(34.07%)	(31.04%)	(26.99%)	(1.29%)	(1.97%)	(0.54%)	(4.10%)	(100%)
2016	4,299	3,980	3,151	173	274	62	615	12,554
	(34.24%)	(31.70%)	(25.10%)	(1.38%)	(2.18%)	(0.49%)	(4.90%)	(100%)
2017	4,209	3,741	3,231	166	364	69	694	12,474
	(33.74%)	(29.99%)	(25.90%)	(1.33%)	(2.92%)	(0.55%)	(5.56%)	(100%)
2018	4,087	3,858	3,207	177	445	82	772	12,628
	(32.36%)	(30.55%)	(25.40%)	(1.40%)	(3.52%)	(0.65%)	(6.11%)	(100%)
2019	4,059	3,804	2,326	178	420	64	607	11,458
	(35.43%)	(33.20%)	(20.30%)	(1.55%)	(3.67%)	(0.56%)	(5.30%)	(100%)
계	41,029	38,105	35,900	1,986	2,784	742	14,937	135,483
	(30.28%)	(28.13%)	(26.50%)	(1.47%)	(2.05%)	(0.55%)	(11.02%)	(100%)

[부록 2-5] 고양시 전출자 중 4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2,524	1,977	4,538	339	142	114	3,173	12,807
	(19.71%)	(15.44%)	(35.43%)	(2.65%)	(1.11%)	(0.89%)	(24.78%)	(100%)
2011	2,558	1,918	3,935	313	133	131	2,786	11,774
	(21.73%)	(16.29%)	(33.42%)	(2.66%)	(1.13%)	(1.11%)	(23.66%)	(100%)
2012	2,724	1,904	3,387	364	138	127	2,391	11,035
	(24.69%)	(17.25%)	(30.69%)	(3.30%)	(1.25%)	(1.15%)	(21.67%)	(100%)
2013	3,155	2,119	3,087	369	179	97	1,213	10,219
	(30.87%)	(20.74%)	(30.21%)	(3.61%)	(1.75%)	(0.95%)	(11.87%)	(100%)
2014	3,516	2,196	3,551	355	211	120	545	10,494
	(33.50%)	(20.93%)	(33.84%)	(3.38%)	(2.01%)	(1.14%)	(5.19%)	(100%)
2015	3,526	2,326	3,333	382	188	92	560	10,407
	(33.88%)	(22.35%)	(32.03%)	(3.67%)	(1.81%)	(0.88%)	(5.38%)	(100%)
2016	3,386	2,226	2,942	336	204	104	674	9,872
	(34.30%)	(22.55%)	(29.80%)	(3.40%)	(2.07%)	(1.05%)	(6.83%)	(100%)
2017	3,061	2,041	2,783	328	247	99	710	9,269
	(33.02%)	(22.02%)	(30.02%)	(3.54%)	(2.66%)	(1.07%)	(7.66%)	(100%)
2018	2,990	2,052	2,782	322	312	107	759	9,324
	(32.07%)	(22.01%)	(29.84%)	(3.45%)	(3.35%)	(1.15%)	(8.14%)	(100%)
2019	2,954	2,043	2,151	298	315	115	695	8,571
	(34.47%)	(23.84%)	(25.10%)	(3.48%)	(3.68%)	(1.34%)	(8.11%)	(100%)
계	30,394	20,802	32,489	3,406	2,069	1,106	13,506	103,772
	(29.29%)	(20.05%)	(31.31%)	(3.28%)	(1.99%)	(1.07%)	(13.02%)	(100%)

[부록 2-6] 고양시 전출자 중 5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1,230	1,274	2,831	80	65	115	1,911	7,506
	(16.39%)	(16.97%)	(37.72%)	(1.07%)	(0.87%)	(1.53%)	(25.46%)	(100%)
2011	1,288	1,323	2,676	95	100	117	1,689	7,288
	(17.67%)	(18.15%)	(36.72%)	(1.30%)	(1.37%)	(1.61%)	(23.18%)	(100%)
2012	1,513	1,247	2,449	114	90	143	1,696	7,252
	(20.86%)	(17.20%)	(33.77%)	(1.57%)	(1.24%)	(1.97%)	(23.39%)	(100%)
2013	1,755	1,458	2,417	89	141	124	811	6,795
	(25.83%)	(21.46%)	(35.57%)	(1.31%)	(2.08%)	(1.82%)	(11.94%)	(100%)
2014	2,031	1,681	2,796	106	144	121	375	7,254
	(28.0%)	(23.17%)	(38.54%)	(1.46%)	(1.99%)	(1.67%)	(5.17%)	(100%)
2015	2,195	1,708	2,929	102	150	130	498	7,712
	(28.46%)	(22.15%)	(37.98%)	(1.32%)	(1.95%)	(1.69%)	(6.46%)	(100%)
2016	2,127	1,747	2,653	103	156	142	586	7,514
	(28.31%)	(23.25%)	(35.31%)	(1.37%)	(2.08%)	(1.89%)	(7.80%)	(100%)
2017	2,108	1,629	2,620	107	200	160	575	7,399
	(28.49%)	(22.02%)	(35.41%)	(1.45%)	(2.70%)	(2.16%)	(7.77%)	(100%)
2018	2,138	1,763	2,577	137	222	160	615	7,612
	(28.09%)	(23.16%)	(33.85%)	(1.80%)	(2.92%)	(2.10%)	(8.08%)	(100%)
2019	2,207	1,677	2,131	127	252	177	591	7,162
	(30.82%)	(23.42%)	(29.75%)	(1.77%)	(3.52%)	(2.47%)	(8.25%)	(100%)
계	18,592	15,507	26,079	1,060	1,520	1,389	9,347	73,494
	(25.30%)	(21.10%)	(35.48%)	(1.44%)	(2.07%)	(1.89%)	(12.72%)	(100%)

[부록 2-7] 고양시 전출자 중 6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363	1,045	1,526	20	31	112	1,100	4,197
	(8.65%)	(24.90%)	(36.36%)	(0.48%)	(0.74%)	(2.67%)	(26.21%)	(100%)
2011	328	911	1,472	15	31	128	980	3,865
	(8.49%)	(23.57%)	(38.09%)	(0.39%)	(0.80%)	(3.31%)	(25.36%)	(100%)
2012	369	914	1,198	14	28	135	881	3,539
	(10.43%)	(25.83%)	(33.85%)	(0.40%)	(0.79%)	(3.81%)	(24.89%)	(100%)
2013	454	1,029	1,322	16	71	95	447	3,434
	(13.22%)	(29.97%)	(38.50%)	(0.47%)	(2.07%)	(2.77%)	(13.02%)	(100%)
2014	560	1,171	1,423	26	88	129	181	3,578
	(15.65%)	(32.73%)	(39.77%)	(0.73%)	(2.46%)	(3.61%)	(5.06%)	(100%)
2015	633	1,132	1,613	14	114	139	227	3,872
	(16.35%)	(29.24%)	(41.66%)	(0.36%)	(2.94%)	(3.59%)	(5.86%)	(100%)
2016	644	1,263	1,596	21	84	112	276	3,996
	(16.12%)	(31.61%)	(39.94%)	(0.53%)	(2.10%)	(2.80%)	(6.91%)	(100%)
2017	672	1,118	1,560	20	144	125	342	3,981
	(16.88%)	(28.08%)	(39.19%)	(0.50%)	(3.62%)	(3.14%)	(8.59%)	(100%)
2018	803	1,222	1,642	23	147	150	342	4,329
	(18.55%)	(28.23%)	(37.93%)	(0.53%)	(3.40%)	(3.47%)	(7.90%)	(100%)
2019	893	1,261	1,323	24	158	146	377	4,182
	(21.35%)	(30.15%)	(31.64%)	(0.57%)	(3.78%)	(3.49%)	(9.01%)	(100%)
계	5,719	11,066	14,675	193	896	1,271	5,153	38,973
	(14.67%)	(28.39%)	(37.65%)	(0.50%)	(2.30%)	(3.26%)	(13.22%)	(100%)

[부록 2-8] 고양시 전출자 중 70대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131	789	1,080	15	9	131	700	2,855
	(4.59%)	(27.64%)	(37.83%)	(0.53%)	(0.32%)	(4.59%)	(24.52%)	(100%)
2011	132	690	1,007	9	14	121	666	2,639
	(5.0%)	(26.15%)	(38.16%)	(0.34%)	(0.53%)	(4.59%)	(25.24%)	(100%)
2012	140	742	827	10	13	141	564	2,437
	(5.74%)	(30.45%)	(33.94%)	(0.41%)	(0.53%)	(5.79%)	(23.14%)	(100%)
2013	183	958	918	14	63	90	283	2,509
	(7.29%)	(38.18%)	(36.59%)	(0.56%)	(2.51%)	(3.59%)	(11.28%)	(100%)
2014	176	888	1,005	7	74	103	108	2,361
	(7.45%)	(37.61%)	(42.57%)	(0.30%)	(3.13%)	(4.36%)	(4.57%)	(100%)
2015	195	827	1,022	14	70	95	153	2,376
	(8.21%)	(34.81%)	(43.01%)	(0.59%)	(2.95%)	(4.0%)	(6.44%)	(100%)
2016	191	891	976	10	57	76	199	2,400
	(7.96%)	(37.13%)	(40.67%)	(0.42%)	(2.38%)	(3.17%)	(8.29%)	(100%)
2017	194	800	898	15	66	97	161	2,231
	(8.70%)	(35.86%)	(40.25%)	(0.67%)	(2.96%)	(4.35%)	(7.22%)	(100%)
2018	166	766	881	14	88	85	193	2,193
	(7.57%)	(34.93%)	(40.17%)	(0.64%)	(4.01%)	(3.88%)	(8.80%)	(100%)
2019	201	768	704	12	88	92	189	2,054
	(9.79%)	(37.39%)	(34.27%)	(0.58%)	(4.28%)	(4.48%)	(9.20%)	(100%)
계	1,709	8,119	9,318	120	542	1,031	3,216	24,055
	(7.10%)	(33.75%)	(38.74%)	(0.50%)	(2.25%)	(4.29%)	(13.37%)	(100%)

[부록 2-9] 고양시 전출자 중 80대 이상의 연도별 전출사유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2010	44	414	413	6	5	114	274	1,270
	(3.46%)	(32.60%)	(32.52%)	(0.47%)	(0.39%)	(8.98%)	(21.57%)	(100%)
2011	56	419	386	2	4	89	293	1,249
	(4.48%)	(33.55%)	(30.90%)	(0.16%)	(0.32%)	(7.13%)	(23.46%)	(100%)
2012	52	444	336	5	5	111	223	1,176
	(4.42%)	(37.76%)	(28.57%)	(0.43%)	(0.43%)	(9.44%)	(18.96%)	(100%)
2013	46	493	390	4	38	67	146	1,184
	(3.89%)	(41.64%)	(32.94%)	(0.34%)	(3.21%)	(5.66%)	(12.33%)	(100%)
2014	67	560	461	7	43	73	50	1,261
	(5.31%)	(44.41%)	(36.56%)	(0.56%)	(3.41%)	(5.79%)	(3.97%)	(100%)
2015	75	613	449	5	49	64	81	1,336
	(5.61%)	(45.88%)	(33.61%)	(0.37%)	(3.67%)	(4.79%)	(6.06%)	(100%)
2016	64	623	459	6	39	42	111	1,344
	(4.76%)	(46.35%)	(34.15%)	(0.45%)	(2.90%)	(3.13%)	(8.26%)	(100%)
2017	63	669	453	4	54	69	114	1,426
	(4.42%)	(46.91%)	(31.77%)	(0.28%)	(3.79%)	(4.84%)	(7.99%)	(100%)
2018	81	650	422	9	69	87	157	1,475
	(5.49%)	(44.07%)	(28.61%)	(0.61%)	(4.68%)	(5.90%)	(10.64%)	(100%)
2019	67	656	349	5	82	87	156	1,402
	(4.78%)	(46.79%)	(24.89%)	(0.36%)	(5.85%)	(6.21%)	(11.13%)	(100%)
계	615	5,541	4,118	53	388	803	1,605	13,123
	(4.69%)	(42.22%)	(31.38%)	(0.40%)	(2.96%)	(6.12%)	(12.23%)	(100%)

2. 전출사유별 연령대 분석

[부록 2-10]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직업)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20	45	2,684	3,899	2,524	1,230	363	131	44	10,940
	(0.18%)	(0.41%)	(24.53%)	(35.64%)	(23.07%)	(11.24%)	(3.32%)	(1.20%)	(0.40%)	(100%)
2011	10	59	2,376	3,686	2,558	1,288	328	132	56	10,493
	(0.10%)	(0.56%)	(22.64%)	(35.13%)	(24.38%)	(12.27%)	(3.13%)	(1.26%)	(0.53%)	(100%)
2012	14	58	2,633	3,930	2,724	1,513	369	140	52	11,433
	(0.12%)	(0.51%)	(23.03%)	(34.37%)	(23.83%)	(13.23%)	(3.23%)	(1.22%)	(0.45%)	(100%)
2013	9	55	2,888	4,185	3,155	1,755	454	183	46	12,730
	(0.07%)	(0.43%)	(22.69%)	(32.88%)	(24.78%)	(13.79%)	(3.57%)	(1.44%)	(0.36%)	(100%)
2014	11	78	3,399	4,354	3,516	2,031	560	176	67	14,192
	(0.08%)	(0.55%)	(23.95%)	(30.68%)	(24.77%)	(14.31%)	(3.95%)	(1.24%)	(0.47%)	(100%)
2015	12	89	3,730	4,321	3,526	2,195	633	195	75	14,776
	(0.08%)	(0.60%)	(25.24%)	(29.24%)	(23.86%)	(14.86%)	(4.28%)	(1.32%)	(0.51%)	(100%)
2016	18	82	4,096	4,299	3,386	2,127	644	191	64	14,907
	(0.12%)	(0.55%)	(27.48%)	(28.84%)	(22.71%)	(14.27%)	(4.32%)	(1.28%)	(0.43%)	(100%)
2017	16	86	4,519	4,209	3,061	2,108	672	194	63	14,928
	(0.11%)	(0.58%)	(30.27%)	(28.20%)	(20.51%)	(14.12%)	(4.50%)	(1.30%)	(0.42%)	(100%)
2018	18	114	5,166	4,087	2,990	2,138	803	166	81	15,563
	(0.12%)	(0.73%)	(33.19%)	(26.26%)	(19.21%)	(13.74%)	(5.16%)	(1.07%)	(0.52%)	(100%)
2019	15	115	5,667	4,059	2,954	2,207	893	201	67	16,178
	(0.09%)	(0.71%)	(35.03%)	(25.09%)	(18.26%)	(13.64%)	(5.52%)	(1.24%)	(0.41%)	(100%)
계	143	781	37,158	41,029	30,394	18,592	5,719	1,709	615	136,140
	(0.11%)	(0.57%)	(27.29%)	(30.14%)	(22.33%)	(13.66%)	(4.20%)	(1.26%)	(0.45%)	(100%)

[부록 2-11]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가족)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314	512	3,171	3,602	1,977	1,274	1,045	789	414	13,098
	(2.40%)	(3.91%)	(24.21%)	(27.50%)	(15.09%)	(9.73%)	(7.98%)	(6.02%)	(3.16%)	(100%)
2011	259	496	3,048	3,589	1,918	1,323	911	690	419	12,653
	(2.05%)	(3.92%)	(24.09%)	(28.36%)	(15.16%)	(10.46%)	(7.20%)	(5.45%)	(3.31%)	(100%)
2012	259	457	2,974	3,603	1,904	1,247	914	742	444	12,544
	(2.06%)	(3.64%)	(23.71%)	(28.72%)	(15.18%)	(9.94%)	(7.29%)	(5.92%)	(3.54%)	(100%)
2013	238	442	2,997	3,892	2,119	1,458	1,029	958	493	13,626
	(1.75%)	(3.24%)	(21.99%)	(28.56%)	(15.55%)	(10.70%)	(7.55%)	(7.03%)	(3.62%)	(100%)
2014	243	440	3,214	4,099	2,196	1,681	1,171	888	560	14,492
	(1.68%)	(3.04%)	(22.18%)	(28.28%)	(15.15%)	(11.60%)	(8.08%)	(6.13%)	(3.86%)	(100%)
2015	243	435	3,230	3,937	2,326	1,708	1,132	827	613	14,451
	(1.68%)	(3.01%)	(22.35%)	(27.24%)	(16.10%)	(11.82%)	(7.83%)	(5.72%)	(4.24%)	(100%)
2016	211	437	3,029	3,980	2,226	1,747	1,263	891	623	14,407
	(1.46%)	(3.03%)	(21.02%)	(27.63%)	(15.45%)	(12.13%)	(8.77%)	(6.18%)	(4.32%)	(100%)
2017	226	378	3,230	3,741	2,041	1,629	1,118	800	669	13,832
	(1.63%)	(2.73%)	(23.35%)	(27.05%)	(14.76%)	(11.78%)	(8.08%)	(5.78%)	(4.84%)	(100%)
2018	195	388	3,392	3,858	2,052	1,763	1,222	766	650	14,286
	(1.36%)	(2.72%)	(23.74%)	(27.01%)	(14.36%)	(12.34%)	(8.55%)	(5.36%)	(4.55%)	(100%)
2019	184	367	3,533	3,804	2,043	1,677	1,261	768	656	14,293
	(1.29%)	(2.57%)	(24.72%)	(26.61%)	(14.29%)	(11.73%)	(8.82%)	(5.37%)	(4.59%)	(100%)
계	2,372	4,352	31,818	38,105	20,802	15,507	11,066	8,119	5,541	137,682
	(1.72%)	(3.16%)	(23.11%)	(27.68%)	(15.11%)	(11.26%)	(8.04%)	(5.90%)	(4.02%)	(100%)

[부록 2-12]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주택)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38	98	1,847	4,941	4,538	2,831	1,526	1,080	413	17,312
	(0.22%)	(0.57%)	(10.67%)	(28.54%)	(26.21%)	(16.35%)	(8.81%)	(6.24%)	(2.39%)	(100%)
2011	43	92	1,627	4,628	3,935	2,676	1,472	1,007	386	15,866
	(0.27%)	(0.58%)	(10.25%)	(29.17%)	(24.80%)	(16.87%)	(9.28%)	(6.35%)	(2.43%)	(100%)
2012	41	89	1,310	3,824	3,387	2,449	1,198	827	336	13,461
	(0.30%)	(0.66%)	(9.73%)	(28.41%)	(25.16%)	(18.19%)	(8.90%)	(6.14%)	(2.50%)	(100%)
2013	19	68	1,100	3,418	3,087	2,417	1,322	918	390	12,739
	(0.15%)	(0.53%)	(8.63%)	(26.83%)	(24.23%)	(18.97%)	(10.38%)	(7.21%)	(3.06%)	(100%)
2014	16	75	1,263	3,750	3,551	2,796	1,423	1,005	461	14,340
	(0.11%)	(0.52%)	(8.81%)	(26.15%)	(24.76%)	(19.50%)	(9.92%)	(7.01%)	(3.21%)	(100%)
2015	22	80	1,182	3,424	3,333	2,929	1,613	1,022	449	14,054
	(0.16%)	(0.57%)	(8.41%)	(24.36%)	(23.72%)	(20.84%)	(11.48%)	(7.27%)	(3.19%)	(100%)
2016	17	77	1,190	3,151	2,942	2,653	1,596	976	459	13,061
	(0.13%)	(0.59%)	(9.11%)	(24.13%)	(22.53%)	(20.31%)	(12.22%)	(7.47%)	(3.51%)	(100%)
2017	21	72	1,354	3,231	2,783	2,620	1,560	898	453	12,992
	(0.16%)	(0.55%)	(10.42%)	(24.87%)	(21.42%)	(20.17%)	(12.01%)	(6.91%)	(3.49%)	(100%)
2018	20	75	1,458	3,207	2,782	2,577	1,642	881	422	13,064
	(0.15%)	(0.57%)	(11.16%)	(24.55%)	(21.30%)	(19.73%)	(12.57%)	(6.74%)	(3.23%)	(100%)
2019	15	67	1,383	2,326	2,151	2,131	1,323	704	349	10,449
	(0.14%)	(0.64%)	(13.24%)	(22.26%)	(20.59%)	(20.39%)	(12.66%)	(6.74%)	(3.34%)	(100%)
계	252	793	13,714	35,900	32,489	26,079	14,675	9,318	4,118	137,338
	(0.18%)	(0.58%)	(9.99%)	(26.14%)	(23.66%)	(18.99%)	(10.69%)	(6.78%)	(3.0%)	(100%)

[부록 2-13]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교육)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68	638	495	235	339	80	20	15	6	1,996
	(8.42%)	(31.96%)	(24.80%)	(11.77%)	(16.98%)	(4.01%)	(1.0%)	(0.75%)	(0.30%)	(100%)
2011	127	662	488	216	313	95	15	9	2	1,927
	(6.59%)	(34.35%)	(25.32%)	(11.21%)	(16.24%)	(4.93%)	(0.78%)	(0.47%)	(0.10%)	(100%)
2012	146	769	634	246	364	114	14	10	5	2,302
	(6.34%)	(33.41%)	(27.54%)	(10.69%)	(15.81%)	(4.95%)	(0.61%)	(0.43%)	(0.22%)	(100%)
2013	127	733	704	207	369	89	16	14	4	2,263
	(5.61%)	(32.39%)	(31.11%)	(9.15%)	(16.31%)	(3.93%)	(0.71%)	(0.62%)	(0.18%)	(100%)
2014	127	761	770	225	355	106	26	7	7	2,384
	(5.33%)	(31.92%)	(32.30%)	(9.44%)	(14.89%)	(4.45%)	(1.09%)	(0.29%)	(0.29%)	(100%)
2015	117	682	863	163	382	102	14	14	5	2,342
	(5.0%)	(29.12%)	(36.85%)	(6.96%)	(16.31%)	(4.36%)	(0.60%)	(0.60%)	(0.21%)	(100%)
2016	127	704	987	173	336	103	21	10	6	2,467
	(5.15%)	(28.54%)	(40.01%)	(7.01%)	(13.62%)	(4.18%)	(0.85%)	(0.41%)	(0.24%)	(100%)
2017	95	713	1,173	166	328	107	20	15	4	2,621
	(3.62%)	(27.20%)	(44.75%)	(6.33%)	(12.51%)	(4.08%)	(0.76%)	(0.57%)	(0.15%)	(100%)
2018	90	717	1,232	177	322	137	23	14	9	2,721
	(3.31%)	(26.35%)	(45.28%)	(6.50%)	(11.83%)	(5.03%)	(0.85%)	(0.51%)	(0.33%)	(100%)
2019	92	811	1,412	178	298	127	24	12	5	2,959
	(3.11%)	(27.41%)	(47.72%)	(6.02%)	(10.07%)	(4.29%)	(0.81%)	(0.41%)	(0.17%)	(100%)
계	1,216	7,190	8,758	1,986	3,406	1,060	193	120	53	23,982
	(5.07%)	(29.98%)	(36.52%)	(8.28%)	(14.20%)	(4.42%)	(0.80%)	(0.50%)	(0.22%)	(100%)

[부록 2-14]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주거환경)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4	20	126	177	142	65	31	9	5	579
	(0,69%)	(3,45%)	(21,76%)	(30,57%)	(24,53%)	(11,23%)	(5,35%)	(1,55%)	(0,86%)	(100%)
2011	2	24	126	204	133	100	31	14	4	638
	(0,31%)	(3,76%)	(19,75%)	(31,97%)	(20,85%)	(15,67%)	(4,86%)	(2,19%)	(0,63%)	(100%)
2012	0	19	114	162	138	90	28	13	5	569
	(0,0%)	(3,34%)	(20,04%)	(28,47%)	(24,25%)	(15,82%)	(4,92%)	(2,28%)	(0,88%)	(100%)
2013	3	13	145	230	179	141	71	63	38	883
	(0,34%)	(1,47%)	(16,42%)	(26,05%)	(20,27%)	(15,97%)	(8,04%)	(7,13%)	(4,30%)	(100%)
2014	8	16	160	258	211	144	88	74	43	1,002
	(0,80%)	(1,60%)	(15,97%)	(25,75%)	(21,06%)	(14,37%)	(8,78%)	(7,39%)	(4,29%)	(100%)
2015	2	24	167	250	188	150	114	70	49	1,014
	(0,20%)	(2,37%)	(16,47%)	(24,65%)	(18,54%)	(14,79%)	(11,24%)	(6,90%)	(4,83%)	(100%)
2016	2	18	191	274	204	156	84	57	39	1,025
	(0,20%)	(1,76%)	(18,63%)	(26,73%)	(19,90%)	(15,22%)	(8,20%)	(5,56%)	(3,80%)	(100%)
2017	10	17	318	364	247	200	144	66	54	1,420
	(0,70%)	(1,20%)	(22,39%)	(25,63%)	(17,39%)	(14,08%)	(10,14%)	(4,65%)	(3,80%)	(100%)
2018	4	26	399	445	312	222	147	88	69	1,712
	(0,23%)	(1,52%)	(23,31%)	(25,99%)	(18,22%)	(12,97%)	(8,59%)	(5,14%)	(4,03%)	(100%)
2019	6	33	448	420	315	252	158	88	82	1,802
	(0,33%)	(1,83%)	(24,86%)	(23,31%)	(17,48%)	(13,98%)	(8,77%)	(4,88%)	(4,55%)	(100%)
계	41	210	2,194	2,784	2,069	1,520	896	542	388	10,644
	(0,39%)	(1,97%)	(20,61%)	(26,16%)	(19,44%)	(14,28%)	(8,42%)	(5,09%)	(3,65%)	(100%)

[부록 2-15]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자연환경)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2	9	28	96	114	115	112	131	114	721
	(0,28%)	(1,25%)	(3,88%)	(13,31%)	(15,81%)	(15,95%)	(15,53%)	(18,17%)	(15,81%)	(100%)
2011	5	6	31	87	131	117	128	121	89	715
	(0,70%)	(0,84%)	(4,34%)	(12,17%)	(18,32%)	(16,36%)	(17,90%)	(16,92%)	(12,45%)	(100%)
2012	2	10	39	80	127	143	135	141	111	788
	(0,25%)	(1,27%)	(4,95%)	(10,15%)	(16,12%)	(18,15%)	(17,13%)	(17,89%)	(14,09%)	(100%)
2013	1	2	25	63	97	124	95	90	67	564
	(0,18%)	(0,35%)	(4,43%)	(11,17%)	(17,20%)	(21,99%)	(16,84%)	(15,96%)	(11,88%)	(100%)
2014	2	7	22	70	120	121	129	103	73	647
	(0,31%)	(1,08%)	(3,40%)	(10,82%)	(18,55%)	(18,70%)	(19,94%)	(15,92%)	(11,28%)	(100%)
2015	3	6	40	69	92	130	139	95	64	638
	(0,47%)	(0,94%)	(6,27%)	(10,82%)	(14,42%)	(20,38%)	(21,79%)	(14,89%)	(10,03%)	(100%)
2016	0	3	26	62	104	142	112	76	42	567
	(0,0%)	(0,53%)	(4,59%)	(10,93%)	(18,34%)	(25,04%)	(19,75%)	(13,40%)	(7,41%)	(100%)
2017	1	9	37	69	99	160	125	97	69	666
	(0,15%)	(1,35%)	(5,56%)	(10,36%)	(14,86%)	(24,02%)	(18,77%)	(14,56%)	(10,36%)	(100%)
2018	2	1	43	82	107	160	150	85	87	717
	(0,28%)	(0,14%)	(6,0%)	(11,44%)	(14,92%)	(22,32%)	(20,92%)	(11,85%)	(12,13%)	(100%)
2019	3	7	33	64	115	177	146	92	87	724
	(0,41%)	(0,97%)	(4,56%)	(8,84%)	(15,88%)	(24,45%)	(20,17%)	(12,71%)	(12,02%)	(100%)
계	21	60	324	742	1,106	1,389	1,271	1,031	803	6,747
	(0,31%)	(0,89%)	(4,80%)	(11,0%)	(16,39%)	(20,59%)	(18,84%)	(15,28%)	(11,90%)	(100%)

[부록 2-16] 고양시 전출자의 연도별 연령대 분포(전출사유: 기타)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57	306	2,054	3,786	3,173	1,911	1,100	700	274	13,461
	(1.17%)	(2.27%)	(15.26%)	(28.13%)	(23.57%)	(14.20%)	(8.17%)	(5.20%)	(2.04%)	(100%)
2011	92	298	1,890	3,247	2,786	1,689	980	666	293	11,941
	(0.77%)	(2.50%)	(15.83%)	(27.19%)	(23.33%)	(14.14%)	(8.21%)	(5.58%)	(2.45%)	(100%)
2012	105	194	1,463	2,804	2,391	1,696	881	564	223	10,321
	(1.02%)	(1.88%)	(14.17%)	(27.17%)	(23.17%)	(16.43%)	(8.54%)	(5.46%)	(2.16%)	(100%)
2013	65	99	702	1,361	1,213	811	447	283	146	5,127
	(1.27%)	(1.93%)	(13.69%)	(26.55%)	(23.66%)	(15.82%)	(8.72%)	(5.52%)	(2.85%)	(100%)
2014	28	41	312	531	545	375	181	108	50	2,171
	(1.29%)	(1.89%)	(14.37%)	(24.46%)	(25.10%)	(17.27%)	(8.34%)	(4.97%)	(2.30%)	(100%)
2015	25	50	304	520	560	498	227	153	81	2,418
	(1.03%)	(2.07%)	(12.57%)	(21.51%)	(23.16%)	(20.60%)	(9.39%)	(6.33%)	(3.35%)	(100%)
2016	23	54	412	615	674	586	276	199	111	2,950
	(0.78%)	(1.83%)	(13.97%)	(20.85%)	(22.85%)	(19.86%)	(9.36%)	(6.75%)	(3.76%)	(100%)
2017	31	55	546	694	710	575	342	161	114	3,228
	(0.96%)	(1.70%)	(16.91%)	(21.50%)	(22.0%)	(17.81%)	(10.59%)	(4.99%)	(3.53%)	(100%)
2018	27	59	640	772	759	615	342	193	157	3,564
	(0.76%)	(1.66%)	(17.96%)	(21.66%)	(21.30%)	(17.26%)	(9.60%)	(5.42%)	(4.41%)	(100%)
2019	17	71	506	607	695	591	377	189	156	3,209
	(0.53%)	(2.21%)	(15.77%)	(18.92%)	(21.66%)	(18.42%)	(11.75%)	(5.89%)	(4.86%)	(100%)
계	570	1,227	8,829	14,937	13,506	9,347	5,153	3,216	1,605	58,390
	(0.98%)	(2.10%)	(15.12%)	(25.58%)	(23.13%)	(16.01%)	(8.83%)	(5.51%)	(2.75%)	(100%)

[부록 2-17] 고양시 전출자의 전입지

(단위: 킷 %)

전입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비율
파주시	10,035	9,052	7,790	6,169	7,083	7,162	6,001	6,078	7,668	5,883	72,921	14.27%
김포시	1,059	1,344	1,840	1,656	1,638	1,199	1,373	2,105	2,108	1,658	15,980	3.13%
용인시	1,136	1,067	1,073	1,082	1,036	1,061	1,186	1,082	1,292	1,181	11,196	2.19%
성남시	1,148	1,049	936	988	997	1,043	1,125	1,015	984	861	10,146	1.99%
수원시	882	917	987	922	968	1,008	1,007	995	1,035	963	9,684	1.90%
부천시	1,029	942	909	844	763	827	845	777	777	753	8,466	1.66%
남양주시	792	608	641	639	643	642	672	617	677	716	6,647	1.30%
화성시	523	441	447	443	415	633	672	710	861	863	6,008	1.18%
의정부시	646	542	547	573	491	534	595	532	558	610	5,628	1.10%
양주시	592	479	456	383	425	422	380	506	498	463	4,604	0.90%
안산시	522	563	522	473	433	400	442	386	413	445	4,599	0.90%
안양시	583	478	426	442	451	396	462	415	392	461	4,506	0.88%
시흥시	403	308	364	308	286	328	314	336	451	488	3,586	0.70%
평택시	265	245	269	271	334	335	376	406	419	450	3,370	0.66%
광명시	474	404	278	304	268	287	264	276	314	275	3,144	0.62%
광주시	256	252	262	279	293	249	301	326	335	312	2,865	0.56%
하남시	127	95	106	107	139	175	404	300	356	418	2,227	0.44%
군포시	270	221	191	186	221	194	216	211	171	202	2,083	0.41%
포천시	268	219	231	181	180	198	164	197	187	163	1,988	0.39%
양평군	176	184	186	154	171	194	187	208	207	219	1,886	0.37%
이천시	138	159	167	160	144	180	196	200	214	230	1,788	0.35%
오산시	164	145	185	97	137	152	162	163	187	177	1,569	0.31%
구리시	190	152	146	110	136	139	179	174	150	159	1,535	0.30%
안성시	164	143	155	150	143	131	152	119	146	170	1,473	0.29%
동두천시	172	140	129	128	119	121	116	101	112	100	1,238	0.24%
의왕시	116	110	144	143	89	107	110	92	112	133	1,156	0.23%
연천군	98	110	97	116	99	139	107	123	126	123	1,138	0.22%
가평군	97	91	105	106	115	116	116	112	136	99	1,093	0.21%

정 기 도

서울특별시															
과천시	75	80	75	58	68	66	60	31	46	77	636	0.12%			
여주시	0	0	0	27	90	102	110	111	73	103	616	0.12%			
여주군	99	92	104	56	0	0	0	0	0	0	351	0.07%			
소계	22,499	20,632	19,768	17,555	18,375	18,540	18,294	18,704	21,005	18,755	194,127	38.00%			
은평구	4,378	3,503	3,130	3,022	2,858	2,930	2,696	2,870	2,860	2,982	31,229	6.11%			
마포구	1,538	1,507	1,321	1,236	1,357	1,537	1,442	1,393	1,395	1,387	14,113	2.76%			
강서구	1,308	1,186	1,186	1,121	1,320	1,175	1,352	1,450	1,274	1,217	12,589	2.46%			
서대문구	1,355	1,183	1,228	1,119	1,026	1,216	1,303	1,128	1,147	1,178	11,883	2.33%			
강남구	1,152	1,061	909	886	1,062	1,018	938	896	888	939	9,749	1.91%			
관악구	936	817	821	835	839	773	855	872	949	1,013	8,710	1.70%			
영등포구	890	832	757	696	690	740	816	768	828	838	7,855	1.54%			
송파구	842	740	677	713	719	688	805	764	749	866	7,563	1.48%			
서초구	849	733	645	650	676	678	687	615	666	639	6,838	1.34%			
양천구	877	776	709	651	667	654	650	600	605	606	6,795	1.33%			
성북구	751	689	625	587	589	578	544	574	565	656	6,158	1.21%			
동작구	659	566	583	613	533	538	534	545	659	671	5,901	1.15%			
용산구	607	608	477	490	478	484	558	543	604	542	5,391	1.06%			
노원구	651	602	535	504	493	489	526	541	503	478	5,322	1.04%			
구로구	607	563	553	501	508	489	547	443	502	538	5,251	1.03%			
성동구	495	413	436	470	392	465	479	517	533	470	4,670	0.91%			
동대문구	472	443	415	423	452	435	420	451	436	503	4,450	0.87%			
강동구	454	477	431	410	397	411	375	439	389	514	4,297	0.84%			
광진구	475	411	372	423	421	440	404	408	458	475	4,287	0.84%			
종로구	486	414	409	397	427	398	381	449	411	376	4,148	0.81%			
중랑구	392	378	340	337	323	320	339	343	309	311	3,392	0.66%			
강북구	382	376	397	283	306	328	312	327	348	332	3,391	0.66%			
도봉구	397	350	303	305	298	306	320	311	273	277	3,140	0.61%			
중구	286	263	303	236	271	246	282	290	287	257	2,721	0.53%			
금천구	275	276	263	234	249	244	219	284	264	269	2,577	0.50%			
소계	21,514	19,167	17,825	17,142	17,351	17,580	17,784	17,821	17,902	18,334	182,420	35.70%			

인천광역시															
서구	503	737	761	789	685	656	677	657	696	638	6,799	1.33%			
부평구	464	478	475	443	433	409	420	412	373	372	4,279	0.84%			
남동구	344	427	375	339	349	386	390	411	393	339	3,753	0.73%			
계양구	471	450	442	431	353	362	346	323	286	276	3,740	0.73%			
연수구	266	286	256	283	232	293	317	337	310	399	2,979	0.58%			
남구	293	306	266	265	283	281	329	324	190	0	2,537	0.50%			
중구	135	143	188	258	219	267	191	225	283	392	2,301	0.45%			
강화군	123	138	136	124	145	141	140	144	170	123	1,384	0.27%			
미추홀구	0	0	0	0	0	0	0	0	126	335	461	0.09%			
옹진군	36	30	46	39	33	33	43	31	29	31	351	0.07%			
동구	43	40	30	31	28	31	32	32	32	32	331	0.06%			
소계	2,678	3,035	2,975	3,002	2,760	2,859	2,885	2,896	2,888	2,937	28,915	5.66%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46,691	42,834	40,568	37,699	38,486	38,979	38,963	39,421	41,795	40,026	405,462	79.36%			
비수도권	11,416	11,399	10,850	10,233	10,742	10,714	10,421	10,266	9,832	9,588	105,461	20.64%			
총합(전국)	58,107	54,233	51,418	47,932	49,228	49,693	49,384	49,687	51,627	49,614	510,923	100%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asons of population movement by age in Goyang City

Howon Suk*, Sodam Kim**

As of 2021, inequality in demographic structure by region in Korea appears to be very serious, and this inequality is largely due to population movement. Therefore, in order to find appropriate alternatives to alleviate regional demographic inequality by population movement,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on how such population movement is unfol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Goyang-City, which is the most active population movement in Korea, what are the reasons for population movement by age and how these reasons have changed over time.

Considering t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population movement and personal preferences are likely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age of potential movers, the focus was on analyzing changes in movement reasons by age.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Research Associate,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with regard to the reasons for moving in, educational factors, family factors are important in the school-age population under the age of 20, and occupational factors are relatively critical in the age of 20~ 50. Housing reasons are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ter the 50s. In addition, as age increases, interest in natural environmental reasons increases.

In the case of the reason for moving out, family and educational reasons are relatively high in under teens, and educational reasons in the age of teens. In their 20s, occupational factors are highest, and family and housing factors are next. In their 30s, housing and family factors occupy a high proportion following occupational factors, and in the case of people in their 40s, housing factors gradually decrease and the proportion of occupational factors increases. In the case of 50s, Housing factors begin to appear the highest, and the gap with occupational factors widens as the age increase. In their 60s, housing reasons are the highest, and family and occupational factors are next. and in their 70s, housing factors account for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ir over 80s, family factors are very high.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oving-in and moving-out cases by age in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main reasons of moving in and out of each age are very similar. Second, the priorities of the reasons for moving in and out by age are somewhat different. Third, the time series of changes in occupation, family, and housing factors, which are the main reasons for movement by age, are similar, and the propor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is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ain reasons for movement by age are distributed in different patterns, and the overall trend of change in moving in and out according to age shows similarity, so it is thought that Goyang-City's policy demand by age can be identified. Also, family factors, occupational factor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re on the rise among all age groups in their 20s and older, and housing factors are gradually

de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onsider the trend of changes in these factors when establishing population-related policies in Goyang-City.